

김승석 변호사 (제주 관음사 신도회장)
"명상은 마음 알아차리는 수행
자기 알게 되면 세상도 함께 행복"
16 · 17면

창간 20년
2014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4월 9일) · 주간

제 991호 2014년 5월 7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아함경〉
애착이 있으면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고
좋고 나쁨을 가리면 애착하게 된다.
자신을 애착으로부터 잘 다스려야 한다.

불교, '웹툰' 만나 '세상과 소통'

지찬 스님 등 '귄귄한 뉴스' 창간… 새로운 포교 시도 '눈길'

'웹툰'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 콘텐츠 중 하나다. 주요 포털사이트에 연재되는 웹툰들은 영화, 드라마 등으로 제작되면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부처님 말씀을 웹툰으로 전하는 인터넷 신문이 발행됐다. 5월 1일 창간된 '만만(귄귄)한 뉴스'(발행인 지찬)는 대중들에게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전하고, 만화 작가들에게는 소통과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이 매체에는 어라 지찬 스님, 배종훈, 양경수, 김동범 작가가 참여해 다양한 시각으로 불교를 표현하며 불교 포교의 새로운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만만(귄귄)한 뉴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함' 혹은 한글 그대로 해석하면 '부담스럽거나 무서울 것이 없어 쉽게 다루거나 대할 만하다' 라는 두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대중 누구나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으로 △젊은이가 말하는 불교 △만화(카툰)를 중심으로 하는 매체 △변화하는 공동체를 목표로 꾸준히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발행인 지찬 스님은 "젊은 불자들에게는 부처님 말씀을 쉽게 전하는 매체인 동시에 불교만화 작가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창간 취지를 전했다.

웹툰이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불교만화를 연재할 수 있는 매체가 드문 것은 사실. 이런 상황에서 '변화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만만한 뉴스는 불교를 만화로 풀어내고자 하는 작가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배종훈 작가는 "10년 넘게 불교 매체에서 만화를 그려왔지만 작가들끼리 소통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면서 "앞으로 만만한 뉴스가 불교만화 작가들에게는 소통의 장이 되고 신인 작가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불교 만화가 4명 의기투합
웹툰으로 '佛法 전하기' 나서
젊은층·불교 소통 '기대'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개발 중

현재 창간 멤버는 지찬 스님, 배종훈, 양경수, 김동범 작가로 이들은 각자의 개성이 듬뿍 담긴 각각의 섹션을 마련, 선적인 내용에서부터 시사문제까지 불교적 시각으로 표현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5월 1일 창간한 불교 웹툰 뉴스 '만만한 뉴스'의 타이틀. '만만한 뉴스'는 새로운 콘텐츠인 웹툰을 통해 불교를 전하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어라 지찬 스님


배종훈 작가


양경수 작가


김동범 작가

지찬 스님의 '사고팔고(四苦八苦)'는 스님의 대표 캐릭터 어라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서부터 승려로서 일상에서 느끼는 고충까지 다양한 에피소드를 유쾌한 시선으로 풀어낸다. 배종훈 작가의 '법구경하세'는 〈법구경〉의 명구들을 만화로 풀어 독자들에게 소소한 깨달음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김동범 작가는 '똥개김작가의 너는 아직 푸르다'로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양경수 작가는 '히어로즈'를 통해 불보살 캐릭터의 현대화를 추구한다.

앞으로 '만만한 뉴스'는 만화뿐 아니라 사진 영화 등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그 영역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또한 만만한 명상 · 여행 · 파티 등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개발 젊은층들이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창간을 기념한 전시회도 마련. 5월 19일~6월 2일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네 남자의 만만한 카툰전'을 연다. (http://manmanhan.tistory.com)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참회 추모 화합의 1만배 안산시 사암연합회 스님들과 지역불자들은 5월 24일까지 안산 화랑유원지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에서 참회 · 추모 · 화합 '1만배'를 진행한다. 사진= 박재완 기자

"이 같은 참사,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불교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조문 및 추모 행사 잇달아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넋을 애도하기 위한 국민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도 이에 동참하고 나섰다. 또한 안산 지역 불교계를 중심으로 범종단적 천도의식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안산시사암연합회(회장 승현, 이하 안산사암련)이다. 안산사암련은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참회 · 추모 · 화합'의 1만배를 진행한다.

'참회 · 추모 · 화합'의 1만배는 한달 동안 매일 저녁 7시 300배를 올리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처음 시작하는 10일은 참회의 300배, 추모의 300배, 나머지 10일은 화합의 400배로 이뤄진다. 1만배에는 안산사암련 사찰과 신도, 경기지역 포교사단 등이 참가하고 있다.

또한 안산사암련은 합동분향소에 부스를 설치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이들은 조문객과 유가족에 대한 상담과 기도를 비롯해 떡, 과일, 컵라면 등을 제공하며 조문객과 유가족의 편의를 돕고 있다.

안산사암련 회장 승현 스님(지장사 주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고, 많은 아이들이 희생된 안산시는 공황 속에 있다"면서 "불교 수행인 '절'을 통해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참회와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화합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 속에 안타까움과 원망, 연민 등이 있겠지만 이제는 누

자승 스님 등 불교계 지도자
분향소 찾아 희생자 애도

안산사암련, 합동 분향소서
참회·추모·화합 '1만배'
부스 설치하고 유가족 봉사
범종단 천도의식 봉행 계획

군가를 탓하기 보다는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좋겠다"면서 "향후 범종단적인 천도의식과 추모 법회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불교계 주요 인사들의 조문도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자승 스님은 4월 27일 새벽 6시 20분 안산올림픽기념관에 설치된 단원고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학생들을 애도했다. 이날 조문에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스님 전원이 함께 했다.

조문을 마친 자승 스님은 분향소를 지키며 희생자 유족들을 위로하고 있는 안산사암연합회 스님들을 찾아 격려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국가와 지역의 큰 슬픔을 지역사암연합회가 자발적으로 나서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은 주민과 불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사찰은 지역과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 앞으로도 지역의 힘든 일과 대소사를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과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스님들은 4월 30일 조계사 대웅전에 마련된 분향소를 방문해 넋을 기렸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도 4월 30일 안산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으며,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5월 1일 조문행렬에 동참해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신성민 기자



세월호 아픔 함께하는 봉축 법요식

서울 조계사 등 5월 6일 법요식 일제히 봉행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기 위한 불기 2558년 봉축 법요식이 5월 6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올해 봉축법요식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나누는 법석으로 꾸며졌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주관하는 봉축법요식은 조계사에서 종정 진제 스님과 원로의장 밀운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법요식은 일감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의 사회로 도량결계의식, 육법공양의식, 명고, 명종의식(28타)으로 시작해 관불 및 마정수기, 헌촉, 헌향, 헌다, 헌화, 조계사 주지 도문스님의 축원, 불자대상 시상,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봉축사, 대통령 축하메시지, 종정스님 법어, 봉축 발원문 낭독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불법 홍포와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불자들을 격려하는 '불자대상' 시상식도 함께 이뤄졌다. 올해 수상자로는 김동건 불교포럼 대표, 루이스 랭카스터 UC 버클리대학교 명예교수, 탤런트 선우용여 씨가 선정됐다.

특히 올해 법요식에는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와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이웃종교인과 카망 상라마 네팔 대사 등 주한 외교사절, 김민수 청년유니온노조 위원장, 새터민 가족 등이 참석해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했다. 신성민 기자

관련 기사 차주 상보

991호 INDEX

대행 선사 2주기 추모 다례재 3



종합 2
잇달은 연등 훼손 "차별금지법 필요"
軍의문사 피해자 자승 스님 예방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5
불교계 '나눔' 현주소와 과제
신행 포교 6
봉축 · 가족 위한 템플스테이
함께 가요 강의실 8
원효와 의상- 남동신 서울대 교수
테마가 있는 사찰 기행 12
전주 감천사

여객선 세월호 침몰 희생자 및 호국영령를 위한 천도대재와 국가안녕 경제부강 기원대법회



※ 참가 신청 선착순 1000분에게 용성조사께서 지으시고 마과 강사께서 번역하신 귀원정종을 봉암문도회에서 봉정하겠습니다.

기미 3.1 독립운동의 민족대표이신 용성조사 탄생 150주년,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선구자로서 용성조사로 부터 은. 법. 강. 율을 전수 받으신 봉암 대선사 성도 75주년, 사리 500여과 를 출현하신 석가산 장로의 자모 마야성 보살 입멸 1주년이 되는 음력 5월 8일을 맞이하여 차가운 진도 앞 바다에서 희생하신 애처로운 고혼과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시다 가신 호국영령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천도대재를 봉행하므로 조국 대한민국의 안녕과 경제가 부강 할 수 있다고 믿는 모든 국민은 팽목항에 모여 함께 기원하시기를 합장 합니다.

* 일 시 : 2014년 6월 5일 10시 * 장 소 : 팽목항

주최 : 봉암대선사문도회 주관 : 천도대재봉행위원회

■ 접수처 : 서래사 051)556-0278 법전사 054)972-5545 불광사 055)364-4747 금선사 033)763-2441
조계사 053)257-7032 광덕사 041)584-4154 용호사 043)253-7657 비봉사 055)742-0441
천양사 010-6593-7982 구룡사 054)437-4792

봉행위원장 : 화산당 월인화남 개당화상 / 혜산당 혜륜화남 배당화상 / 미산당 천강화남 어장화상 / 정산당 청봉화남

조계종 중앙종회 6월 25일 열린다

24일 의장단 연석회의서

조계종 제15대 중앙종회의 마지막 종회가 될 제198차 임시회가 6월25일 개원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는 4월24일 12차 회의를 열어 6월25일부터 5일간의 회기일정으로 198차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종회의장 향적 스님은 이날 "지난 3월 임시회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호계위원 참여를 위한 종헌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비구니 스님들의 반발이 많고, 종무행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운 점이 있다"며 "6월 임시종회를 열어 종헌 개정안을 비롯해 관련 종법 제개정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8차 임시회에서는 종헌종법 제재정안 처리에 집중하고 서면 종무보고와 종책질의 등은 생략하기로 결의했다. 신성민 기자

"사회 안전개혁은 비정규직 철폐와 함께"

조계종 노동위, 노동절 성명 발표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가 5월1일 124회 근로자의 날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동위는 성명서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하며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안전대개혁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개혁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위는 "기업의 불합리, 부패, 부당함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는 순간 계약해지가 되는 구조 속에서 어떤 비정규직 노동자도 안전과 생명에 눈 돌릴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는 비정규직 구조가 사회 안전을 불안하게 하는 중요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노동절 행사가 열린 지 90년이 흘렀지만 노동자들의 현주소는 어둡기만 하다며 2013년 3월 현재 208만 8천명의 임금근로자들이 생계위협에 시달리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4대보험 미가입 노동자는 380만 명, 34.2%의 임금근로자가 주 5일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불교계나 사찰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근로계약서작성,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사찰 노동자들이 단순히 절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배현진 기자

연등 훼손·연등회 폄훼… '차별금지법' 제정 절실

부처님오신날, 다시 차별금지법을 생각하다

서울 관악구 원각사에 지난해 주지로 온 연호 스님은 얼마 전 있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을 친다. 도심 사찰 주지로 부임해 처음 맞는 부처님오신날이기에 신도들과 열심히 준비해 가로 연등을 걸었다. 지역주민들이 종교를 떠나 인류의 스승이 오신 날을 축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하지만 스님의 바람은 빗나갔다. 누군가가 연등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훼손된 연등 위에는 성경 문구가 담긴 목판이 세워져 있었다.

부처님오신날 가로 연등 훼손과 연등회 폄훼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 관악구 원각사의 사례처럼 연등을 훼손하고 성경 문구 목판까지 올려놓는 대담함까지 보여주고 있다.

지난 4월 중순에는 연등 훼손행위가 전주에서 발생했다. 전주의 한 사찰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거리에 설치된 가로 연등 수 백개가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찰은 부처님오신날 4월 초 사찰 입구 간선도로 2.5km구간 양쪽에 가로 연등을 설치했지만 4월 13일 밤과 14일 새벽사이에 약 1km에 이르는 구간의 연등이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됐다.

모두 일률적으로 손으로 잡아당긴 듯 비닐이 심하게 찢겨 있었고 연등 내부의 철사가 모두 늘어져 있었다.

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된 연등회에 대한 특정종교의 폄훼와 공격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부처님오신날 조계사에 난입

서울 관악구 원각사가 설치한
연등 훼손하고 성경 목판 세워
전주에서도 가로 연등 훼손돼
예수재단, 올해도 연등회 폄훼
"우상숭배 연등회 STOP"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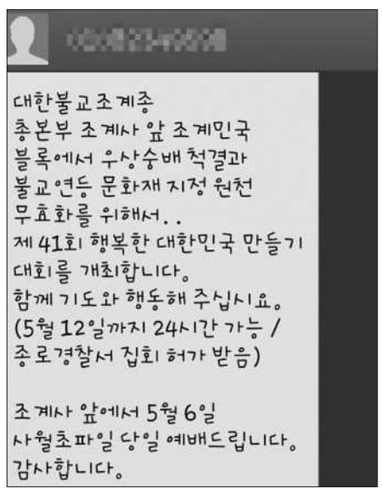
매년 반복되는 훼손 · 폄훼 사고
단호한 대처 · 관련 법 제정 필요

해 선교활동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던 예수재단 A목사는 최근 회원과 일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연등회 폐지와 이를 주장하는 예배를 독려했다.

A목사는 "연등회가 문화재라는 간판을 걸고 정부 지자체의 예산 지원과 방조 속에 진행되고 있다. 불교 연등의 사찰 바깥 출입은 절대 금지돼야 한다"며 "조계종 총본부 조계사 앞에서 우상숭배 적결과 연등회 문화재 지정 무효화를 위해 함께 기도와 행동해달라"고 회원들에게 촉구했다. 또한 5월 6일 조계사 앞에서 예배를 열 것임을 예고했다.



서울 관악구 원각사의 훼손된 가로 연등 위에 성경글귀가 세겨진 목판이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본부 조계사 앞 조계민국
블록에서 우상숭배 척결과
불교연등 문화재 지정 원천
무효화를 위해서..
제41회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함께 기도와 행동해 주십시요.
(5월 12일까지 24시간 가능 /
종로경찰서 집회 허가 받음)

조계사 앞에서 5월 6일
사월초파일 당일 예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재단 A목사가 배포한 문자메시지 중 일부. 이웃종교에 대한 몰이해로 점철돼 있다

매년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문제는 뾰족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신고를 해도 대부분 폐쇄회로 TV(CCTV)가 없고 인적 드문 시간대에 발생한 일이라 목적자의 신고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일선 사찰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로 연등이 훼손된 전주의 사찰은 언론에 노출되는 것도 꺼렸고 봉축을 앞두고 종교간 갈등이 빚어지는 것도 원치 않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교계 전체의 단호한 대처와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본적인 근절 대책으로 '증오방지법', '차별금지법'과 같은 관련 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증오방지법은 민족이나 인종, 종교 등에 관한 편견이나 증오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법이다. 프랑스에서는 개종을 강권하는 행위를 징역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스웨덴에서도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 목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캐나다에서는 동성애가 기독교 성서에 반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사람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기도 했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는 "가로 연등 훼손은 봉축기간에 특정종교 일부 종교인이 벌이는 연례행사가 됐다"면서 "애써 무시하기보다는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일부 종교인들의 훼불 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증오방지법이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과 같은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성숙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군 의문사 명예회복 도와주세요"

의문사유족協, 자승 스님 예방
관련법 개정안 국회상정 호소

"1998년에 아들이 군 복무 중 의문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냉동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하루속히 재조사가 이루어져 아들 장례나마 치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의무 복무중 사망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전국 유가족 협회'(공동회장 김정숙) 회원중 한 명인 홍한표 이병 어머니 윤옥순씨가 간곡한 어조로 말했다. 4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다.

지난 4월 조계종 사회부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군 인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군 의문사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에게 관련 법률 통과 등을 협조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바 있다. 유가족협회측은 이에 대한 감사 인사를 위해 접견실을 찾았다.

7명의 유족은 "군 인사법 개정에 불교계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사람이 죽었으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군이라는 폐쇄된 조직의 특성상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유족에게 타살 입증 책임을 전가시킨다"며 "이번에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지만, 7월 국회에서는 상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의무 복무중 사망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전국 유가족 협회'가 4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해, 관련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써달라며 호소했다.

유가족 측은 "세월호 참사를 보며 남일 같지 않은 마음에 눈물을 많이 흘렸다. 아이들이 가면서 얼마나 부모를 찾았겠냐"며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는 우리 아들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부모로서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자승 스님은 "국가에 자녀를 맡겼는데 사고가 생겼다면 부모가 이의를 제기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부모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것 또한 국가의 역할이다"며 "억울한 심정을 헤아릴 수 없지만, 법안이 꼭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유가족들을 격려했다.

군의문사 유족들을 지원해온 덕문 스님 역시 "관련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열 번이고 더 노력하겠다"며 "국회의원들도 자식을 둔 부모라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냐"고 위로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

자승 스님, 1일 임명… '주지 인사 갈등' 봉합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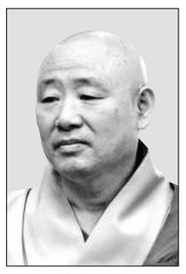
주지 인사를 놓고 갈등 중인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에 불교중앙박물관장 덕문 스님이 임명됐다. 직영사찰 조계사 주지에는 호법부장 원명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5월 1일 덕문 스님과 원명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동화사는 산중 화합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있는 만큼, 종정예하를 잘 모시는 가운데 대중들의 지혜를 모아 산중의 안정과 화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덕문 스님에게 당부했다.

이어 "조계사는 전임 주지스님들이 잘 해오신 만큼 더 혼신을 다해 전법과 가람수호에 정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임명으로 주지 인선을 놓고 내홍중인 팔공총림 동화사의 상황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방장 진제 스님은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양측을 품어야 하는 의견들을 받아들여 참회제자인 덕문 스님을 주지로 임명키로 결정했다. 결정 이후 5월 1일 덕문 스님의 주지 품신 서류를 곧바로 총무원에 접수했다. 현 주지 성문 스님 측도 이 같은 임명 사실을 수용해 5월 2일 예정됐던 산중총회를 21일로 연기했다.


원명 스님


덕문 스님

덕문 스님은 종열 스님을 은사로 1985년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화엄사 승가대학 졸업후 통도사, 해인사, 화엄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했다. 용화사, 보문사, 선본사 주지, 13~15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중앙종무기관 불교중앙박물관 관장으로 재임 중이다.

원명 스님은 능혜스님을 은사로 1977년 사미계를 수지하고 용주사, 불국사, 봉암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했다. 현재 삼화사 주지이며 총무원 호법부장 소임을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봉 축

(사) 불보종지 대한불교 영축산조계종 창종 선포문

社團法人 大韓佛教 靈鷲山 曹溪宗

창종 선포문

서천축으로부터 대성 석가세존께서 일대사십구년 교설하신 팔만사천대법문 가운데서 대승불교의 성불도생을 석가모니불 교조로 하고 육조 혜능조사를 종조로 하며 대승불교의 조계 선맥을 이어 수행과 보살학번에 의한 광구중생 구고구난의 대자대비 사상을 받들어 내세창해의 나침반으로 하여 대승보살행을 교리로 삼는다. 근세에 유감스럽게도 종단운영에 대한 견해 차이로 끝없는 분규와 문파간의 갈등은 분종사태로 이어져 불조의 혜명을 조계맥이 특정종단의 전유물인양 주권 다툼으로 일불제자의 문중분규로 이어져 결국 불심을 멍들게하니 이러한 것을 바로잡고 佛日이 만고에 빛나게 하기 위하여 창종을 선포합니다.

불기 2558(2014)년 4월 16일

발기인

원로원장 효산 대종사

총 무 원 장 향 산 봉 암 대종사　　포 교 원 장 청 안
교 육 원 장 수 월　　총무부원장 광 명

사회부장 지 산　　문화부장 혜 월　　기획실장 마 니
호국부장 도 진　　감사부장 천 광　　호법부장 도 산
사무국장 경 덕　　홍보국장 지 운　　상임감사 법 률

◇ 창종선포식 증명대덕 큰스님
육조조계종 총무원장 법 인　정토불교총무원장 법 천　대한불교前승가종총무원장 법 봉

그 외 많은 큰스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축

불보종지 영축산문 개산종조 향산 봉암

■ 총무원 :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1가 126번지 보타사 전화 051)412-1788

보전부담금 시름했던 전통사찰 제한구역 '불사' 숨통 트였다

건축물 보전부담금 면제 관련 개정안 국회통과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은 사찰 불사를 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증축할 때 부담되는 보전부담금 때문이다.

서울 진관사의 경우 373㎡(113평)규모의 템플스테이 시설을 짓고 부담금 1억 3000여 만원이 부과됐다. 당초 부담금은 7억 원을 초과했지만, 항공사진을 통해 기존 건물지를 확인해 감면받았다. 서울 금선사는 60여㎡(20여 평) 증축불사를 하면서 보전부담금으로 2억여 원이 부과됐다. 이는 증축불사 금액과 맞먹는 금액이어서 결국 불사는 미뤄졌다.

서울 학도암의 경우 요사채와 식당 등 430㎡(130평)를 정비하고 4억 원이 넘는 부담금 폭탄이 떨어져 현재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해 어려웠던 전통사찰 증축불사에 숨통이 트였다. 불사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이에 따라 전통사찰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건축행위 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이 면제되며, 빠르면 오는 5월 중순 법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4월 30일 밝혔다.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통사찰과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에 대해 건축행위 시 부과되는 부담금을 '없음' 으로 명시했다. 또 '개정된 법 시행 당시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되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에도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內 전통사찰들
수억원 씩 부담금 폭탄 '시름'
국회, 본회의서 관련 法 개정
전통 · 문화재 사찰 부담금 면제

그간 '개발제한구역법' 에 따라 전통사찰이나 문화재사찰이 전통문화발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부담금이 부과돼 일부 사찰이 불사를 포기하거나 보류해 왔다.

조계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 · 생활편익 · 생업을 위한 시설' 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면서도 전통사찰과 문화재사찰의 주거 · 생활편익 등의 행위에는 부담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문화유산에 대한 규제해소와 보수 ·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이 면제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과 문화재가 많은 제약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억제, 타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토지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초 이이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건축물과 토지 모두 포함됐지만, 수정안으로 발의돼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조계종 기획실은 "이번 개정안은 문화유산에 대한 규제해소와 보수 ·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이 면제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과 문화재가 많은 제약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향후 전통문화의 발전을 규제하고 억제하는 개발제한구역제도, 도시공원제도, 자연공원제도, 기타 각종 규제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개정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묘공당(妙空堂) 대행 선사의 2주기 추모 다례재가 4월 29일 경기도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에서 거행 됐다. 주지 혜원 스님과 이사장 혜수 스님이 대행 스님을 모신 각령전에 헌향 · 헌다를 하고 있다.

"모든 것 자기 마음자리에 맡기고…"

한마음선원, 대행 선사 2주기 추모재… 5000여 대중 참석

묘공당(妙空堂) 대행 선사의 2주기 추모 다례재가 4월 29일 경기도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에서 거행 됐다.

이날 다례재에는 한마음선원 문도들과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 봉녕사 승가대학장 도혜 스님,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을 비롯해 부산 · 대구 · 광주 · 진주 · 독일 지원 등 25개 지원에서 온 사부대중 5000여명이 대행 스님의 열반 2주기를 추모했다.

대행 스님을 모신 각령전에 사부대중이 삼배를 한 후, 문도 스님들은 헌다 · 헌화 · 헌향을 올렸다.

이후 청산 스님의 집전으로 조사영반 불공 후 본원 및 각 지원 신도회장의 헌화가 이어졌다. 이어서 대행 스님 육성법문과 추모기념영상상영 및 음성공양 순으로 진행됐다.

육성법문에서 대행 스님은 "도라는 것은 생활 삶이라고 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원인이 어딨는가 알아야 한다. 산에 올라가는데 줄이 없으면 올라갈 수 없다. 본래 우리들 제각기 줄이 있다. 그걸 잡고 그 언덕을 넘어서면 된다"라며 "그 줄은 누구에게나 있다. 어렵게 살든 못났든 잘났든 이걸 떠나서 하다못해 물고기와 같은 생명들에게도 불성이 있다. 이 사람들이 살고 죽고 하는 게 그냥 불교"라고 강조했다.

추모기념영상에서는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는 각 지원 신도들의 인터뷰 영상을 담았다.

이어 주지 혜원 스님은 대행 스님의 법문을 인용해 "모든 건 다 자기 마음자리에 맡겨 놓고 그 줄만 붙들고 가라"고 당부했으며, 다례재 후 신도들은 대행 스님이 주석했던 서산정과 부도탑을 참배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교, '도-농 상생' 농산물 장터를 열다

해남 · 화천군 특산물 장터
조계사, 5일까지 진행해
인드라망, 매주 화요일마다
마을 큰장터 · 생협 교육 열어



서울 종로 조계사는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도농간 상생을 도모하는 향토 먹거리 장터를 개최했다.

도-농간 상생이 해묵은 사회 과제가 된 지금, 불교계가 지역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의 직거래를 주선하는 장터를 잇달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종로 조계사(주지 도문)는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경내 도심포교백주년기념관 주차장 부지에서 향토 먹거리 장터를 열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열린 장터에는 해남, 화천, 강진군에서 생산된 지역 특산물들을 소개하고 판매했다.

판매 부스에는 법회를 마친 불자와 출퇴근 시민들이 찾았다. 부스 관계자는 "지역에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해도 소비자가 구매해줘야 한다"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도심 사찰에서 이 같이 지역 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장터를 열게 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 이하 인드라망)의 마을 큰장터는 조금 더 구체적이다. 인드라망은 4월 29일 서울 양천구 인드라망 교육도량 앞에서 '인드라망 마을큰장터' 를 개최했다. 장터에는 생산자들이 손수 기른 친환경 농 · 축산물을 비롯해 직접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아나바다 장터, 바느질 소모임 '코땀' 의 수제 바느질 제품 판매, 협동조합 서촌 공방의 수제 물품들이 판매됐다.

이에 앞서 교육도량 3층 법당에서는 베란다 · 옥상 텃밭 가꾸기 특강도 진행됐다. 인드라망은 향후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마다 '인드라망 마을큰장터' 를 열어 도-농간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프로그램도 확대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BTN불교TV 방송 제작역량평가 '우수'

방통위, 2013년도 평가 결과…"프로세스 매우 우수"

BTN불교텔레비전(사장 구본일)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2013년도 방송채널 콘텐츠 제적역량 평가 결과 '우수 PP업체' 에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4월 25일 2013년도 등록PP대상 콘텐츠 제작역량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불교TV는 세 가지 평가 항목 가운데 프로세스 경쟁력 분야에서 '매우 우수' 를, 자원 경쟁력 분야에서 '우수' 를 받아 전체 총점에서 '우수 PP' 로 이름을 올렸다.

프로세스 경쟁력 분야는 제작과 유통경쟁력, 자원 경쟁력 분야는 인적 · 물적 자원경쟁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불교TV는 CTS기독교TV와 함께 종교분야에서 '매우 우수' PP에 포함됐다.

이번 평가는 불교TV가 지속적인 인력 및 장비투자와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작에 공들인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불교TV는 채널CGV, 수퍼액션, OCN, MBC 에브리원, 투니버스 등 쟁쟁한 채널들과 우수PP로서 어깨를 나란히 했다.

특히 우수PP로 선정된 33개 채널 가운데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에 비해 인력과 재원 면에서 열악한 불교TV와 같은 개별PP가 16개(48%)나 포함돼 중소규모 채널도 제작역량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방통위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자원 · 프로세스 · 성과 경쟁력 등 세 항목에 대해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했으며, 이번 평가에는 93개 사업자 134개 채널이 참여했다.

한편, BTN불교TV 구본일 대표은 지난 3월 18일 종교방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방송통신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영산불교 현지사 영산불교대학에서 5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세계 어느 불교대학에서도 배울 수 없는 불법의 정수** 부처님의 위대한 실체, 인간 영혼체의 비밀, 무아론의 바른 이해, 불보살이 되는 수행법을 **영산불교대학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 영산불교대학에서는 다양한 과목과 체계적 교과과정, 우수한 강사진을 통해 깊고 방대한 부처님 법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수준 높은 불자 양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대학 입학을 통해 교학과 신심, 그리고 수행으로 이어지는 불자님들의 신행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2014년도 영산불교대학 5기 수강생 모집 안내

■ 모집인원 : 1 · 2 · 3 · 4학년 각반 150명 선착순 모집
■ 입학자격 : 제한없음. 처음 입학하시는 분은 1학년만 입학가능.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순서로 매년 승반
■ 수업일정 : 2014년 5월 24일 ~ 2014년 11월 30일
월 2회 - 격주 토요일 (4시간 강의)
■ 입학일시 : 2014년 5월 24일 10시
■ 교육장소 : 현지사 대전분원 -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1392
■ 교육과목

1학년	부처님의 생애, 신불교사상, 칭명염불수행법, 금강경사경, 불교예절, 찬불가, 특강
2학년	지장경, 천수경, 반야사상, 정토학, 신불교학개론, 찬불가, 특강
3학년	법화경, 아함경, 열반경, 금강경, 세계종교비교 I , 특강
4학년	보현사상, 문수사상, 신불교학과 철학, 세계종교비교 II , 특강

입학처 및 연락처
대전분원 : 042)525-5325, 042)525-5345
춘천본사 : 033)243-1787
고성분원 : 033)681-5515
제주도 제2본산 : 064)783-5355
서 울 분 원 : 02)453-5953
부산분원 : 051)554-5150
대구분원 : 053)654-5557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현지사 춘천본사 033)243-1787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일 주 문



안양교도소 떡국 공양
서울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은 5월 2일 안양교도소 수계법회에서 2600여 재소자에게 떡국공양을 베풀고 오계를 설했다.



제3차 선운사 초기불교 강좌
고창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 운영위원장 법만 스님은 5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제3차 선운사 초기불교 열린강좌를 개최한다. (063)561-1475



제11회 천년의숲 선재길 걷기 대회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5월 17일 월정사와 상원사 구간에서 제11회 오대산 천년숲 선재길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제12회 한국선다회 다맥전수법회
하동 쌍계사 주지 성조 스님은 5월 2일 제12회 한국선다회 다맥전수 대법회 acl 육조 진감 초의선사 108헌다례를 개최했다.



영산전 과거칠불 이운 철야기도
공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5월 10일 마곡사 영산전에서 과거칠불 이운 철야정진 기도를 진행한다.



어린이날 맞이 도서 전달
무산복지재단 이사장 정념 스님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4월 30일 양양군내 17개 초등학생 1,065명에게 도서를 전달했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 휴대폰활용교육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화평 스님은 6월 10일까지 어르신 휴대폰 활용교육을 진행한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홍보대사
태고종 홍보부장 혜철 스님은 4월 29일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로부터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해인사 대장경 보존국장 성안 스님 입적



대장경 지킴이로 불리며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지켜온 해인사 대장경 보존국장 성안 스님이 4월 27일 88고속도로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입적했다. 성안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5월 1일 해인사에서 진행됐다.

1967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난 성안 스님은 1994년 원명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같은 해 4월 범어사에서 정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8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부처님 말씀은 최고의 상담이죠"

불교상담대학원 설립 위해 1억원 기부한 김인수 교수



소통하는 불교상담가 양성
사회구제 도움주고파 발원
교수 연금 기금으로 내놓아

"부처님은 중생의 상담가를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불교와 명상을 기반으로 한 심리치료가 각광받고 있고 불교상담이 사회적으로 필요되는 일이 많은데 이를 교육하는 불교 대학원은 2곳에 불과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입각해 상담가를 양성한다면, 내담자가 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고 혼탁한 시대에 당연히 도움 되지 않을까요?"

지난 4월 30일 자비나눔기금 1억원을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기탁한 부산교대 김인수 명예교수. 그는 15년간 모은 교수 연금을 불교상담대학원대학교 설립에 써달라며 선뜻 기금을 쾌척했다.

부산교대에서 정년퇴직 후 서울교대에서 초빙교수로 교편을 잡고 있는 김인수 교수는 현재 불교상담대학 교수다. 불교상담개발원 부설 자비의전화 이사를 맡고 있기도 있다. 그는 당초 연금을 서울교대에 환원하려는 생각을 했지만 제대로 된 강의실도, 화장실마저 없는 불교상담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위해 마음을 내기로 결심했다.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도 싶었고 국가가 공인하는 졸업장을 떳떳이 든 불교상담 전문가들이 구석구석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것이다. 상담개발원은 현재 교육부 인가 불교상담대학원대학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2015년까지 기금5억원을 마련할 계획으로 현재 2억5천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상담전문가를 자처하면서도 그는 불교상담대학 07학번으로 입학해 총 4년의 동대학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도 했다. 부처님 말씀이 상담의 좋은 등불이 되리라는 생각에서다. 그가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상담해주는 이도 부처님이다. 어려울때마다 관세음보살을 떠올린다는 그는 몇 시간이고 부처님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해답이 자연스레 떠오른다고 이야기한다.

"부처님 역시 제 말을 그대로 경청해주시죠. 수용과 공감, 이는 상담의 기본원칙이기도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교리와도 상통하죠."

김인수 교수는 상담계에서 내로라하는 베테랑이다. 부산교대에 있을 때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심성개발훈련을 진행해 교육부 인가 '인성교육실전최우수대학'에 선정돼 3억원의 상금을 받기도 했다. 그가 상담에 할애해 온 시간을 셈하면 벌써 50년. 그러다보니 상담이 가진 작지만 큰 영향력을 누구보다 절감하게 됐다는 그는 상담을 일컬어 "인간다움을 살리는 길, 영혼을 일으켜주는 일"이라고 말한다. "어떤 악인이라도 상담을 통해 선한 본성을 일깨울 수 있다"고 말하는 김 교수는 "부처님이 누구나 착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신 여래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그가 앞으로 상담대학원을 졸업하게 될 후배들에게 바라는것은 한 가지다. 상담의 무게를 가벼이 말라는 것. 그는 상담이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다루고, 사회의 윤리와 도덕까지도 아우르기에 매우 귀중한 것이라고 말한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구하리라는 소명감을 가지고 상담에 임해달라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불자들 추모 뜻 표현하고자 제작"

노란 연등 아이콘 만든 지용 구윤호 법사



지용 스님

"인터넷 상에서 노란 리본 그림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자들이 리본 대신 연등을 달면 어떨까 싶어 제작하게 됐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국민메신저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에는 노란 연등 그림이 걸렸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불자들이 올린 사진이었다. 이 노란 연등 그림은 조계종 홈페이지를 비롯해 불교계 미디어에도 대거 실렸다. 이 그림을 처음으로 제작한 이가 군법사 스님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바로 8사단 팔정사 주지 지용 구윤호 법사다.

"불자들이 이번 사태를 계속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거나 피해를 받는 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자들이 모두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공업 중생이기에 이들의 아픔이 곧 우리의 아픔입니다."

구 법사는 인터넷이나마 노란 연등 그림을 달며 이들을 기억하자고 말했다. 구 법사가 제작한 노란 연등 그림은 봉축행사에서 다각도로 활용됐다. 대불련 지회 행사의 마스코트가 되기도 하는가 하면 군법당에서는 봉축연등 대신 노란연등과 노란리본을 달기도 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육아용품 대여점 개소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이사장 혜총) 산하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이 육아용품대여점 '아마존(아이들의 마음이 있는 공간)'을 4월 28일 개소했다.

(주)세정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마련된 '아마존'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지하층에 공간을 마련하고 육아용품을 비롯한 장난감 200여점을 비치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위해 장난감과 육아용품을 대여해줌으로써 가정의 경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육아용품점이 들어선 용호종합사회복지관

프로젝트 핑크붓다 '꿈을 쌓다展'



프로젝트 아티스트 그룹 핑크붓다(Pink Buddha)의 '꿈을 쌓다展'이 4월 28일 서울대 어린이병원 내 불교법당에서 진행됐다. 5월 6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탑(塔)에 꿈을 담는 프로젝트 형 전시로서, 서울대병원의 환우 및 일반인과 함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핑크붓다 6명의 작가가 서울대병원의 환우 및 일반인에게 핑크 색 소재에 소원을 직접 적은 '드림페이퍼(Dream Paper)'를 받아, 한 점의 탑(塔) 작품을 완성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노란 리본도 함께 달았다.

정혜숙 기자

하남 성불사 '만인만발 무차공양'



하남 성불사 주지 학명 스님은 4월 21일 지역민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한 '만인만발 무차공양 대법회'와 '제13회 성불사 벽담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함께 열었다.

이날 무차공양에서는 지역 어르신 500여 명이 성불사 신도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음식공양을 받았으며,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학인스님과 대학생 불자와 동국대학교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 학생 8명에게 총 224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불자야구단 대학야구 제패



동국대 2014 대학야구 춘계리그 대회에서 건국대를 3 대 1로 누르고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차지했다. 4월 15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결승경기에서 동국대는 3회와 4회 5회 각각 1점을 얻은 뒤 7회 1점을 만회한 건국대를 따돌리고 2연패의 기쁨을 안았다.

불자인 이건열 감독은 부임 후 전국대회에서 4번의 우승을 일궈내며 최고의 지도력을 발휘했다. 이날 선발 최동현(체교2) 선수는 7회 1사까지 건국대 타선을 4피안타 무실점으로 틀어막아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노덕현 기자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모든 불보살님의 가피가 저 바다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총무부원장 주석사찰
망 월 사
주 지 보 원
■ 경북 경주시 배동 490
TEL 054)745-7579

대한불교원효종 부산교구
자 비 원
종무원장 석 불
■ 부산광역시 동구 조천4동 883-8
TEL 051)644-8361 / FAX 051)642-8361

대한불교조동종 종회의장 주석사찰
약수산 명덕사
주 지 행봉 해륜
신도일동
■ 강원도 홍천군 남면 명동리 산 55번지 2반 TEL 033)432-7345

대한불교조동종 감찰원장 주석사찰
봉제산 우암사
주 지 덕성 행성
신도일동
■ 서울시 강서구 화곡본동 24-197번지 TEL 02)2698-6100

“주어도 준바 없이”… 나눔 문화 정착에 앞장

불교계 ‘나눔’ 현주소와 과제

올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는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이다. 이제 ‘나눔’ 은 우리 불교계는 물론 우리 사회의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예전에는 특정인들이나 하는 전유물로 여겨져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승속을 막론하고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눔’ 의 형태도 다양화됐다. 조계종 공익기부 단체인 ‘아름다운동행’ 측에 돈을 기탁하는 기금전달을 비롯해 독거노인이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도시락배달 같은 자원봉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재능기부 같은 새로운 보시의 장이 열리기도 한다.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라 카카오스토리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기부 프로그램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불교계의 나눔문화의 현주소는 어디까지 왔으며, 진정한 나눔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계종 교육원 연수교육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노인 복지관에서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는 스님의 모습.

재능기부 활발…홍보, 의료분야 등

신행활동을 하는 불자들은 일반적으로 사찰에서 봉사한다고 하면 사찰 일손을 돕는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봉사 개념을 확장해 각자가 가진 능력을 기부해 포교활동에 활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금까지는 의료봉사회 등 특별한 재능을 가진 불자들이 모여 조직을 결성했다. 하지만 이제는 일반 불자들까지도 다양한 영역에 뛰어 들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자신의 재능을 사찰 홍보에 기부하는 것이다. 서울 조계사와 강남 봉은사는 불교기자학교를 개설하고 교육받은 신도들이 직접 사보를 제작하고 있다. 봉은사는 특히 신도 중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사진기자 7명, 취재기자 6명으로 기자단을 조직해 사보인 ‘봉은 판전’ 제작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한의사불자연합회, 병원불자연합회 등 직장직능 단체에서도 꾸준히 자신의 재능을 이용한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다.

스님들도 연수교육 대신 자비봉사로 대체

스님들도 교육기간 동안 봉사 등 복지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자비를 실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조계종의 경우 승려 연수과정에 자원봉사활동 과정을 넣어 최소 12시간 이상을 자비실천에 진력하도록 했다. 이런 좋은 취지 때문인지 여기에 참여하는 스님들이 매년 7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교육원이 발표한 참여 현황을 보면 2010년 74명을 시작으로 2011년 189명, 2012년 249명, 2013년 353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스님들은 조계종복지재단 산하 100여 곳 이상의 각 지역 복지시설서 노인을 비롯한 장애인 · 아동 · 청소년 등에 자비행을 실천중이다. 특히 이 · 미용을 비롯해 쑥뜸, 상담, 염색체험 지도, 선무도 등 스님들이 출가 전후에 익혔던 재능을 기부하는 등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다. 활동 지역도 전국의 종합복지관 22곳을 비롯해 노숙인 시설 7곳, 장애인 시설 25곳, 노인센터 42곳, 다문화센터 30곳, 청소년 어린이 시설 24곳 등에 달한다.

류창무 조계종 교육원 연수팀장은 “여러 연수 과정 중에 자원봉사도 연수로 인정하다 보니 인식이 많이 확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생명나눔 홍보대사 위촉식. 왼쪽부터 법타 · 일면 · 월호 스님


동국대 불교아동학과의 연극 재능기부

보시 · 자원봉사도 특수 · 전문화 시대
각 사찰 신도 재능기부 전문지식 활용

공연 수익 및 인세 기부도 늘어나는 추세

최근 불교계에서는 기획 단계부터 기부를 위한 공연 및 책 출간도 이어지고 있다. 불교박람회서 진행된 붓다아트 페스티벌 중 인기 웹툰 작가의 작품을 활용한 ‘아트 기부 프로젝트(Art Donation Project)’ 가 그 예다. 주호민(신과 함께), 어라 스님(불광 연재 만화작가) 등 60여 작가가 참여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수익의 40%를 국제구호기구인 더프라미스에 기부했다.

이밖에 정목 스님은 저서 〈비울수록 가득하네〉의 인세 수익을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해 모두 전달하기도 했다. 불자로 알려진 노희경 작가도 출판계약 당시 기부를 전제로 책을 펴냈는데 소설집〈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의 전액과 에세이집 〈지금 사랑하지 않는자 모두 유죄〉의 인세 일부 등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됐다. 대한민국 한지대전 운영위원이기도 한 한지전문가 김정순 종이나무갤러리 대표도 동국대 일산병원에 600여 한지 등을 직접 만들어 기부했다.

생명나눔 등 장기기증에는 참여 ‘절실’

하지만 또다른 나눔인 장기기증에는 타 종교에 비해 아직까지 불자들의 인식이 저조한 편이다. 국내 장기기증 희망자가 2009년 18만 4764명서 2011년 8만 7788명으로 급격히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 유일한 장기이식 등록기관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가 그나마 고군분투 중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 1월부터 주변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홍보하고 100명 넘게 희망등록자로 추천한 회원을 격려 포상하는 ‘명예의 전당’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유명인 홍보대사 위촉 등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생명나눔실천본부에 등록한 장기기증 희망자는 3만 9000명으로 전체 장기기증자 130여만 명에 비하면 3%에 불과한 상황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스님들부터 솔선수범한다면 평소 스님을 존경하고 따랐던 불자들에게도 큰 울림이 될 것”이라며 “조금 더디기는 해도 꾸준한 스님들의 동참으로 불자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립대, 청년불자들에게 기부문화 교육

동국대를 비롯한 종립대에서는 최근에 청년불자를 양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기부문화를 교육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는 지난 3월 인재개발처 참사람재능나눔센터를 개소했다. 이 곳은 경주시와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과 재능기부 상호협력을 체결한데 이어 4월 29일에는 경주 용강초등학교를 방문해 로봇 공연, 페이스페인팅, 카네이션 만들기 등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동국대 불교아동학과 학생들이 경주 장애인복지관서 연극 재능기부를 통해 기금을 모아 장애인 돕기에 뛰어들기도 했다.

동국대에서는 지난 2월 108리더스 재학생 및 졸업생 1000명이 장학금 등으로 받은 1억원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들은 동아리 공모전 활동, 해외봉사 활동 지원금 등을 차곡차곡 모았으며 2013년 KBS 예능 프로그램 ‘1대100’ 우승상금 등도 기부해 이 같은 돈을 모았다. 108리더스는 108릴레이 봉사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밖에 동국대 참사람봉사단은 단장인 김희옥 총장을 비롯해 교수, 직원, 학생 등 29명이 참여해 녹음한 녹음도서 4권을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 전달했다.

통일운동을 펼치는 불교계 단체인 조계종 민족공동체운동본부도 남북불교교류에 청년들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민추본 재능기부회원이 바로 그것. 1기 재능기부회원으로는 모금 및 후원관리 등에 5명이 선정돼 이미 활동에 들어갔다.

조기룡 동국대 교수는 “미술, 음악을 활용한 문화나눔과 같은 젊은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모델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종단에서는 생명나눔활동과 산사음악회 등을 활용해 젊은 층에 재능기부 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 배현진 기자

지금은 SNS 활용한 신개념 나눔 시대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의 해피번 사이트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한 기부도 새롭게 도입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16만명의 시민들이 하루만에 6억 원을 모금했듯이 인터넷과 SNS를 통한 나눔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반갑다 연우야’ 의 ‘사랑재’ 가 카카오스토리를 통한 나눔경매를 펼치고 있어 화제다. 지난해 2월 창단된 ‘사랑재’ 는 카카오스토리에 물품을 기증하고 회원들이 경매가를 입찰해 모금한 기금으로 소외이웃을 돕고 있다. 현재 450여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93건의 나눔경매가 진행됐다. 사랑재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카카오톡 친구(아이디 : sarangjae)에 가입하는 것. 친구 등록 이후 카카오스토리에 기증품이 올라오면 원하는 물건을 경매날짜에 맞춰 댓글로 입찰하면 된다. 회원들은 재능 기부도 진행해 부처님오신날 전통문화축제에서 진행한 공연 등으로 100여 만원을 모금해 반갑다 연우야의 해외진료 의약품 구입비로 전달하기도 했다.

온라인 기부 포털 사이트 해피빈(happy bean.naver.com)을 활용한 모금도 다양하다. 해피빈은 1개에 100원의 가치를 지닌 네이버 아이템 ‘콩’ 으로 손쉽게 후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피빈에는 370여개의 후원파트너와 1000만 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6400여개 공익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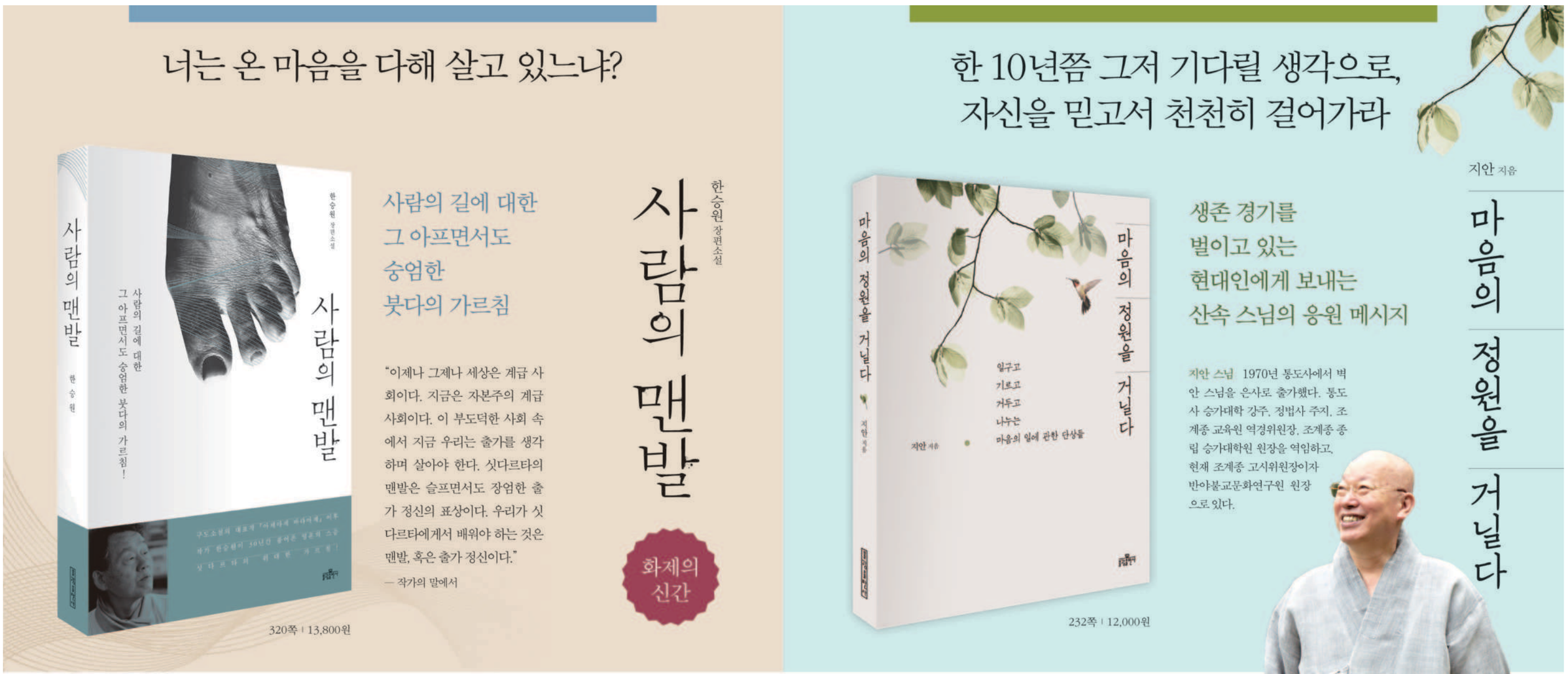
불교계에서는 공익 기부법인 아름다운동행(www.thenanum.org)을 비롯해 부산 삼광사 힐링광장, 서울 길상사 맑고향기롭게 등이 해피빈에 모금함을 개설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 네티즌의 수가 많다고 해서 개설된 모금함이 모두 관심을 받는 것은 아니다. 모금함이 개설된 지 1년이 지나 참여도가 저조해 모금을 중단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꾸준히 사업을 진행한다면 신뢰성이 갖춰지고 참여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작은 것을 모아 큰일을 할 수 있기에 불자 개개인이 참여하는 모금활동, 소액기부자들을 모으는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랑재’의 카카오스토리 기부경매 모습



포교원 · 경찰전법단 세월호 추모법회

4월 29일 경찰청 본청에서 '봉축 대법회 및 추모법회'



세월호 실종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경찰의 발전을 기원하는 추모 법회가 열렸다.

세월호 실종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경찰의 발전을 기원하는 추모 법회가 열렸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과 경찰전법단은 4월 29일 경찰청 본청에서 '부처님 오신날 대법회 및 추모법회'를 열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경승실장 도문 스님, 동해해양경찰청 경승실장 원행 스님 등을 비롯한 조계종 중앙신도회, 조계종 포교사단 및 불교단체 회원 등 4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날 경찰불교회원인 임길수 경위와 윤은실 행정관은 경찰청 대표로 발언문을 낭송하고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이나은 기자

역삼청소년수련관, 한-홍 청소년 교류 성료

동자승 그리기, 한복 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 공유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수련관(관장 보련)은 4월 16~20일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홍콩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에 한국을 찾은 홍콩의 'Our Lady of the Rosary College' 청소년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 한국 미술을 이해하고자 이천 도자기마을, 낙산공공미술벽화거리, 홍대 피카소거리 등을 방문했다. 또한 홍콩청소년과 한국 또래친구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서로 느낄 수 있도록 마술, 캐릭터 동자승 그리기, 한복 체험 등 여러 체험활동을 하면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수련관은 4월 16~20일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홍콩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이와 같은 국제교류 활동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자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글로벌 시대의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이런 일환으로 오는 5월 14~18일 홍콩 대학생들과 국제교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레협, 마음으로 다가가는 문화학교 마련

불교 어린이법회 지도사들이 어린이들에게 문화유산을 알리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마련된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혜만)은 '2014 문화유산 방문교육-마음으로 다가가는 문화학교'를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문화재청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유산정책활용연구소 우인에서 주관하는 교육이다.

문화학교는 성균관과 문묘(조선시대의 교육과 선비문화)를 주제로 5월 25일, 6월 29일, 8월 31일, 11월 2일 오전 10시에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불레협은 "문화유산 역사 전문 강사 분들이 법회에 찾아가는 방문교육으로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알리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02)738-7860 이나은 기자

지치고 아픈 마음, 가족과 산사서 '休'

문화사업단, 5월 봉축·가정의 달 맞이 템플스테이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호소한다. 5월이지만 국민정서는 밝지 않다. 이럴 땐 번잡하고 요란하게 여행을 떠나기보다 조용한 산사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어떨까. 조계종 문화사업단이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13곳 사찰에서 실시하는 템플스테이를 소개한다.

부처님오신 뜻 기리면서

만해 한용운의 시심과 불심이 함께 깃든 강원도 인제의 설악산 백담사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화장세계 템플스테이'를 5월 6일 마련한다.

내설악의 자연 속에서 스님과 차담(茶啖)을 나누고 맥놀이명상(사물체험), 소원을 비는 탑돌이, '시심즉불' 등을 통해 새로운 나를 만나는 평온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강원 인제 백담사 템플스테이만의 독특한 전통인 '시심즉불'은 자신의 마음을 시로 적어보는 프로그램으로 일반 대중 사이에 인기가 높다. (033)462-5035/5565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는 봄꽃보다 더 향긋한 특별 템플스테이를 5월 5~6일 개최한다. 아름다운 도비산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느끼는 '야생화 찾기' 프로그램은 물론 소원을 비는 탑돌이, 스님과의 차담을 통해 심신에 활력과 기운을 채우는 시간을 갖게 된다. 천수만 등지의 생태환경을 견학할 수 있어 체험여행지로도 좋다. (070)8801-3824

고구려 소수림왕 때인 서기381년 아도화상이 창건한 현존 최고(最古)의 도량인 **강화 전등사**는 휴식형 '휴~~템플스테이'를 상시운영한다. 예불과 공양시간만 준수하면 본인 마음대로 편안히 쉴 수있어 몸과 마음의 재충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다. 정족산에 자리한 전등사는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 문서를 보관하던 사고가 있던 장소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032)937-0152

힐링하고 무료혜택도 받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이 관광주간을 맞아 전국 13개 사찰에서 가족 템플스테이 'One+One 이벤트'를 실시한다.

전국 각지의 여행 및 체험행사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관광주간은 오는 5월 11일까지이며, 템플스테이는 산중 고찰에 펼쳐진 아름다운 봄꽃 전경과 함께 더욱 특별한 여행을 선사한다.

인제 백담사, 서산 부석사 등
탑돌이, 생태 프로그램 운영
관광주간 맞이 '1+1' 이벤트
가족 단위 참가자에 무료 혜택

'One+One 이벤트' 는 금산사, 낙산사, 법륜사, 삼화사 등 전국 각지의 13개 사찰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혜택으로는 부모님과 함께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자녀에 한해 무료 체험을 제공한다.

무료 혜택은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까지 가능하며, 미취학 아동(유아) 동반 시 프로그램 참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자녀와 함께 자연의 생기를 느껴보고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문화유산이 곁들여지니 학습에도 제격이다.

또한 관광주간 기간 중에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가족 참가자에게 템플스테이 무료 체험권을 증정한다. 해당 사찰에 주소를 남기면 6월 중 참가한 가족의 수와 동일하게 발송되며, 13개 사찰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하다.

후속 템플스테이 무료 제공으로 사찰별 고유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두루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관광주간 기간에는 부처님 오신 날 자체 행사 준비로 사찰의 템플스테이 운영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예약 전에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관계자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한 체험을 통해 아름다운 산사에서 가족과의 잊을 수 없는 추억여행을 선사할 예정이다. 템플스테이로 하여금 행복의 씨앗이 가정에서부터 움트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광주간 '봄꽃찾아 가족여행'(spring.visitkorea.or.kr)이나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templestay.com)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미황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아이와 엄마가 법고를 치고 있다.

'One+One 이벤트' 대상 사찰

금산사, 낙산사, 도갑사, 미황사, 반야사, 백담사, 법륜사, 법주사, 대원사(산청), 삼화사, 수덕사, 심원사, 용문사(양평)

"나를 다스려야 자녀와도 잘 지낼 수 있어요"

한마음과학원, 5월 13일부터 '학부모 프로젝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위한 마음공부 프로그램이 열린다.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은 5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한마음과학원 국제회의실 및 선원 경내에서 '지혜와 자비의 다스림 학부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7주 과정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은 △주인공으로 살아요 △평가하지 말아요 △다그치지 말아요 △싸우지 말아요 △고맙습니다 △쉼 △내 안의 꽃을 피워요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학부모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구체적인 상황을 소재로 마음 다스리는 간단한 방법을 자신과 자녀에게 적용하고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다스림의 방법을 익히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마음과학원은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성장기 자녀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나의 의식을 지혜롭고 자비롭게 다스릴 수 있는 만큼 자녀에 대해서도 원만하고 자비롭게 대할 수 있다"며 "프로그램을 통해 나를 다스리는 방법을 익혀 자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031)470-3200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교상담개발원, 관계 깨우는 소통 교육

5월 15~17일 목동 국제선센터서, 교육원 연수교육 인증과정

불교와 심리를 활용한 소통과 치유 프로그램이 열린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5월 15~17일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조계종 교육원 연수교육 인증과정 교육인 '나와 너, 관계를 깨우는 의사소통'을 개최한다.

스님과 재가불자 등 6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최훈동 서울대 의과대학 겸임교수가 강사로 불교의 연기법과 심리학의 정신분석을 접목한 이론 ·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수업을 통해 고통의 본질에 대해 불교적, 심리적으로 짚어보고 그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면 심층의식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성찰하고 숙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후 관계에 관한 연기적 법칙을 명상을 통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계 자체도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는 것으로, 있는 그대로 두고 바라보는 가운데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생 상호간 실제 훈련할 예정이다.

불교상담개발원은 "강사의 전문성과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매순간 교육생과 소통할 수 있는 깨어있는 강의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737-7378

이나은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6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4월 중
◆ 개강일시 : 2014년 4월 중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5월 26일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불자님들께서 주지스님께 올리는 최고의 보시품

(구입하시는 불자님들께는 보시자의 이름을 하단에 넣어드림)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 멋진 모양의 마이크로 법당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가격 : 2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가정의 달… 올 복지관 행사는 소박하게

5월 가정의 달. 지금쯤이면 복지관에서는 각종 행사로 떠들썩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올해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복지관이 조용한 모양새다. 제법 큰 규모의 행사를 준비했던 곳은 일정을 미루거나 전면취소했고, 세월호 희생자 추모기금행사로 전환해 진행하는 곳도 있다.

한 복지관 관계자는 "구청에서 행사 자제 요청 공문을 받았다"며 "매년했던 행사를 전면 취소할 수 없어 규모를 축소하고 조용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관마다 떠들썩한 외부행사는 자제하고 조촐하게 내부 행사로 마무리 하고 있는 것이다.

남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어른과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 세월호 사건. 서로 간 도닥임이 더 필요한 시기에, 어린이와 어르신, 가족을 위한 소박한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아봤다.

어버이날 행사– 카네이션 데이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무료급식을 진행하는 복지관이 많다.

부곡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도선)에서는 5월 8일 복지관 이용 어르신과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카네이션DAY' 행사를 진행한다. 인근 햇살유치원 아동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경로식당 어르신들에게 달아드리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는 직접 봉사자들이 찾아가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계획이다. (031)417–3677

청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영학)은 5월 10일 금천구 지역 내 저소득 가정의 어르신 350여분을 모시고 '사랑해–孝' 행사를 개최한다.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효–孝의 의미를 전하고 소외 마음을 위로하고자 계획된 이 행사는 지역 봉사단 등이 참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주역인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02)806–1377

황송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일운)에서는 5월 9일 어르신과 함께하는 장보기가 진행된다. SK케미칼에서 후원받은 상품권으로 인근 재래시장을 방문,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 및 식료품을 구입한다. 성남농협사랑 주부봉사단이 어르신과 동행한다. (031)731–5520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원장 손지영)에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심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5월 8일 세족식을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벌써 세 번째를 맞는 이 행사는 복지사,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의 발을 씻겨드리는 훈훈한 미담으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인근 52사단 6019부대 장병 20명과 요양센터 직원 101명이 함께 130명 어르신의 발을 씻겨드리며 섬김의 마음을 전한다. 5월 10일에는 청소년자원봉사학교 학생 20명과 학부모 14명이 요양원을 찾아 손수 만든 음식을 어르신께 대접할 예정이다. 매주 요양원으로 봉사를 나오는 청소년들의 학부모가 동참했다. 청소년들은 조촐한 공연을 준비해 어르신들 앞에서 선보인다. (02)409–1616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지난해 실시된 세족식. 복지사가 어르신의 발을 정성스레 닦고 있다.

어버이날 맞이해 세족(洗足)식
발 씻겨드리며 공경 의미 표현
부처님오신날에는 '행복론' 강의

스님의 행복론 강의듣고 가족캠프 출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특강과 체험교실 등이 마련됐다.

종로노인복지관(관장 정관)은 5월 6일 복지관 이용 어르신 30여명과 함께 사찰문화체험의 일환으로 청주 평화사를 방문, 부처님오신날 기념법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02)742–9500

前 삼전복지관 관장이었던 보각 스님은 **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동옥)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열린 특강 '최상의 행복론'을 준비한다. 복지관 측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 이들을 위해 삶을 특별하게 해줄 강의를 준비했다"며 "행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5월 9일 오전10시부터 열린다.

또한 삼전복지관에서는 아동들에게 불교문화유산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내손으로 만져보는 역사' 교실을 열고 석굴암 만들기 시간을 진행한다. 5월 31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웃가족과 함께 떠나는 1박2일 가족캠프도 마련됐다. 경기도 안성 너리굴문화마을에서 공예체험과 레크리에이션, 오솔길 산책 등을 하며 가족화합의 시간을 다질 예정이다. (02)421–6077

이외에도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공상길)에서는 5월 23일 신길동 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우리가족 시난 DAY'를 진행한다. 먹거리와 공연, 나눔장터가 운영된다. 지난해에는 마술 공연, 곤충전시, 가족사진촬영 등이 진행됐다. (02)831–2755

서로 이해해봐요– 가족 교육 진행도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자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한부모가정 또한 다양한 형태의 가정 중 하나임을 알리는데 초점을 맞춰 평등한 가정문화 확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을 신청하면 한부모가정센터 소속 전문강사가 방문교육을 실시하며, 유아 · 초등학생, 중 · 고등학생, 일반시민, 아이돌보미, 교사 등 대상별 맞춤교육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중고생들을 대상으로는 '변화하는 세상, 건강한 가족'을, 일반시민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한가지, 보이지 않는 차별'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매월 둘째 토요일에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코칭 '사랑+'를 실시한다. 자녀와 함께하는 미술코칭, 학습전략검사, 나들이 등이 마련된다. (02)861–3020

배현진 기자

중림복지관, 지역 주민 봉사단 발족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갑)은 이웃사랑실천을 위해 봉사단을 발족했다.

수족마사지 봉사단 '러빙핸즈'와 환경지킴 봉사단인 '초록맘 리더봉사단 우리가 green 마을'이 4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수족마사지 러빙핸즈 봉사단은 2달간 전문적인 수족마사지 교육을 수료하고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마사지 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역 내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초록맘 리더봉사단 우리가 green 마을' 도 활동을 시작한다. '우리가 green 마을'은 EM(유용미생물)에 대해 관심있어하는는 주부를 대상으로 EM발효액 및 천연비누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천연제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후에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지역 내 환경 지킴에 앞장설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된다. 폐식용유를 활용해 EM 재활용 비누를 만들고,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수족마사지 러빙핸즈 봉사단원이 교육을 받고 있다.

당신의 마음은 건강하신가요?

원종복지관, 어르신 정신건강검진

부천 원종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홍갑표)은 4월 23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와 우울증을 진단하는 정신건강검진을 진행했다. 노년기에 직면하는 심리 · 정서적 위기에 놓인 어르신을 미리 발굴해, 정신건강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위해서다.

치매는 우리나라 어르신 100명 중 약 9명이 앓고 있는 심각한 질환이다. 어르신들의 치매에 대한 불안감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치매환자 관리가 개인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대두 되고 있기에 사회적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정신건강검진은 만 60세 이상 73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부천치매센터 · 오정보건소가 참여해 복지관 지하 1층 나눔터에서 진행됐다.


어르신들이 정신건강검진을 받고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신건강검진에 참여했다는 어르신 중 한명은 "멀리 가지 않아도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어서 좋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어르신들이 마음건강을 되찾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오래된 미래〉저자, 호지여사 강연 열린다

5월 31일 '지속가능 개발의 대안과 방향'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원경)이 〈오래된 미래〉의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사진〉와 함께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호지여사는 스웨덴 출신의 언어학자 · 세계적인 여성 생태환경운동가로 개발과 파괴를 일삼는 서구식 산업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리틀 티베트'로 불리는 라다크의 '오래된' 사회를 우리의 '미래'로 제시한 바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측은 "개발이 약속한 것은 소득증대와 빈곤극복, 교육과 의료문제의 현대화이지만 서구에서는 아직도 빈곤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대안과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호지여사를 초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좌는 개발로 인해 라다크에서 빈곤과 불평등, 마을 공동체와 생태계의 파괴가 일어나는 모습을 지켜본 호지여사가 조화로운 관계의 가치와 지역의 중요성이 바탕이 되는 생태 공동체 중심의 생활방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5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1시부터 열린다. 1부에서는 다큐멘터리 '행복의 경제학'이 상영되고 호지여사의 강연은 2부에서 시작된다.

참가 신청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http://jabinanum.or.kr)에서 하면 된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강북복지관, "단단한 노후 인생 시작~"

강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소지)에서는 어르신들의 단단한 노후 인생을 위해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채무, 부동산, 상속 관련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한다. 5월 9일과 26일 진행되며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또한 어르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IT 지원사업 '세상과 사랑을 잇(IT)는 노리터(老里擔)–Smart Dream Start! 스마트한 꿈을 시작하는 강북 노리터' 사업을 진행한다.

총 28명의 어르신들이 두 반으로 나뉘어 8개월간 컴퓨터, 휴대폰, IPTV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매주 월, 수, 금요일 복지관 내 2층과 지하 노리터에서 진행된다. 교육 후에는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외부 봉사활동인 IT 나눔활동을 실시한다. 삼성SDS,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후원받는다.

배현진 기자

생전 예수재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생전 예수재는 살아 있을때 사후(죽은 뒤)를 위하여 공덕을 쌓아서 지옥고를 받지 않고, 극락왕생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전예수재가 사후의 극락도 보장하지만, 살아있을때,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을 겸한 재로써, 이 재를 지내면 그시점부터, 단계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게 되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빚을 갚은 만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로써 업장소멸이 거의다,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빚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생전예수재 기도 방법과 방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스러운 방편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제 생전예수재 기도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자님들께 드릴 생전예수재 기도의 중요성 책자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기도신청방법

생전예수재 기도 책자를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본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기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전예수재 기도의 성취효과는 매우 크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써넣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불자님들께서 다른 좋은 기도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한번 해 보실 만한 기도로써, 생전예수재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그동한 살아왔던 삶이 괴로우셨다면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요.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원효와 의상은 동일 진리 추구한 동반자

국립중앙박물관, 도요 인문학 정원

남동신 교수(서울대 국사학과)

원효(元曉, 617-686)와 의상(義相, 625-702)은 같은 시대를 살아간 동시대인이었다. 둘 다 승려로서 삶의 목표는 같았지만 각자의 기질이라든가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 등의 모든 면에서 그들은 대조적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독한 우정을 나누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남동신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는 4월 26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인문학 정원 강연자로 나서 **'같은 꿈 다른 삶, 원효와 의상'**을 강의했다. 다음은 강연의 요지다.

정리=이나은 기자

원효, 승속불이(僧俗不二)의 거사불교(居士佛敎)

원효는 617년(진평왕 39) 지금의 경상북도 경산(慶山)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문인 설(薛)씨가 왕족의 성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최근 발견된 자료에 따르면, 설씨가 신라 왕성(王姓)인 김(金)씨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니 그의 신분이 6두품이라는 종래의 통설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출신 성분과 더불어 그의 출가 동기라든가 출가 사찰도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있다.

원효는 650년(진덕여왕 4) 중국 장안(長安) 불교계에서 이름을 드날리고 있던 현장(602-664)의 소식을 듣고 의상과 함께 당나라 유학을 시도했다. 그들은 당항진으로 가는 길에 지금의 직산(稷山) 부근의 동굴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한밤중에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낀 원효는 근처의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는데, 물맛이 감로수다 더 달콤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야 그 물이 해골물임을 알고는 역겨움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토하고 말았다. 일순간 그는 모든 번뇌와 의혹이 구름 걷히듯 말끔히 해소되는 것을 느꼈다. 그가 그토록 추구해왔던 무엇을 마침내 깨달은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一切唯心造!)"

원효에게 당나라 유학은 더 이상 긴요한 과제가 아니었다. 의상과 헤어진 그는 신라로 돌아와 본격적인 대중교화에 힘썼다.

되돌아보면, 당시 신라는 불교에 힘입어 국가를 경영하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자연 불교는 체제적 성격이 짙었다.

그런데 신라 불교는 위로부터 수용되었기 때문에 지배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대다수 일반민은 장기간의 삼국 전쟁으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불교적 구원의 손길은 이들에게 미치지 않았다.

이에 지배층 중심의 불교를 반성하고 소외된 일반민에게 종교적 관심을 촉구하는 승려들이 불교계 일각에서 출현했다. 원효가 주로 만나서 교유한 혜공(惠空)이나 대안(大安) 등 비(非) 진골 출신의 승려들이 대표적이었다.

그들은 주로 경주 시내의 저자라든가 경주 외곽을 무대로 이른바 '불교대중화운동'에 매진하고 있었다. 원효는 이들과 함께 어울렸다. 그런데 대중들과 몸으로 부대끼며 그들을 교화하다보면 교단이 요구하는 엄격한 계율을 지키기 어렵다. 어부를 교화하려면 물고기도 먹어야 하고 술꾼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술도 마셔야 하며 기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기방에도 출입해야 한다. 원효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 그리고 자신의 파격적인 행동을 〈화엄경〉에 근거하여 '무애행(無碍行)'이라 이름했다. 계율에 얽매이지 않는 파격적인 행동은 그를 교단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러한 그를 대중들은 지지하고 따랐다.

654년 신라 사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진덕여왕을 끝으로 성골에 의한 왕위 계승은 막을 내렸다. 대신 진골 출신인 김춘추가 김유신의 지원을 받아 중대왕실(中代王室)을 개창한 것이다. 왕실의 교체에 따라 불교 교단의 재편도 불가피해졌다. 중대왕실은 불교 교단을 세속적인 권력 하에 더욱 예속시키는 동시에 대중적 지지를 받는 승려들을 포섭하고자 했다. 한편 원효는 어떤가. 사실 원효가 신념에 따라 불교대중화운동에 종사하였지만, 일련의 파계행으로 말미암아 불교교단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었다.

파격적이라 할 만큼 자유분방한 교화활동은 반대파에게 더없이 좋은 비난거리였다.

언젠가 황룡사 백고좌회(百高座會)에 추천을 받았지만, 기성 교단의 반대로 참여할 수 없었던 적도 있었다. 더욱이 그에게는 더 큰 시대적 과제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독자적인 철학체계를 수립하는 것과 불교를 대중화시키는 일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의 꿈을 실현시켜줄 후원자가 필요했다.

일연(一然)의 〈삼국유사〉에 남긴 짧은 이야기에 따르면, 원효와 요석공주의 만남은 태종무열왕대(654-661)에 일어났다고 한다. 승려가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하는 것은, 불교에서 바라이(斷頭)죄라고 하는 가장 중한 죄를 범하는 것이 되며, 그 처벌은 세속에서의 사형에 해당하는 교단 추방이었다. 전후맥락으로 보아 원효는 강요당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스스로 자처한 결과였다.

원효의 파격적인 무애행은 궁극적으로 '승속불이(僧俗不二)의 거사불교(居士佛敎)'를 지향하는 운동이었다. 기존의 교단질서를 뒤흔드는 파격만큼이나, 위민정책을 추진하며 새로 출범한 중대(654~780) 집권 세력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양자는 정법(正法)으로 백성을 교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 공감대는 원효와 요석공주와의 파계라는 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원효 스스로 환속하게 되지만 마침내 그는 거사로 돌아가, 각자의 현실적인 처지는 천차만별이나 본질적으로 평등한 중생의 내면적 각성을 촉구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불교적 유토피아(淨土)를 지금 이 땅에서 구현하고자 했다.

원효는 대략 77부 150권의 저술을 남겼다. 그 내용을 보면 당시 주요한 대승불교 사상이 거의 망라되어 있다. 이 정도로 방대한 저술은 교단에서 소외되어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승려로서는 불가능하다. 안정된 경제적 후원자가 있어서 동아시아 불교계의 동향을 알려주고 불경 및 그들의 저술을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한다. 중대 왕실은 민심을 사로잡은 원효를 주목하고 있었다. 그러니 원효와 요석공주의 인연은 예견된 것이었다.



양양 낙산사 보타전 벽화, 650년 깨달음 직후 해골을 들고 춤추는 이가 원효이며, 뒤돌아보며 당으로 떠나는 이가 의상이다.



남동신 교수는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원효에 대한 사상사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문화재 전문위원을 지냈으며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특히 한국 고대와 중세 불교사에 큰 관심을 갖고 연구를 펼치고 있다. 저서로는 〈원효(1999, 새누리)〉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이색의 고려대장경 인출과 봉안〉〈고려 중기 왕실과 화엄종〉〈고려 전기 금석문과 법상종〉〈나말여초 전환기의 지식인 최치원〉 등이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원효 … 승과 속 경계 조차 뛰어넘어 한마음 사상 강조하며 백성 아울러
의상 … 승려로서의 본분에 충실하며 불교적 평등사회 건설 꿈꿔

현재 전해지는 저술은 20여 권 남짓 된다. 그중에서도 현존하는 〈대승기신론소〉와 〈금강삼매경론〉을 비롯하여 많은 책들이 중국이나 일본으로 전해져서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지금은 일부만 남은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은 인도에까지 전해져서 범어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유학도 못한 원효의 저술이 되레 동아시아 불교계에서 주목받게 된 힘은 무엇이었을까?

원효 사상의 핵심은 '한마음(一心)'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한마음은 우주만물의 궁극적 근원이었다. 그는 저술 도처에서 한마음의 구조와 작용을 해명하고자 했고,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불교쟁론들을 화쟁(和諍)시키고자 했다. 한마음은 단순히 추상적인 관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내부에 실재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우리들 모두가 그곳으로 돌아갈 것을 외쳤다. 그리고 자신이 솔선하여 실행에 옮겼다. 어찌 보면 그의 파격적인 행위는 신라인들을 한마음으로 되돌리려는 거룩한 방편이었는지도 모른다.

의상, 출가자 본연의 길

의상은 625년(진평왕 47) 최고 진골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출가해 승려가 됐다. 그리고 한동안 8년 연상의 원효와 동문수학했고, 드디어 의기가 투합해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다. 그 역시 원효와 똑같이 해골물을 마셨건만, 그는 10년을 기다려 중국으로 건너갔다. 이 점 원효와 다분히 비교된다.

의상이 원효와 다른 기질의 소유자임을 보여주는 예화(例話)가 있다. 의상이 중국에 도착했을 때 머무른 신도의 집에 선묘(善妙)라는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녀는 의상의 풍모와 인품에 반해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됐다. 그러나 의상은 세속적인 구애를 뿌리치고 장안(長安)으로 가버렸다. 10년 유학생활 동안 선묘는 오로지 의상을 기다리며 그의 승복을 만들었다. 그런데 의상은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선묘에게 한마디 기별도 없이 배를 타고 떠나버렸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선묘가 포구로 달려갔으나, 배는 이미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다. 이에 선묘는 의상을 보호하는 용이 될 것을 다짐하며 바다에 투신해다. 그 후 의상이 귀국해 영주(榮州)에 절을 짓고자 했으나, 이를 방해하는 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때 한 길이나 되는 커다란 바위가 공중으로 떠오르자, 이를 본 훼방꾼들이 놀라서 도망쳤다. 그래서 절 공사가 끝난 후 절 이름을 부석사(浮石寺)라고 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선묘룡이었다고 한다. 이야말로 세속적인 사랑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킨 한 편의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원효와 요석공주의 사랑에 비교된다.

의상의 활동 중심지는 영주 부석사였다. 번잡한 경주의 왕성에서 멀리 떨어진 궁벽한 지역이었고, 그만큼 국가 권력이나 왕실의 간섭을 덜 받을 수 있는 장소였다. 이런 곳에서 그는 나름대로의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다.

부석사가 창건되고 나서 문무왕은 의상에게 토지와 노비를 제공하겠다는 호의를 보였다. 676년 부석사 창건 직후에 문무왕이 의상을 흠모해 토지와 노비를 시주하겠다는 호의를 보였을 때, 그는 이런 말로 정중히 사양했다고 한다.

의상은 지위와 신분이라는 세속적인 위계질서를 벗어나 불법(佛法) 앞에서 만인의 평등을 천명했다. 삼국통일의 완수로 권위가 높아진 문무왕의 제의를 거부한 것도 그렇거니와, 거부의 이유로 든 평등사상이 골품제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볼 때, 그의 발언은 신라 사회에 매우 신선한 충격을 던졌을 것이다.

물론 그의 평등은 교단 내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귀족의 가노 출신인 지통(智通)이라든가 빈민 출신의 진정(眞定)이 의상문하에 출가하여, 이들이 의상의 10대 제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그의 교단 내에서 만큼은 계급평등이 구현되었음을 증명한다. 동시에 교단의 물적 토대의 면에 있어서도 탁발 걸식(乞食)에 의존한 것은, 그가 지역민과의 일상적 접촉을 중시했음을 보여 준다. 이는 방대한 사원소유 토지의 경작이나 귀족층의 시주에 의존한 경주불교계와는 분명 다른 점이다.

의상의 불교적 평등 이념이 교단의 테두리를 뛰어넘어, 골품제적 세속사회에 대하여 과연 설득력을 지닐 수 있었는가. 〈삼국유사〉에 의하면, 문무왕은 경주에 왕성(王城)을 높여 삼국통일전쟁과 나당전쟁 기간 동안 침략에 대비하며 왕실 권위를 높이기 위해 토목공사를 일으키고 있었다. 문무왕은 의상에게 자문을 구하자, 의상은 편지로 이렇게 대답했다.

"왕의 정교(政敎)가 밝으면 풀이나 흙더미로 경계를 삼더라도 백성이 감히 넘으려 하지 않아서, 재앙을 면하여 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교가 밝지 못하면 뭇사람만 수고롭게 할 뿐이니, 장성을 쌓더라도 재앙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민심은 화려한 궁궐이나 드높은 성곽이 아니라, '정교'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교란 '정도(正道)에 의한 교화'를 의미한다. '정도에 의한 교화'야말로 모든 불교도들의 오랜 바램이었다. 특히 의상이 일생에 걸쳐 중시한 〈화엄경〉에서는, 보살이 국왕이 된다면 정도로써 백성을 다스려 나라가 태평해질 것이라는 이른바 '보살위왕설(菩薩爲王說)'을 주장하고 있다. 의상은 이러한 〈화엄경〉의 국왕관에 근거하여 문무왕의 자문에 응하였던 것이다. 문무왕이 토목공사를 중단하였음은 물론이다.

이와 같이 의상은 기왕의 사회질서나 국가체제를 그대로 추인하지 않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말하자면 그는 통일신라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불교적 평등사회의 건설에서 찾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교단 내에서 계급평등을 구현했으며, 세속권력에 대하여도 민을 위한 정치를 촉구했던 것이다. 이 점이야말로 전시기 진골귀족 중심의 불교와 분명히 다른 모습이다. 당시 중대 왕실이 실시한 일련의 소농민안정책이 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상에서 개관했듯이, 같은 시대를 살아간 원효와 의상은 여러모로 대비된다.

출신성분, 중국 유학의 유무, 주요 활동 무대, 국왕과의 관계, 불교 사상, 심지어 동일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나타나는 기질 등등. 원효가 대승불교사상을 두루 섭렵하여 화쟁사상을 정립하였다면, 의상은 화엄학이라는 특정 유파의 철학에 전념하여 한국 화엄종의 개조가 되었다. 그러나 무어라 해도 가장 커다란 차이는 의상이 승려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고자 한 반면, 원효는 승려와 속인의 경계조차 뛰어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끝까지 서로를 존중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불교적 이상이라는 동일한 진리를 추구하는 동반자였기 때문이다.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 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 육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병·의원 진흥회 회장 / KBS / MBC출연,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 **순환기성 질환** 임상 교육시간 : 5 ~ 10회 환영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각국 불교가 지닌 특수성을 조명

한국불교硏 〈불교연구〉 40집, '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

세계 각국 불교의 발전과정을 짚고 그 속에서 공통적인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찰한 논문집이 눈길을 끈다. 한국불교연구원(원장 리영자)은 최근 발간한 〈불교연구〉 40집에서 '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주제로 한 특집논문을 수록했다.

논문집에서는 △조준호 한국외대 연구원이 '인도불교' △황순일 동국대 교수가 '남방불교' △정성준 동국대 강사가 '티벳불교'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한국불교'에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각각 발표했다.

논쟁으로 합리성 구축해 각국 진출

조준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원은 인도불교사에서 부파불교로 대변되는 치열한 논쟁과정의 결과 불교가 합리성을 지니게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각지에서 주요 종교로 자리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원은 "인도에서 불교가 흥한 이후 불교는 아시아 각지로 전해져 지역적, 또는 문화적 특성에 따라 실로 다양한 전개를 보여주지만 그 출발점은 합리성과 타당성"이라며 "특히 인도불교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초국가적 종교로 발전한데에는 왕권으로부터 간섭과 통제가 배제된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불교에서는 정교분리가 2600년 전 성취됐다. 또 현대의 차별금지와 생명존중 사상 등이 이미 그 안에 있다"고 말했다.

수계전통으로 독자성 유지

황순일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는 남방불교 분야에서는 수계전통을 통해 각국 불교가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단일성을 띄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미얀마 담마체띠왕이 1400년대 불교교단을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리랑카에서 수계전통을 도입했고, 남방테라와다 불교계에 큰영향을 미쳤다"며 "미얀마의 경우 깔야니시마라는 수계전통으로 단일성과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또 "태국의 경우 깔야니시마가 철저한 계행을 강조하는 탐마윳의 성립을 이끌었다"며 "동남아의 경우 몬, 샨, 아라칸 등 다양한 민족들이 수계전통을 통해 불교의 단일성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김상영 교수


황순일 교수


조준호 연구원

기존 토속신앙과 습합하며 발전

정성준 동국대 박사는 티벳불교는 토속종교인 뵌교의 제식과 독특한 정치활동인 '전생활불'과 불교가 습합하며 각종 제식이 발전했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티벳불교는 뵌교나 활불제도 등을 통해 종파불교이면서도 간결하고 실용적인 불교의 가르침이 특징"이라며 "티벳불교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 티벳불교가 지엽적 종교가 아니며 인도의 나란대 대학과 같이 당대 불교와 민족신앙을 모두 아우르는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불교 연구, '회통'에 치우치지 말아야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는 한국불교는 회통불교이면서도 종파불교의 전통과 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국불교는 중국 및 일본불교와 달리 종파성이 없으며, 있어도 옅다는 학계 주장과 달리 고려불교사를 보면 전형적인 종파불교 시대를 거쳤다"며 "회통 이면에 각 종파가 치열하게 경쟁을 통해 사상을 발전시켜온 부분을 조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조선시대 '무종파'와 '의승군 참전' 등 한국불교 특수성은 권력에 의해 강제적 단절을 경험했던 관점에서 접근해야 마땅하다"며 "회통불교를 논하고, 호국불교를 논하는 것은 이전시대 한국불교가 지닌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고, 조선왕조에서 자행된 불교전통의 단절을 미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보현행원 신앙화로 비로자나불 조성"

곽승훈 목원대 교수, 신라사학회 학술발표회서 주장

아미타불을 모시는 정토신앙이 널리 퍼진 신라시대가 9세기에 들어서면 화엄경의 교주인 비로자나불이 대거 조성된다. 비로자나불이 화엄종 사찰을 넘어 법상종과 선종 사찰에 까지 널리 봉안된 이유는 무엇일까?

신라사학회(학회장 김창겸)가 4월 19일 서강대에서 개최한 제135회 학술발표회에서는 신라 하대 비로자나불의 대량 조성에 대한 연구가 공개됐다.

곽승훈 목원대 교수는 경덕왕 당시 화엄사에서 조성된 백지묵서 화엄경을 통해 "보현행원을 닦아 속히 성불하리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는 비로자나불 조성이 보현행원사상의 유행의 결과임을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신라 중대 말 보현행원의 유행은 염불과 보시 공덕을 강조한 타력신앙에서 벗어나 자력신앙이 확산되는 증거"라며 "또 전쟁과 혼란으로 민생이 피폐했던 사회가 안정화 되고 발전하며 현세적인 성격을 띄는 현세신앙으로서 현세성불 사상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경덕왕 대 봉안된 불국사 비로자나불상.

불교사회문화硏 5월 16일 콜로키움 개최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윤영해)은 5월 16일 오후 1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원효관 4층 글로벌에이스홀에서 '초기불교의 근본사상과 대승불교로의 흐름'을 주제로 동국불교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이날 초기불전연구원 각묵 스님이 '초기불교의 근본사상과 대승불교로의 흐름'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자유토론에서는 황경환 초기불전연구소 연구원, 임승택 경북대 교수, 안양규 동국대 교수, 김영진 동국대 교수, 석길암 금강대 HK 연구교수, 김준호 부산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노덕현 기자

ICOMOS,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권고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4월 25일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남한산성을 '등재 권고'로 평가해 유네스코(UNESCO)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남한산성에는 수어장대와 숭렬전, 청량당, 현절사, 침괘정, 연무관, 망월사지, 개원사지, 지수당, 장경사 같은 기념물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특히 축성과정에서 의승군이 대거 동원되고 이후 의승군 주둔을 위한 9개 사찰이 창건되는 등 불교와도 관계가 깊은 곳이다. 현재 불교계는 광주 장경사 등 남한산성내 불교문화유적 복원 불사를 진행 중에 있다.

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남한산성은 △동아시아 도시계획과 축성술이 상호 교류한 증거 △지형을 이용한 축성술과 방어전술의 시대별 층위가 결집된 초대형 포곡식(包谷式) 산성인 점이 인정받았다.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는 '제3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보고와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노덕현 기자

제2회 다솔사 선차 학술발표회

사천 다솔사(주지 동초)는 5월 10일 다솔사 경내에서 다솔사 선차 축제 개회식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선차 정립의 필요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의정 스님의 '청규로 살펴본 차의 세계' 정순일 교수의 '다선일미'가 발표되며 여연 스님의 '오늘날 선차의 경향과 방향' 총평 등도 진행된다.

다솔사 주지 동초 스님은 "오늘날 선차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지향점은 어디인지를 찾기 위해 이번 선차 축제를 열게 됐다"며 "선차 만의 야단법석으로 일상의 차생활에서 의식을 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자아 성찰 표현한 추사 그림은 불교미학의 산물"

백원기 동방대 교수, 불교문예연구소 세미나서 주장

"추사의 세한도에는 자신을 내려놓은 비움과 삶에 대한 성찰을 의미하는 선적 사유가 내밀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는 격식을 떠나 궁극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선화와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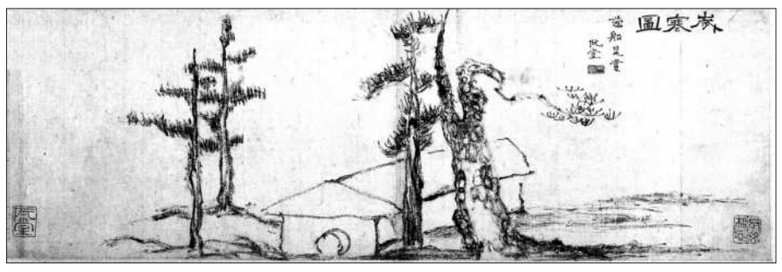
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가 4월 23일 개최한 제3회 학술대회 '우리 그림과 불교미학의 만남'에서 백원기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추사의 세한도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추사 김정희、단원 김홍도 등 조선시대 서화가들의 작품 속에서 불교적 감각을 살펴보는 자리였다.

세한도는 1844년 추사가 제주도 유배생활 동안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을 대해준 제자 우선 이상적의 의리를 소나무와 잣나무에 비유해 그린 그림으로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절개를 담은 명작으로 꼽힌다.

백 교수는 "세한도에는 극한의 고독과 외로운 내면이 유한한 공간에서 무한한 서정을 담겨 있다"며 "나무를 그린 간결하고 투박한 선의 짙고 옅은 농담과 그 변주는 유배생활의 무한한 심경을 표현한다"고 설명한다.

백 교수는 또 "세한도에는 세속의 명리를 멀리하려는 정신이 뚜렷히 드러난다. 비움에 대한 깊은 사색의 모습도 담겨 있다"며 "아주 적은 언어만으로 철저한 고독과 자아 찾기를 표현한 세한도는 모든 형식 격식을 벗어나 궁극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선화의 모습과도 닮아있다"고 말했다.


추사의 세한도. 백원기 교수는 세한도에서 꾸밈 없는 여백과 선은 선화에서 보여지는 형식과 격식을 벗어난 깨달음의 추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명리 멀리하는 정신 뚜렷
비움과 내려 놓음 담아
유불선 일치사상, 선화의 일종

백 교수는 세한도의 여백이 추사가 유배생활 얻은 불교적 소양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백 교수는 "세한도의 여백은 추사 자신의 비움과 내려놓음의 삶에 대한 깨달음이 담겨 있는 것"이라며 "자아의 성찰과 깨달음에서 오는 유불선 일치, 서화일치, 불이선란, 화선일치 등을 기조로 모든 것을 하나로 포월하고 회통시키는 추사의 원융의 사유가 자리한다"고 평가했다.

백 교수는 또 "추사의 그림의 미학은 무한한 공간을 고졸하고도 단순한 하나의 그림으로 응축시키는 집중과 통합으로 나타난다. 이는 고독을 성찰로, 혼란을 상생과 불이사상으로 승화시킨 감동의 핵심"이라며 "꾸밈이 없고 담박한 선적 사상이 시、서、화에 녹아 있다는 점은 그의 서화세계가 선과 예술이 다르지 않은 경지에 이르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조강연 '한국불교미술의 특징과 그 미의식'을 발표한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는 "불교미술은 불교의식의 소산, 불교의식은 불교적 감정의 발현이기에 불교적 감정을 탐구하는데서 불교미술 연구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오늘날 불교미술 연구가 성행하고 있지만 그 방법론은 양식주의가 중심"이라며 "불교적 감정에 대한 토대가 있어야 불교미술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세미나에는 이외에도 지미령 박사가 '고려 수월관음도에 나타난 불교적 미학의 세계'를, 조정육 미술평론가가 '단원 김홍도의 화폭에 나타난 불교적 미학의 세계'를, 진철문 동국대 교수가 '장욱진의 화폭에 나타난 불교적 미학의 세계'를 각각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한 권으로 담아낸 성전!

장종천 편역 | 신국판 양장 | 926쪽 | 33,000원

붓다의 본생과 탄생, 성장과 출가, 수행과 전도, 열반에 이르기까지,
읽는 이의 가슴을 울리는 붓다의 감동적인 생애가 펼쳐진다.

방대한 아함의 불음佛音을 한 권으로 쉽게 풀어 엮은 책으로, 붓다의 일상적인
삶과 수행생활, 45년 간 펼친 방대한 가르침의 에센스가 오롯이 담겨 있다.

목숨을 건 수행과 통찰,
중생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자비심,
제자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상한 가르침,
한 사람에게라도 더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쉬임없는 전법활동……



아들아, 불교란 이런 거란다!

아들에게 남기는
어머니의 마음공부



붓다의 가르침,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는
한 어머니의 삶과 불교 이야기!

홀로, 게다가 병든 몸을 이끌고 이국 땅(태국과 프랑스)에서 아들을 키워낸 한 어머니의 평탄치 않은 삶의 여정과 그 속에서 만난 불교 이야기!
그녀는 어떻게 고해의 바다를 헤쳐 나올 수 있었는가?
이 책은 붓다의 가르침에서 삶의 길을 찾은 한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남기는 정신적 유산으로,
그 간절함과 진정성이 가슴에 와닿는다.

최혜자 지음 | 신국판 | 388쪽 | 16,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만해 스님 탄생지 홍성서도 기념사업

홍성문화원 '만해 스님 기념사업회' 준비위 구성

홍성문화원, 22일 준비위원회 발족
학술대회 · 학보 발간 · 장학사업 진행
망우리 만해 묘소 이전도 과제 제시



만해 스님의 탄생지인 충남 홍성에서 만해 스님의 사상을 계승 ·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회 설립이 추진된다. 불교계의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자승)에 이은 지역사회의 만해 스님 선양사업 동참이다.

홍성문화원(원장 유환동)은 4월 22일 '만해 한용운 선사 기념사업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설립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만해기념사업회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나라사랑정신과 문학세계를 선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홍성문화원은 이를 위해 지역 내 각급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 불교계 인사, 정계와 학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자들로 범국민적인 조직을 구축하기로 했다. 1차 준비위원회는 지역내 인사를 포함해 총 12명의 준비위원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기념회 사업으로는 △만해 학술발표회의 매년 개최, △만해학보 발간, △생가지에 건립된 만해체험관 활성화 사업, △지역학생을 대상으로한 장학사업 △만해 한용운 선사 추모재 개최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는 불교와 문학, 독립 3개분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또 향후 장기적으로 서울 망우리 공동묘지에 모셔진 만해 한용운 선사 묘소를 고향인 홍성 결성면 성곡리 생가지로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준비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회 2~3차례 확대회의를 거쳐 정관을 마련하고 회장단과 임원진을 선출하기로 했으며 5월 말까지 만해기념사업회 창립총회를 준비하기로 했다.

한편, 만해 스님의 생가가 있는 홍성군은 만해문학체험관을 건립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연 5회에 걸쳐 만해 체험관과 생가 일원에서 생가 탐방 후 다도와 참선 등 불교 전통을 체험하는 '만해체험관 구석구석– 불교식 전통문화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만해 시낭송회 등 문학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며 만해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심우장 · 백담사 · 만해마들 등을 돌아보는 '만해문학기행' 도 연3회 실시하고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에서 만해 한용운 스님에 대한 선양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간혹 만해 스님이 홍성 출신인 것을 모르는 불자들도 있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양사업을 추진해 만해 스님을 배출한 고장으로 그 위상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홍성에 자리한 만해 스님의 생가 모습. 기념사업회는 묘소도 생가 인근으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익산 정각사, 33선지식 초청법회



농사를 지으며 수행에 매진하며 선농일치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익산 정각사(주지 일행)가 4월 29일 前김용사 주지 자광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지난 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33선지식 초청법회의 3번째 법회인 이날 법회에는 익산 전주의 불자 100여명이 참석해 자광스님의 법문을 경청했다.

자광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며 "부처님께 귀의하면 복덕이 절로 증장돼 하는일이 절로 풀려 행복해진다"고 설했다. 스님은 이어 "세상살이, 인생살이에 무심할 줄 알면 지혜가 나날이 증장된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이산 탑사, 자비의 쌀 1,000kg 전달



신비의 영산으로 알려진 진안 마이산의 탑사(주지 진성)가 4월 29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 1,000kg을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전달된 쌀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진안군내 11개읍면 34가구에 전달된다. 탑사는 올해부터 매년 봄 가을 2차례에 걸쳐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의 쌀을 기증하기로 약정했다.

진성 스님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쌀을 전달하게 됐다"며 "힘든 시기 어려운 이웃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소외 이웃 위한 518 희망의 등 밝혀요

광주 전남 NGO, 4월 30일 길거리 연등 점등 행사



광주전남지역 불교NGO단체들이 5 · 18민주화운동을 추모하고, 세월호의 아픔을 같이 하는 518개의 희망의 등불을 밝혔다. 4월 30일 광주 금남로에서 원각사에 이르는 구간에는 '오월은 생명꽃, 오월은 평화꽃' , '세월호 희생자 아픔에 함께합니다' , '생명과 평화의 길로 나아갑니다' 등 다양한 문구가 세긴 연등이 걸려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518개 희망의 등불은 광주전남지역 불교NGO 9개 단체가 연합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길거리 연등을 설치한 것으로, 광주불교연합회의 후원을 받아 흰색 등에 연꽃문양을 넣은 등을 걸고 점등식 행사를 가졌다.

점등식에는 광주불교교육원 이사장 행법 스님, 광주불교연합회 총무부장 효진 스님,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광주도량 집행위원장 승묵 스님, 해뜨는복지센터 대표 정선 스님, 어린이청소년공동체 나무숲 대표 지장 스님을 비롯해 각 단체 실무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법요식 및 점등식, 시가행진을 진행했다.

행법 스님은 인사말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이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보템이 되는 마음을 갖어야 한다"며 "등을 키며 이웃을 위한 마음을 내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전남불교NGO연대는 5 · 18을 맞아 5 · 18민중항쟁 추모법회와 5 · 8 희망의등 밝히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정혜사, 미얀마 아이들 위해 학교건립

(사)지구촌공생회에 학교건립기금 1억 5천만 원 후원 약정



(사)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님)는 지난 4월 26일 금산사 만월당에서 대한불교보문종 전주 정혜사와 미얀마 사원학교 건립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을 비롯해 전주 정혜사 주지 지섭 스님, 도감 지순 스님, 총무 지용 스님, 지구촌공생회 사무처장 덕림 스님 등이 참석했다.

불교국가인 미얀마는 공립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다. 많은 불교사원들이 학비가 없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학교가 사원 내부에 있는 곳이 많아 잦은 행사와 장례의식 등으로 수업이 중단되고, 불결하고 낡은 재래식 건물들이 많아 학습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 많다.

정혜사 주지 지섭 스님은 "학비가 없어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정혜사 스님들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마음을 모아 기금을 마련했으며, 이는 그동안 정혜사의 오늘을 있게 한 어른스님들의 유지이기도 하다"며, "아이들이 배움을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지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혜사에서는 사원학교 건립 기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후원하기로 약정하고, 부지선정을 위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양곤시 외곽지역에 위치한 더포아 사원학교의 신축 기공식을 올해 안에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미쓰A 수지, 생명나눔 기금 천만원 기부



미쓰A 수지의 부모와 현지 스님이 조선대병원에서 생명나눔 기금을 전달하는 모습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환우가족들을 위한 치료비가 전달돼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 원효사 주지)는 4월 30일 전남대화순병원과 조선대병원에 각 500만을 전달했다. 이날 성금은 가수 미쓰에이 수지 양을 대신해 수지 양의 부모님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아암환아들을 위한 기금으로 써달라며 생명나눔을 통해 기탁한 것. 전남대화순병원(병원장 조용범)과 조선대병원(병원장 문경래)은 이날 전달받은 성금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소아암환아들의 치료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대 병원 불자회, 만성질환 어린이 돕기



국립 전북대 불자회(회장 이준모, 정형외과 교수)와 전주 포교사회(회장 박헌용)는 4월 29일 어린이 병동 한누리학교(학교장 황평안 교수)에서 휠체어와 치료비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북대학교와 병원직원, 봉사자들로 구성된 전북대학교 불자회는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으며 공부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치료를 후원하기위해 휠체어 3대(전동1대, 일반2대) 와 장기입원치료 중인 어린이의 치료비 일부, 한누리 학교 지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현재 전북대에는 만성질환 초등학생 12명 중학생 4명이 치료받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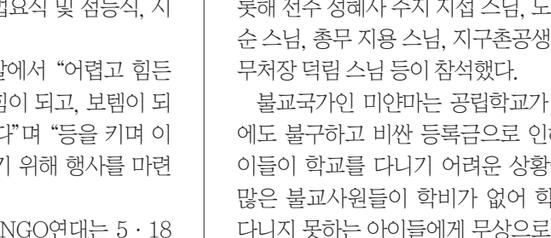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친구들과 참선하며 인성도 길러요"

울산 황룡사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인기



울산 황룡사는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로 주목받고 있다. 학생들의 참선 장면.

4월 27일 울산 황룡사 법회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두 눈을 감고 차분하게 참선에 들어갔다.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에 따라 참선의 자세를 가다듬는다. 그리고는 제각각 그 주에 있었던 자신의 감정변화를 들여다본다. 또한, 집중력이 쉽게 흐려지는 아이들은 황룡사의 '참선'을 통해 집중력과 인내심을 향상시키고 있다.

울산 황룡사가 현시대에 맞는 '교육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울산 학산동에 있는 황룡사는 만 9세부터 만13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와 만14세부터 만25세까지를 위한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두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어린이 13명과 청소년 25명은 자기개발과 신체단련, 봉사활동과 탐험활동 총 4가지 활동영역에 참여하고 있는데 각자 개인의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과정을 보고서로 제출할 경우 학교에서 공인하는 봉사점수를 얻을 수 있다.

황룡사의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는 2010년부터 시작했다. 주지 황산 스님은 현시대의 청소년들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과 학생들에게는 대학 진학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포교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후 꾸준한 운영으로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수상자 금장 1명, 은장 12명, 동장 32명을 배출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모범적인 사찰로 손꼽힌다.

학생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일요일 대부분의 시간을 황

영화관람 등 프로그램 다채
매주 일요일 참선 호응 커

룡사에서 보낸다. 낮에는 신체활동인 '참선' '튼튼체조' '멘토와 멘티의 시간' 오후에는 황산스님이 진행하는 '다큐멘터리 또는 영화보고 토론하기' 등의 교육들이 이루어진다.

체계적인 교육에 참가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도움으로 눈높이에 맞는 '아트풍선 만들기' 등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또한 단순한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처 도서관의 교실을 꾸며주는 등의 봉사활동으로 연결해주고 있어 '자발성'과 '자타이행'을 자연스럽게 길러준다.

가족이 최소화되고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인 현시대에 외롭게 크지 않고 따뜻함 속에 성장하는 아이들은 바른 인성함양은 물론 진로 결정에도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황룡사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학성여자고등학교 최송미(19) 학생은 "무엇을 하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만 하다가 이곳에서 동생들을 보살피면서 진지하게 사회복지 학과를 고려하게 됐다. 일요일에 또래 아이들이 열심히 학업을 하고 있다면, 나는 꿈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매주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현미(35) 선생님은 "아이들이 황룡사를 방문하면서 부처님, 스님 등을 뵙고 예의범절을 배우고 있다. 학업을 등한시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매주 일요일을 꾸준히 방문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자신의 공부 일정과 여가시간을 조절한다. 따라서 자연히 절제력과 독립심을 키울 수 있다"며 황룡사 교육 포교의 장점을 밝혔다. (052) 211-1949

김나영 객원기자

"무명에서 벗어나 밝은 마음으로"

부산 범어사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식



범어사 사부대중의 봉축 점등식.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수불)가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식을 4월 29일 경내 대웅전 앞에서 봉행했다.

총 1만여 개의 등불이 밝혀진 범어사 점등식에는 주지 수불 스님, 이윤희 범어사 신도회장(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신도회장), 한복순 다도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수불 스님은 "오늘 어둠과 무명에서 벗어나 마음에 밝은 불을 켤 수 있도록 큰 인연을 맺어주신 석가모니 부처님 오심을 다함께 봉축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적인 참사로 인해 온 국민이 애통해 하고있다. 희생자 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부대중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 최후의 일인까지 무사생환 할 수 있도록 발원하자"며 애도의 뜻을 밝혔다.

한복순 범어사 다도회장도 발원문에서 "세월호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간절한 마음으로 발원한다"고 추모의 뜻을 전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원효종 제 13대 종정 추대법회

원효보살 추모대재도



원효종 13대 종정 추대 법회식.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은 원효보살 1328주기 추모대재 및 제13대 종정 설재 대종사 추대식 대법회를 4월 22일 경주 콩코드 호텔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원로원장 창해 스님, 종회의장 태일 스님 ,총무원장 우석 스님 외 종단 종도스님 60여명과 사부대중 7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대재에 앞서 대한불교원효종 제13대 종정으로 설재 정광 대종사가 추대되어, 총무원장스님으로부터 추대장 전달과 함께 불자, 주장자 전달이 있었다.

종정 정광 대종사는 1939년 경남 창원에서 출생하여 1974년 수득사 월학 스님으로부터 득도하여 1980년 수족계 수지 후 강원 사집과를 수학했다. 법화종 종정 신혜 스님,범어사 청우 스님의 인정과 함께 원효종 경남 종무원장, 중앙종회 부원장을 역임한 후 현재 경남 창원 불정사에 주석하고 있다.

행사는 원로원장 창해 스님과 총무 부원장 보원 스님의 추모사에 이어, 원해 스님의 발원문, 권공염불로 법주 · 바라 · 작법으로 진행되었다. 행사는 총무원장 우석 스님이 임명장, 감사패, 위촉패 수여한 뒤 종도대회와 종헌종법 배포,종도 단합 결의로 마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동대사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식

세월호 희생자 추모



동대사에서 열린 봉축 점등식

천태종 대구 동대사(주지 김도산)는 4월 27일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식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 대법회를 관음전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엄숙하게 치러졌으며 사부대중은 점등식에서 두손모아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빌었다.

주정산 원로의원 스님은 "부처님이 이땅에 오심의 참뜻은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문을 열어 보여주는 것으로 실상을 알아 깨닫게 하는 것이다.기성인들이 참회하여 무명을 밝혀 희망의 싹을 키워가기 위한 염원으로 불을 밝힌다"고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한불교원조계종 총무원 회문사 개소

삼존 부처님 점안



대한불교원조계종 총무원 개소식

대한불교원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총무원장 주석 사찰인 부산 부곡동 회문사(주지 법인) 개소식이 4월 27일 열렸다. 이 자리에는 종도 스님들과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 혜우도암 총무원장 스님을 증명법사로 회문사 부처님 삼존불 점안 법회가 열렸다.

법일 주지 스님은 "전국 각 처에서 어려운 걸음하신 종도 도반 스님들께 감사드리고 여법하고 장엄한 개원불사에 동참한 생활불교 신도들에게 공덕을 치하하고 기쁘고 고맙다"고 전했다. 증명법사 도암 총무원장 스님은 "부처님 점안은 내 마음이 만물만생의 은혜를 생각하고 지혜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법문했다.

대한불교 원조계종은 1989년 조계사에서 발기인 대회로 창종되어 2012년 9월 대구 동구 율하동에서 이전 개소 12월 혜우 도암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추대되어 2013년 1월 종교법인 세계불교승가총연합회 예하단체 등록한 후 2014년 4월27일 대한불교원조계종총본산 총무원 회문사 개원 법회을 봉행하게 되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기업인 발심… 경제 활성화 다짐



삼광사는 4월 29일 법희원에서 기업인 포럼 발대식을 열었다.

삼광사 기업인포럼 발대식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가 '삼광사 기업인포럼 발대식'을 4월 29일 경내법희원에서 열었다.

'삼광사 기업인포럼'은 부산의 기업인 6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불자간의 화합 도모 뿐만 아니라 부산경제 활성화 및 협력 상생 방안 토론 등 다양한 학술세미나를 분기별로 진행한다.

최주덕 기업인포럼 회장(삼광사 신도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무원 스님을 법문법사로 모시고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 도반으로서의 인연은 우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연으로 맺어진 것이라 믿는다. 또한, 기업인이자 삼광사 신도로서 우리 모두 발심해서 나눔과 배려에 앞장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주지 무원 스님은 "사찰과 기업을 운영하는 것 모두가 경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경영이다. 마음이 중심이 되면 자연히 부처가 따른다. 경영하시는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인사부터 시스템까지 신경 쓴다면, 투명한 사회가 되고 나아가 투명한 나라가 될 것이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원스님은 "삼광사에 기업인 포럼을 마련한 것은 삼광사가 부산과 나라의 발전에 중심이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는 삼광사 주지 무원스님, 우보현 (주)우성통신 대표이사, 허영배 한국바이톤공업 대표이사 등 회원 40여명이 참석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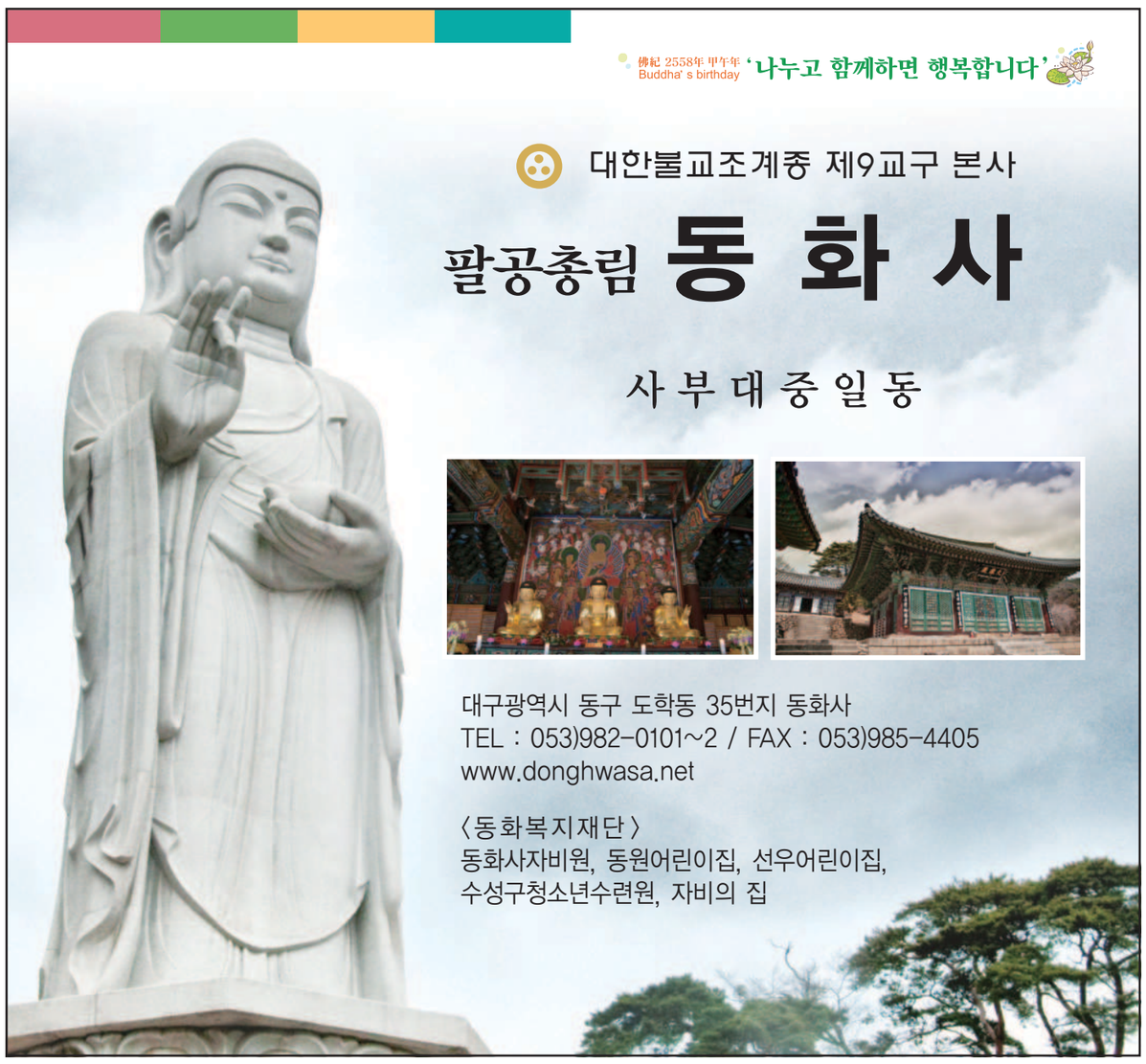
부산 내원정사 동자승 삭발수계식

부산 내원정사(주지 정련)는 4월 29일 '동자승 8일출가'를 진행했다. 부산 내원정사 원아들로 구성된 어린이 15명은 이날 '삭발수계식'을 받고 단기 출가 불교문화 및 승가 생활을 체험하게 된다.

삭발식에서는 주지 정련 스님을 비롯한 내원정사 소임스님들이 직접 원아들의 머리를 깎아주었으며, 승가복 착용과 연비의식을 통해 동자승으로 거듭나는 수계식을 가졌다. 계첩 수여식에는 주지 정련 스님이 직접 동자승들의 법명의 뜻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의식에 특별함을 더했다.

주지 정련 스님은 "오늘 이렇게 동자승들이 계를 받은 것은 모두 과거로부터 복을 지었기 때문이다. 이제 진정한 스님으로 태어났으니 의젓하게 사찰 생활을 잘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봄 내음 머금은 진분홍 철쭉의 향연

철쭉이 아름다운 사찰 - ④ 전주 감천사


진분홍빛 비단이불을 깔아놓은 듯한 철쭉이 극락보전 주위를 에워싸며 청정도량을 천연색으로 수놓고 있다.

붉은 바위 가에
잡고 온 암소를 놓게 하시고
저를 아니 부끄러워하신다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향가인 〈헌화가〉에 나오는 이야기다. 신라 성덕왕 재위 무렵 강릉태수로 부임해 가는 순정공이 부인 수로가 천길 절벽에 피어 있는 아름다운 꽃에 반해 누가 꽃을 꺾어 줄 사람이 있는가 물어본다. 모두 망설이자 마침 지나가던 견우 노인이 이 노래를 부르며 수로부인의 허락을 기다려 꽃을 꺾어 따온다. 이 꽃이 바로 철쭉이다.

이 노래에는 절세가인인 수로가 초라한 늙은이에게서 꽃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까봐 걱정하는 노인의 마음이 담겨 있다. 전국의 산에서 돌아가며 철쭉 잔치가 펼쳐진다.

5월산의 주인공은 단연코 철쭉이다. 봄의 여왕 벚꽃이 꽃비 흩날리며 퇴장한 늦은 봄. 벚꽃처럼 잎 버리고 홀로피지 않고 장미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푸른 잎 사이 수줍게 피어나 붉은 자태 뽐내는 철쭉의 계절이 다가온다.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는 이즈음의 주인공은 철쭉이 제격이다. 붉은 꽃잎이 눈부신 철쭉은 늦은 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의 길목에 절정을 이룬다. 예전에는 철쭉은 산에나 가야 볼 수 있었지만 요즘은 곳곳에 쉽게 붉은 빛을 토해내는 철쭉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철쭉은 군락을 이루어야 더욱 빛을 발한다. 전주 감천사의 철쭉이 그러하다.

감천사는 야트막한 언덕길을 올라서면 붉은 철쭉을 만날 수 있다. 주차장 주변부터 주법당인 극락보전을 둘러싸고 온통 철쭉 잔치다. 족히 잡아 수백그루는 되어 보인다. 그러고 보니 극락보전 단청도 철쭉을 닮아 보인다.

전주의 팔복동 공단을 수호하는 호법신장처럼 자리잡은 감천사는 100여년 짧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해인사 2대강주를 지내신 명봉 스님이 창건했다. 창건 당시는 명봉 스님이 주석하면서 자신의 공부를 위해 지은 작은 인법당이었다. 명봉 스님은 우리나라 근대 강맥의 두 산맥인 진응 스님과 한영 스님 중 한영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전수 받은 대강백이었다.

청담 스님이 해인사 주지로 부임하면서 명봉 스님을 해인사 강주로 모시기 위해 세 번이나 찾아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화다. 중앙포교사를 지내기도 했으며 1966년 역경위원으로 당시 종정 효봉선사로부터 위촉받기도 했다. 1973년 선학원에 등록하라는 스님의 말씀에 따라 선학원 사찰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선학원에 등록할 때의 이름인 보승선원이라는 명칭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현주지 훈재 스님과 남원 승련사 경훤 스님에 따르면 동학사서 공부하던 중 명봉 스님이 감천사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6명의 스님이 무작정 감천사를 찾아 능엄경, 원각경, 화엄경 등의 경전을 공부했다. 강의하실 때는 경전이나 노트도 없이 어느 경전이든 줄줄 외워서 강의를 했다고 한다.

명봉 스님은 경전 공부를 하면서도 참선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라고 항상 가르쳤다. 경전을 아무리 줄줄 외워도 참선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제대로 된 강의를 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다. 물론 명봉 스님 자신도 쇠방망이로 머리를 때려가면서 참선을 했다고 한다.

명봉 스님 강의를 들으며 공부한 스님들은 절 살림이 어려워 전주 정혜사, 익산 혜봉원등 인근 사찰서

해인사 2대 강주 명봉 스님이 창건
철저한 참선 수행 가풍 이어져
법당 · 요사채 뿐인 소박한 절

김치, 쌀, 양초를 탁발해 가며 공부를 이어왔다. 스님들이 직접 탁발 하면서 공부 했다.

경훤 스님은 "그 당시는 참 어려웠지만 모두 힘든지도 모르고 공부했죠. 아마 신심이 없었으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시기였습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명봉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곳 감천사는 내가 열반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일절 시주 받지 말고 뽕나무라도 심고 그것을 거울삼아 힘들더라도 수행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라는 유시를 남겼다고 한다.

1973년 세납 88세, 법납 72세로 입적한 명봉 스님의 부도는 감천사 철쭉동산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명봉 스님의 유시를 받들어 현주지 훈재 스님은 절 앞마당에 유실수를 심고 법당주변에는 온통 철쭉나무를 심어 도량을 장엄했고 염불 소리가 1년내내 멈추지 않는 수행도량으로 키워오고 있다. 또한 절 앞마당은 전주 공단이 들어서면서 도로에 편입되는 바람에 모두 없어졌지만 지금도 명봉 스님 유시에 따라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공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감천사 자연이 주는 선물인 꽃 이외에는 내세울게 않는 소박한 절이다. 전각도 극락보전과 요사채 달랑 2채뿐으로 단촐하다. 1994년 개축한 17평 규모의 극락보전 단청도 지난해에야 불사를 마쳤다. 극락보전 내부도 아미타불, 관음보살, 지장보살 등 작은 삼존불을 모셨고 외형적인 불사보다는 스님들과 신도들의 마음불사에 전념하는 꽃처럼 단아하고 아름다운 절이다. 그래서 더욱더 정이가고 그리워진다.

전주 감천사=조동제 전북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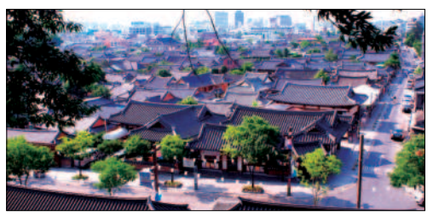

감천사는 1994년 개축한 17평 규모의 극락보전이 주전각이다.


명봉 스님 부도탑


작은 삼존불이 인상적인 극락보전 내부

여행수첩

〈주변 가볼만한 곳〉



한옥마을 /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들어와 전주성벽을 철거하고 중앙의 상권을 독점하자 한국인들이 1930년경 이에 대한 반발로 전주시 교동일대에 한옥촌을 형성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시에는 교동 한옥마을과 화산동의 양옥형식인 선교사촌, 교회, 일본식 집들이 집단 형성돼 묘한 도시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한옥마을 입구에 전동성당과 조선 태조 이성계의 영정을 모신 경기전이 마주하고 있어 한옥과 양식건축물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경기전 / 전주에 있던 어용전을 가리키는데 이는 조선 태종 10년(1410)에 완산 · 계림 · 평양에 건물을 짓고 태조의 영정을 모신 곳으로 세종 24년(1442)부터 지역마다 이름을 달리 불렀다고 한다. 선조 31년(1598) 정유재란 때 불타버린 것을 광해군 6년(1614)에 고쳐 지었다. 건물 구성은 중심 건물과 부속건물, 문으로 나뉘어 있으며 제사기능을 지진 건축물의 특성을 잘 따르고 있다. 지금 이곳에 모신 태조의 영정(초상화)은 세종 24년(1442)에 그린 것을 고종 9년(1872)에 다시 고쳐 그린 것이다.

〈맛집〉

전주는 맛의 고장이다. 비빔밥과 콩나물 국밥이 유명하다. 비빔밥으로 유명한 식당이 여러 곳 있지만 가격이 조금 비싼편이다. 최근에는 지역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로컬푸드 운동이 일어나 로컬푸드 전문 식당이 늘어나고 있다. 완주 로컬푸드(www.hilocalfood.com)사이트에 들어가면 원하는 입맛에 맞게 자세한 식당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그중 로컬푸드 농가 레스토랑 비비정(063-291-8609), 청와삼대(063-223-0990), 전주풍남정(063-285-7782), 콩나물국밥 왱이집(063-287-6980), 성미당(063-287-8800), 한국관(063-272-9229) 등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전주의 향토음식인 비빔밥과 한정식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지구촌 세계불교 최고의 지도자와 한국의 350여 종단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불교 지도자들의 법석

世界佛教 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 法王廳 中央政府 閣僚 任命式

주최 :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계속적으로 서류 접수하여 심사 후 6차 금강계단 (일시 추후결정) 지속적으로 봉행함

승가의 탐,진,치,가 넘쳐나고 오만과 무지와 분수를 모르며 먹물 옷을 입었어도 자신을 잃어버린 불쌍한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
오호라!! 이제 고통받는 사바세계를 환하게 밝히는 광명의 해가 솟아 올랐도다.

드디어 세계인의 존경의 대상인 불교 최고의 어른 한분을 법왕으로 모시고 상좌부권과 대승권 각각 승왕 두분을 모시게 되었으며 각 나라 불교대표이신 승가회 회장 큰스님들을 대승정에 모시는 준비가 크게 진행되고 있으며 20개국 종정 및 승왕들의 친필 싸인 서명을 확보한 정통 세계불교 법왕청입니다. 고승 및 각종단의 종정 및 총무원장을 모시고 각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갈래로 찢어져 있는 일부종단의 법납조차 무시한 진흑탕속의 품수체계와 품수를 내세워 후원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고 승가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자 합동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대종사, 종사, 대덕, 중덕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품수를 수여하는 의식까지 병행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모 종단의 3급고시니 4급이니 하는 철저한 단계라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화하고 걸른다는 측면에서 세계불교 지도자 합동 금강계단을 봉행하고자 하며 일체의비용이 없습니다. 이제 각 종단차원의 모든 종도들을 동참시키시어 합동 금강계단의 증명 법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세계 불교 법왕 및 승왕 추대 1080인 위원회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종단 종정 고승단, 종단 대종사 자문단 추진위원장 SANGGALAJA 대승정 목탁 합장

* 대법원에 등기된 허가번호 2013-82 . 고유번호 101-82-23205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이사장 목탁스님)이란 명칭은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단 하나밖에 없으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매인 세계불교법왕청.com입니다. 이외 사용하는 곳은 이유를 불문하고 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명칭도용 임의단체이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로 고유번호를 받았다 해도 세무관계 에서만의 명칭사용은 가능하나 대외활동에서의 명칭사용은 위법입니다.

탑의 진화

⑩ 미얀마의 불탑(3) 바간의 불탑

놀이로 쌓은 모래탑도 건탑 공덕

지난 호에 이어서 미얀마의 바간에 있는 수많은 불탑 중 건탑의 의미와 조형성이 뛰어난 몇 기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쉐산도 불탑

'황금의 부처님 머리카락' 이라는 뜻의 쉐산도(ShweSanDaw)불탑**〈사진1〉**은 바간 왕조의 초기인 아노라타 왕(Anawrahta, 1044~1077)이 조성하였다. 이 불탑은 바간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 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출과 일몰의 장관을 체험하기 위하여 참배객들이 끊이지 않는 불탑이며, 마치 불국사 삼층석탑이 우리나라에서 석탑의 조형적기준이 되었듯이 미얀마 불탑의 전형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8호의 양곤에 있는 쉐다곤 불탑에서 알아보았듯이 부처님께서는 공양 받은 두 상인에게 여덟 가락의 머리카락을 주었다. 두 상인은 자신의 고향인 양곤의 쉐다곤에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봉안하였다. 그 후에 퓨의 두타바웅 왕은 탑을 훼손하고 머리카락 4개를 꺼내어 자신의 고향인 타에키티야에 불탑을 조성하여 봉안하였다. 세월이 흘러 타에키티야가 멸망하자 바고의 왕은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꺼내어 3개는 각각의 불탑에 봉안하고 1개는 바고의 왕들이 쉽게 친견할 수 있도록 보석함에 보관하여 이후 바고 왕가의 보물로 이어갔다.

이 보물은 크메르의 침공을 막아준 아노라타 왕에게 선물로 전해져 아노라타 왕은 쉐산도 탑을 조성하고 그 머리카락을 봉안하게 되었다. 이처럼 부처님의 머리카락 한 개를 봉안하기 위하여 우여곡절을 겪는 것은 오직 불탑을 조성하고 예경하여 얻는 공덕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특히, 원시종교에서는 숭배의 대상으로 죽은 자의 유물 중에서 유골 외에 모발이나 손톱을 중요시하는 풍속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 생시에도 모발이나 손톱에는 갖가지 종교적 터부가 있고, 그것들을 잘라 내버리는 것은 종교적 의례와 연결되기도 한다. 잘린 모발이나 손톱은 그대로 버려서는 안 되고, 신묘, 묘지, 나무 아래 등에 숨겨 묻기도 하였다. 이처럼 미얀마에서도 부처님의 머리털을 봉안한 발탑(髮塔)의 탄생 배경에는 신앙적 의미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쉐산도 불탑은 4방으로 출입문이 있는 외벽이 있으며, 5층의 기단은 정사각형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체감되어있다. 기단 위에는 8각의 탑신 받침이 있으며, 원통형의 탑신 위에는 황금색의 티(hti)가 있는데, 이것은 1975년 바간의 대지진때 훼손된 것을 근래에 복원한 것이다.

2) 부파야 불탑

아예야와디(Ayeyarwady) 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부파야 불탑**〈사진2〉**은 우리나라의 석종형 불탑을 연상케 한다. 호리병이라는 의미의 부(bu)에서 유래한 이 탑은 9세기 이전에 세워졌으며, 조성된 사연은 다음과 같다.

타모다릿 이라는 미얀마족의 최초 왕이 이곳 바간에 도시를 건설할 때, 여기에는 5가지의 난적이 있었다. 5가지의 난적은 한가지의 식물과 4가지의 동물들이었는데, 수세미와 호랑이, 멧돼지, 다람쥐, 거대한 새들이 그것이었다.

덩굴식물인 수세미는 번식력이 너무나 강하여 자르면 자를수록 퍼져나가 온 도시를 뒤 덮을 정도였고, 맹수인 호랑이와 멧돼지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였으며, 다람쥐는 모든 곡식을 차지하였다. 또한 큰 새는 날아다니는 거대한 공룡처럼 깃털 하나를 5명의 장정이 간신히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 때 퓨의 왕족 출신인 16살 퓨샤티(Pyusawhti)가 바간에 와서 신궁으로 불리는 활로서 5가지의 난적을 모두 물리쳤다. 가장 힘든 싸움 이었던 거대한 새를 죽인 후 4,320명이 12년 동안 새의 고기만을 먹고 살 수 있었다고 전한다.

훗날 왕이 된 퓨샤티는 5가지 난적을 물리친 곳마다 불탑을 세웠는데, 수세미 넝쿨을 물리친 곳에는 수세미 모양의 탑을 조성하였으며, 이 수세미 모양은 오늘날 호리병을 닮아 '부파야' 라고 부른다.

이처럼 과거 미얀마인들은 경전에 수 없이 설해진 불탑조성의 공덕을 얻기 위해 기회만 주어지면 불탑을 조성하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불설오백유동경(佛說五百幼童經)에 의하면, 500명의 어린이들이 강변에서 모래로 탑 쌓기 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내린 큰 비로 인하여 모두 익사하고 말았다. 마치 진도 앞바다 세월호의 참사처럼, 자식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부모들을 위하여 부처님께서는 위로의 설법을 하셨다. 그것은 비록 장난이었지만 탑을 조성한 공덕으로 아이들은 모두 도솔천에 태어나 미륵불을 친견하고 득도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모두가 득도하였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마음을 환희심으로 전환 할 수 있었다.

쉐산도 불탑-마얀마 불탑의 전형
모래탑 쌓다 죽은 아이들 도솔촌에
보기 드문 5각형 기단의 담바야지카
골든락 일생 3번 참배로 소원성취
'탑 지지하는 바위는 부석' 주장도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들이 비록 장난으로 탑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 공덕으로 인해 도솔천에 태어난다고 하여 건탑의 공덕을 강조하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따라서 퓨샤티 왕 역시 부타야 불탑을 조성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담마야지카 불탑

모든 불교국가에서는 불탑을 조성하고 예경하는 불탑신앙이 있었으며, 조형적인 측면에서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양식적인 면이나 형식적인 면에서 많은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바간의 담마야지카(Dhammayajika)불탑**〈사진3〉**은 조형적인 개성이 뛰어나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불탑은 기단의 모습이 4각, 8각, 원형 등이 일반적인 구조이지만 5각형의 기단구조**〈사진4〉**는 담마야지카 불탑 외에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나라파티시투(Narapatisithu) 왕이 1197년에 야자나무 사이로 성스러운 안개가 기둥처럼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이곳에 '진리가 담긴 장소' 라는 의미의 담마야지카 불탑을 조성하였다고 전한다.

오늘날에는 불탑 입구에 있는 대형 사진 한 장이 참배객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야간에 조명을 밝히고 불탑 전경을 찍은 사진인데, 탑의 한 구석에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 있는 신비한 사진이다. 이곳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사진속의 주인공은 '담마' 라는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이다. '담마' 는 탑이 조성되기 전에 이곳에 살던 사람인데, 왕이 탑을 조성하려고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지만 그는 끝가지 버티던 사람으로 죽어서도 이곳에 다시 돌아와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탑의 이름도 '담마가 사는 장소' 라는 의미로 담마야지카라고 전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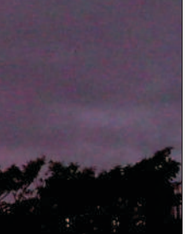
4) 골든락 불탑

미얀마의 3대 성지로 꼽히는 황금바위(골든락) 불탑**〈사진5〉**은 미얀마의 남쪽도시 짜익티오(kyaiktiyo)에 있다. 산 정상 절벽에 우리나라 설악산의 흔들바위처럼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황금바위 불탑은 미얀마인들에게는 일생에 3번만 참배하면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는 믿음이 있어 참배객들이 끊이지 않는다.

둘레가 24m, 높이가 8m 되는 이 바위가 밑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위 위에 조성된 불탑의 영험 때문이라고 모두가 믿고 있다. 참배객들은 끊임없이 이 바위에다 금박을 공양하며, 탑을 예경하고 공덕을 빌고 있다.

얼마 전 일본의 한 방송사의 기자들이 바위 밑으로 실을 통과시켜 이 바위가 공중에 떠있는 부석이라고 주장하여 세간의 관심을 받기도 하였다. 마치 우리나라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 옆에 있는 부석의 전설과도 같이…

다음 호에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왓' 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학자에 따라 앙코르왓은 일반 사원 건축물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불탑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와 조성의 불가사의한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글 · 우인보

〈사진 1〉



'황금의 부처님 머리카락' 이라는 뜻의 쉐산도 불탑.

〈사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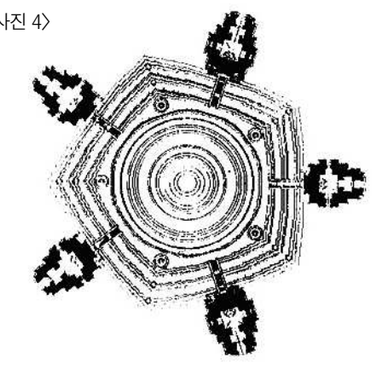
아예야와디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부파야 불탑은 우리나라의 석종형 불탑을 연상케 한다.

〈사진 3〉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5각형 기단구조의 담마야지카 불탑은 조형적인 개성이 뛰어나다.

〈사진 4〉



담마야지카 불탑의 평면도

〈사진 5〉

산 정상 절벽에 우리나라 설악산의 흔들바위처럼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황금바위 불탑은 미얀마인들에게는 일생에 3번만 참배하면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는 믿음이 있어 참배객들이 끊이지 않는다.

※ 경전사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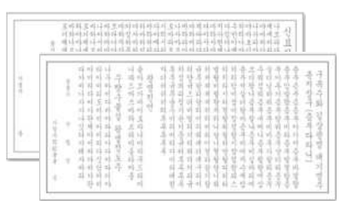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 내 지 : 70장 자연색메트지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220㎜×310㎜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신묘장구대다리 / 촘부다라니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 여러종류의 사경책 · 사경지가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 한지백팔사경 5종 ※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촘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 가 20,000원(1권)
• 내 지 : 한지 108장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435㎜×300㎜



영가옷 B형-남 정가 1,300원 영가옷 B형-여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영가옷 D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 D형-여
할인가 800 (100벌 이상)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할인가 700 (100벌 이상)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할인가 800 (200개 이상)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00원
할인가 160 (600개 이상)



예수재함A (50개 1박스)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B (50개 1박스)
할인가 60,000 (50개 이상)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 가 1,600원



※크기
• 대 6.5×24㎝
• 중 6×22㎝
• 소 5.3×18.3㎝
한지접은 위패(대/중/소)/인쇄접은 위패(대/소)
정 가 30,000원 / 30,000원 (100개)
할인가 @250원 / @250원 (1000개이상)



※크기
• 15.5×19㎝
한지 · 인쇄접은영가옷(남/여)
정 가 27,000원 (100벌)
할인가 @240원(1000벌이상)



금강호신경
1000조 @160원
대량주문시 전화주세요.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한국의 구법승

9. 해동화엄초조 의상 대사

주처마다 보살 있으니, 중생 모두 깨닫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사회 혼란을 극복하는 중심사상으로 자리한 불교의 기반을 다진 이가 있다. 바로 '해동화엄초조'로 불리는 의상대사가. 의상대사는 화엄종의 교리를 집대성하고, 교단을 정비해 통일신라에서 불교가 융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의상 대사의 아버지는 김한신(韓信)으로 신라의 귀족이었다. 진평왕(眞平王) 47년(625)에 태어난 의상대사는 일찍이 선덕여왕 13년인 644년 황복사(皇福寺)에서 출가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의상대사의 한자표기를 '義湘(의상)'으로 하고 있지만 '義相(의상)'이나 '義想(의상)'으로 기록되고 있는 문헌도 있다.

화엄종 지엄 스님 회상서 8년 수학

스님은 처음부터 중국으로 유학 갈 것을 결심하였다. 650년 원효(元曉)스님과 함께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새로 들여온 신유식(新唯識)을 배우기 위해 중국의 당(唐) 나라로 유학을 떠나려 했다. 마침내 당나라 유학길에 나서는데 요동까지 갔다가 고구려에 붙잡혀 수십 일간 갇혀있다 돌아왔다. 스님은 문무왕 원년인 661년 당나라 사신을 따라 뱃길로 중국 유학을 떠나 양주(揚州)에 도착한다. 양주의 유지인이 의상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관아에 머물게 하며 풍족하고 융숭한 대접을 하였다.

의상대사는 이듬해 종남산(終南山) 지상사(至相寺)에서 중국 화엄종(華嚴宗)의 2대 조사인 지엄(智儼, 602~668) 스님에게서 화엄(華嚴) 사상을 배웠다.

종남산 지상사로 가서 지엄을 알현했더니 지엄은 의상을 맞이하여 방에 함께 들어가 〈화엄경〉의 내용을 문답했다고 한다. 지엄 스님은 의상대사를 만나기 전날 밤 꿈을 꾸었으며 그 꿈 내용이 해동(海東)에 큰 나무 한 그루가 나서 가지와 잎이 번성하더니 중국에 와서 덮었는데, 그 위에 봉(鳳)의 집이 있어 올라가 보니 한 개의 마니보주(摩尼寶珠)의 밝은 빛이 멀리까지 비쳤다. 지엄 스님이 꿈에서 깨자 놀랍고 이상스러워서 절을 깨끗이 청소하고 기다리니 의상대사가 왔다고 한다. 지엄 스님은 의상대사를 맞이하며 말했다. "어젯밤 내가 꾼 꿈에 그대가 올 징조였구려."

입실을 허락하고 지엄 스님은 의상대사에게 〈화엄경〉의 미묘한 뜻을 은밀한 부분까지 분석하며 전수하였다. 의상 대사는 당나라에 머무르며 지엄 스님으로부터 8년 동안 화엄사상을 공부한다. 의상대사의 나이 38세에서 44세 사이의 일이었다.

관세음보살 친견 후 낙산사 창건

〈삼국유사〉에는 의상대사가 671년(문무왕 11년)에 신라로 돌아왔다고 전한다. 의상대사가 신라로 돌아온 가장 큰 이유는 통일신라와 당나라간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이었다. 〈삼국유사〉에는 당 나라 군대가 신라를 공격하려 한다는 정보를 알리기 위해 서둘러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때는 신라의 김흠순과 양도 등이 당나라에 갇혀 있었다. 당나라 고종이 장차 크게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치려함에 김흠순 등은 의상대사에게 귀국을 권한다.

의상대사가 귀국해 당의 거병을 조정에 알려 신라는 이를 대비해 국난을 면할 수 있었다. 귀국한 의상대사는 그해 동해 현재 낙산사(洛山寺)가 위치한 한 굴에서 관세음보살에게 기도를 올렸다. 여기서 의상대사는 관세음보살을 친견(親見)한다. 스님은 이곳을 낙산이라 불렀는데 이는 서역에 관세음보살이 상주하는 보타 낙가산이 있는 까닭이었다. 이것을 소백화라고도 했는데, 백의대사의 진신이 머물러 있는 곳이므로 이것을 빌어다 이름을 지은 것이다.

의상대사는 재계한 지 7일 만에 좌구를 새벽 일찍 물 위에 띄웠더니 용천팔부의 시종들이 그를 굴속으로 안내했다. 공중을 향하여 참례하니 수정 염주 한 꾸러미를 내주었다. 의상대사가 이를 받아 가지고 나오는데 동해의 용이 또한 여의보주 한 알을 바치니 의상대사가 받들고 나왔다. 다시 7일 동안 재계하고 나서 이에 관세음보살의 참 모습을 보았다. 관세음보살이 말했다. "좌상의 산꼭대기에 한 쌍의 대나무가 솟아날 것이니, 그 당에 불전을 마땅히 지어야 한다."

의상대사가 말을 듣고 굴에서 나오니 과연 대나무가 땅에서 솟아 나왔다. 이에 금당을 짓고, 관음상을 만들어 모시니 그 둥근 얼굴과 고운 모습이 마치 천연적으로 생긴 것 같았다. 그리고 대나무는 즉시 없어졌으므로 그제야 관음의 진신이 살고 있는 곳인 줄을 알았다. 이런 까닭에 그 절 이름을 낙산사라 하고, 법사는 자기가 받은 두 가지 구슬을 성전에 봉안하고 떠났다.

화엄종 정수 갖고 신라 귀국
교단 정비 · 왕권 강화에 기여
통일신라 혼란 막고 화합 이끌어
보살 상주 신앙 불국토사상의 기반


합천 해인사에 있는 의상대사 진영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을 친견했다는 설화가 전해지는 낙산사 홍련암 모습



의상대사가 화엄사상을 집약해 표현한 화엄일승법계도


의상대사와 선묘낭자의 설화를 그린 통도사 벽화

스님은 261자의 간결한 명문인 발원문을 남기는데 이것이 바로 〈백화도량발원문 (白花道場發願文)〉이다. 스님은 이어 낙산사를 창건했으며 676년에는 태백산에 부석사(浮石寺)를 창건하고 화엄을 강술해 해동화엄종(海東華嚴宗)의 시조가 됐다. 의상대사가 7언(言) 30구(句) 210자(字)의 도인(圖印)이 바로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다. 이후 화엄사상을 전하기 위하여 팔공산 미리사(美里寺), 지리산 화엄사(華嚴寺), 가야산 해인사(海印寺), 웅주(熊州) 보원사(普願寺), 계룡산 갑사(甲寺), 삭주(朔州) 화산사(華山寺), 금정산(金井山) 범어사(梵魚寺), 비슬산(琵瑟山) 옥천사(玉泉寺), 전주 국신사(國神寺) 등의 화엄10찰(華嚴十刹)을 짓고 강술과 전교에 힘썼다.

의상대사에게는 3000여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진(悟眞) · 지통(智通) · 표훈(表訓) · 진정(眞定) · 진장(眞藏) · 도융(道融) · 양원(良圓) · 상원(相源) · 능인(能仁) · 의적(義寂) 등을 사람들은 10대덕(十大德)이라 불리는 고승들이 배출됐다.

의상대사의 가르침은 귀천의 구분이 없었다. 이들 가운데 지통(知通) 스님은 노비 출신이었으며, 진정(眞定) 스님도 품을 팔아 연명하던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화엄사상은 신라 사회에 널리 확산되었고, 신라 하대(下代)에는 전국 곳곳에 화엄종 사찰이 건립이 이어졌다. 의상의 제자인 표훈(表訓) 스님에게 화엄사상을 배운 김대성(金大城)이 화엄의 세계를 형상화하기 위해 세운 불국사(佛國寺)와 석굴암(石窟庵)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재로 남아 있다.

적은 저술에도 후대에 큰 영향 미쳐

의상대사는 702년(효소왕 11년)에 78세의 나이로 입적(入寂)하였으며, 고려 숙종에게 '해동화엄시조 원교국사(海東華嚴始祖圓敎國師)'라는 시호(諡號)를 받았다. 의상대사는 중국과 일본 등에도 큰 영향을 끼쳤지만 매우 적은 저술만이 남아있다. 〈십문간법관(十門看法觀)〉, 〈입법계품초기(入法界品鈔記)〉, 〈소아미타경의기(小阿彌陀經義記)〉 등은 전해지지 않으며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 〈백화도량발원문(白華道場發願文)〉, 〈일승발원문(一乘發願文)〉, 〈투사례(投師禮)〉 등 만이 전해진다.

의상대사가 매우 적은 저술에도 후대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을 두고 일연(一然)은 〈삼국유사〉에서 "온 솥의 고기 맛을 알려면 한 점의 살코기로도 충분하다"고 평했다.

〈삼국유사〉에는 의상의 전기(傳記)와 함께 낙산사, 부석사 등의 창건과 관련된 여러 개의 설화가 전해진다. 중국의 송(宋) 나라 때에 찬녕(贊寧)이 편찬한 〈송고승전(宋高僧傳)〉에도 의상의 전기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날 경상남도 거창 우두산(牛頭山)의 의상봉(義湘峰)이나 강원도 양양 낙산사(洛山寺)의 의상대(義湘臺) 등의 명칭은 의상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다.

화엄사상과 함께 관음 · 미타신앙 전파

의상대사는 '해동화엄초조'라는 별칭처럼 화엄사상의 발전과 보급에 큰 역할을 하였는데 중국에서는 법장(法藏, 643~712) 스님이 화엄종의 교리를 집대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의상대사는 부석사를 중심으로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해 교단을 세웠는데, 이는 신라의 통일 이후 사회적 혼란 속에서 불교가 왕권강화 및 통합이념으로 자리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의상 대사의 화엄사상은 668년에 저술한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에 압축돼있는데 각 게송(偈頌)과 배열은 〈화엄경〉의 깨달음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의상대사는 법계연기설(法界緣起說)을 펼쳤는데 중도를 강조하며 개체의 독자성과 개체 간의 융합을 동시에 인정하는 특색이 있으며, 중생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衆生隨器得利益)는 가르침으로 나타났다.

또 의상대사는 관음(觀音) 신앙과 미타(彌陀) 신앙을 중심으로 불교를 널리 보급했다. 의상대사의 관음 신앙은 그가 관음보살의 진신(眞身)을 친견(親見)했다는 낙산사(洛山寺) 창건설화에 가장 잘 드러나며 특히 자비(慈悲)로 중생을 보살피는 관음보살이 이 땅에 상주(常住)하고 있다는 '관음상주신앙(觀音常住信仰)'을 통해 신라인들의 자존감과 이후 불교가 융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후 〈화엄경〉의 '보살주처품(菩薩住處品)'에 기초해 신라땅 곳곳에 보살들이 상주(常住)하고 있다는 '보살주처신앙(菩薩住處信仰)'으로 확대되며 이는 신라가 불국정토(佛國淨土)라는 '불국토사상(佛國土思想)'의 기반이 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마하연 투어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 대만 불광사 공승제 4박 5일
1,190,000 출발 8월 16일
* 중국 지장도량(구화산 황산) 5일
1,090,000 5월 28일
* 중국 지장도량 + 관음도량 6일
1,390,000 5월 9일, 23일
* 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 바고) 5일
899,000 6월 7일, 11일
* 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 바간 헤호) 5일
1,490,000 5월 28일, 6월 11일
* 은둔의 나라 라오스 성지순례 5일
1,290,000 ~ 6월 4일
* 민족의 영산 백두산 4일
990,000

【중국 정통 4대 불산 성지순례】
- 지장도량 (구화산) 5일.....요금문의
- 관음도량(보타.낙가산) 5일.....요금문의
-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요금문의
-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조주 관음원 6일.....요금문의
-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대불,구채구 황룡 6일.....요금문의

【불탑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6일.....요금문의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짜익티오 7일.....요금문의

【품격 성지순례】
- 스리랑카 정통 성지순례(직항) 7일.....요금문의
- 은둔의나라라오스성지순례(직항) 5일.....요금문의
- 인도8대 성지순례 10일.....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요금문의
-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성지순례 5일.....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 투어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차별현상’ 도 진짜 아닌 ‘허공성’

듯하다 ④

그러나 그 차별 현상이 전부 듯 아니에요? 그러하니 그걸 참작을 해서 여러분이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라 말입니다. 이 달 중으로 생각하세요. 우리 진짜 공부합시다. 여러분, 설법 듣는데 상식적으로 듣지 마세요. 상식 그 까짓 거 또 가지면 뭐합니까?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사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러하니 우리 진짜 공부를 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하니 어떻든지 여러분들이 이건 이 달 중으로 해답을 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노력을 하시고 아시거든 종이에 이름을 써서 나한테 내 주십시오. 내 주면 옳으면 옳고 또 잘 안 되었으면, 고칠 것 있으면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만 꼭 하려고 하면 됩니다.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석가세존이 됐는데 우리가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유마 거사가 됐는데 우리가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아, 석가세존은 석가세존, 유마 거사는 유마 거사.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석가세존이 나오는 허공이 따로 있고 유마 거사가 나오는 허공이 따로 있고 우리가 나온 허공이 따로 있게요? 중생이 부처 되는 겁니다. 부처도 미하면 중생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장 선생님, 어떻습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유구무언입니다.”

하하하. 우리는 확증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싯달다 태자가 성불을 했어요. 또 우리는 고맙게도 공먹게 됐네요. 싯달다 태자가 성불을 할 때 그 전생 전생 전생 수 겁 동안 그 유루공덕 무루 공덕을 무수히 쌓으셨다 말이죠. 그래서 딱 한 결과에서 ‘이러니라’ 하고 딱 내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조금도 싯달다 태자 그 양반, 석가세존 머리털만큼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머리털만큼도,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아니네. 마야 부인의 뱃속에서 턱 나와서 일곱 자국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아래 나 홀로 높다는 말을 했는데 내가 한 말을 백주(괜히) 경이 틀렸어요. 그때 누가 했냐. 여러분들이 했네. 경이 틀렸어요. 그러나 그 때 석가세존도 같이 했지? 석가세존도 발가숭이 여러분도 발가숭이였어. 그 당시에. 여러분들 불교를 믿으려면 절대로 둘로 보지 마세요. 둘로 보면 도깨비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증거가 있잖아요? 허공이 하나인데 왜 우리가 둘로 보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만 차별현상에 들어앉았기 때문에 그 말이지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허공성이란 걸 우리가 알 때 들어앉을래야 들어앉아지질 않아요. 무의미하거든요. 차별현상이 진짜라면 거기 들어앉아 보지만은 나중에 지옥에 갈 값에. 그러나 차별 현상 이것도 진짜 아니네. 전부 허공성이네. 허공성인지 뻔히 알면서 어찌 우리가 거기 들어앉겠나 그 말이에요. 그러하니 여러분들 어떻든지 일도양단 하십시오.

우리는 내일부터 장좌 불와 들어갑니다. 내일 서울에서 청년들도 오고 하니

> 잣나무밭에서 이는 소리
>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 화두를 가지면
> 안 될 것이 없습니다.
>
> 석가세존 · 원효대사처럼
> 여러분도 가능해요
> 나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이 청년들 집에 빨리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런 각오했습니다. 석 달 동안 장좌 불와 할 작정입니다. 물론 앉아서 자기도 하겠지요. 어쨌든 내일부터 장좌 불와 하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장좌 불와 하세요. 몸은 누워도 좋습니다. 마음으로 장좌 불와 하세요. 마음으로 장좌 불와를 하시면은 우리가 장좌 불와를 한 거나 꼭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니까 석 달 이내에 무슨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어떻든지 우리가 누리의 진리를 모르고는 어디 가서 큰 소리 못 합니다. 누리의 진리를 모른다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온 곳을 모르니 가는 곳을 어떻게 알 겁니까? 그러하기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은 전부 도깨비 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부 듯하는 도깨비 면치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듯하는 이걸 진짜로 알아서 도깨비 놀음하는데 지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숨을 거둘 때 장탄식 해 봤든 용서 없습니다. 장탄식 해 봤든 죽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부 듯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아까 잣나무 밭에서 일어나는 소리. 성품과 경계. 이걸 연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 답이 곧 나옵니다. 이 답이 나오면 그 땐 여러분들에게 내일쯤 화두를 가질 분들은 드리겠는데 화두도 가지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것 없습니다.

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전 조사님들은 그만 두고라도 석가세존이 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가섭존자도 됐고 아란 존자도 됐고 이십 팔조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원효대사도 됐고 부설 거사도 됐고 많습니다.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됐는데 왜 우리라고 못하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이건 그 사람들 전매특허가 아닙니다. 더욱 처녀애들 중국의 영조 아가씨 참 굉장합니다. 우리나라 월명 아가씨, 전부 다 굉장합니다. 다 이리 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리 된 일이 있는데 왜 우리가 안 되겠어요. 남이 되니까 미안해서 사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문제 조금도 사양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 사양하면 그건 참말로 바보입니다. 이건 부모 한테도 양보되는 것 아닙니다. 어떻든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도 나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나부터 먼저 하고 어머니 아버지 구해야 됩니다. 부모를 위해서 내가 몸을 천 동가리 만 동가리 낼 수 있어도 이거는 양보 안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에 속하는 겁니다. 친구도 소용없습니다. 부모가 소용없는데 친구가 소용 있겠습니까?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라도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나부터 해 놓고 구하는 법입니다. 내 육신을 달라면 육신까지 줄 수는 있지만 이건 줄 수 없습니다. 이 공부 줄 수 없습니다. 절대에 속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절대성 문제를 파악하자는 것이지만 말이죠. 이 수단 방법도 절대에 속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를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한 번이 기회를 놓쳤다 할 것 같으면 어느 때 다시 사람의 몸을 받으려는지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불성 있어도 부처 자격 갖춰야 부처 가능

10. 행원례 (行願禮)

① 예경제불(禮敬諸佛)
南無至心歸命禮西方阿彌陀佛
所有十方世界中 三世一切人獅子
我以淸淨身語意 一切遍禮盡無餘
普賢行願威神力 普賢一切如來前
一身復現刹塵身 一一遍禮刹塵佛
願共諸衆生往生安樂國

여기서 예경제불(禮敬諸佛)의 예경은 앞에서 말한 바인데 제불이라는데 대하여는 그러니까 모든 부처라고 한다면 광범위한 것이지만 이에는 원효대사(元曉大師)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알기 쉬울 것이다.

원효대사는 제불을 셋으로 나누었다.

첫째 과만족 덕불(果滿足德佛)이다. 과가 만족스러운 덕을 이룬 부처다. 과는 모든 수행의 결과라는 뜻. 「만족스러운 덕」이란 다시 말하여 덕이 만족스러운 것을 이른다. 이는 수행하는 우리가 그 수행의 결과로 모든 덕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성스러운 지경에 들어가 깨쳤다, 도통하였다, 부처가 되었다(成佛)고 한 때의 바로 그 지경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둘째는 여래장불(如來藏佛)이다. 여래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구세주(救世主)라고 알아두는 것이 좋다. 범어로는 다탕아다(Datangada)라고 하여 응공(應供)의 뜻이 있는데, 이를테면 모든 사람에게서 공양, 즉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커다란 자격을 가졌다, 모든 사람에게서 응당 존경을 받을만한 어른이라는 것.

또 정변지(正?智)라고 하여 지혜가 어느 곳에나 두루 꽉 차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명행족(明行足)이라고 하여 밝은 행동이 구족하다는 것을 일컫는다. 사람의 행동이 밝지를 못하면「컴컴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될 것이다.

다음은 선서, 잘 하고 돌아가셨다는 말. 사람으로서 할 짓을 다 한다. 모든 일을 잘 하고 간다. 할 짓을 못하고 가면 뒤가 시원찮게 된다. 존경을 안한다. 우리가 민족의 태양으로 받드는 이순신 장군은 그의 행동에 한 군데도 명행족 아닌 구석이 없었으며 성심 성의를 다하여 국난을 건지고 돌아가셨다. 할 짓을 다 하고 돌아가셨으므로 우리는 이를 선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할 짓을 못하고 간 사람은, 왕이라도 연산군(燕山君) 같은 이나, 자기 아니면 대통령할 사람이 없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4 · 19의 학생 데모로「당신은 물러가시오」하는 통에 하야한 이나, 잘 하고 돌아갔다고 말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가 사는 동안 잘하고 돌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다음은 세간해(世間解)다. 세상일을 모두다 이해하고, 잘 알고, 정곡을 꿰뚫어 보고, 인정의 기미를 잘 헤아리고, 인간의 진실을 잘 포착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무상사(無上師)이시다. 위에 덮을 수 없는 위대한 스승이다.

그리하여 또 천상과 인간의 스승, 천인사(天人師)라고 한다. 이와같은 어른은 불타(佛陀)다. 깨친 어른이다. 또한 이러한 이는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므로 세존(世尊)이라고 한다.

여래(如來)라는 말 속에는 위의 여러 가지 요소가 다 들어 있다.

> 우리가 발로 디디고 있는 것은
> 모두가 부처라 할 수 있다.
> 세계도 국가도 부처
> 시방세계 안의 모두가 부처
> 일체 여래 앞에 모든 것 부처

그런데 여래장불(如來藏佛)이란 우리가 여래(如來)를 간직하고 있다(갊아 있다)는 뜻이다. 우리 자체내에 여래가 들어 있다는 말인데,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를 본능적으로 원래 타고났다는 것이다. 일체 중생이 원래 본각(本覺)의 터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우리는 누구나 알뜰히 지성을 다하여 행동한다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는 노력을 요하고, 노력의 결과 성스러운 지경에 도달하기 까지는 역시 일개 범부(凡夫)이며 아직은 미망에 사로잡혀 허둥대고 있다. 그러나 어쨌던 그런대로 부처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부처다.

그리고 제불의 셋째는 상형불(象形佛)이다. 앞에서 말한 여래장불이나 과만족불(果滿足佛)은 대개들 얘기하고 있지만 이 형상불은 원효대사의 독특한 견해이며 이것만으로 보아도 그는 대단한 형안을 가진 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상형불은 생명체를 가진 것이 아니고, 유정(有情)이 아니고, 의식(意識)이란 것은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함이냐하면, 우리가 법당에 모셔 놓은 불상은 쇠로, 구리로, 돌로, 흙으로, 나무로 다듬어 상형을 조각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부처님이다 하고 예불을 드린다. 다시 말하여 흙이나, 돌이나, 쇠나, 은이나, 또는 종이에 그린 그림까지도 상형을 만들어 이를 부처로 모시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실상인즉 흙이나 돌 만이 부처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로 디디고 있는 돌이며 흙이며, 우리 둘레에 있는 온갖 물질을 모두 다 부처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원효대사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우리가 몸에 지닌 옷이나, 신발이나, 모자에서부터 펜이나, 종이나, 책상, 잉크, 벽, 뜰, 공기, 수목, 산, 물 할 것 없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물질이 다 부처 아닌 것은 없다.

우리가 세계라고 하는 것, 또 좁히어서 국가라고 하는 것, 국토라고 하는 것이 역시 다 부처다. 국가는 우리의 부처님이다. 국토가 부처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의 나무를 꺾거나 하여 국토를 황폐케한다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만다라인 도량을, 부처님이 계시는 터전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지상천국이라는 말이 있지만 원효대사의 이 상형불의 취지를 새겨보면 그 말이 이만치 간곡한 표현을 얻지는 못하였음을 깨닫는다. 우리 국토의 돌 하나하나 흙 한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부처라는 이 알뜰한 사상은 일찍이 아무도 가져본 적이 없으며 또 범위의 그 광대 무변함은 감히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것이다. 이 지구상에만 한한 것이 아니라 저 태양이다, 달이다 하는 성운계(星雲系)의 모든 별들, 대기(大氣)며 에덴이며 부유하는 그림이며 우주의 모든 현상계(現象界)가 다 부처이므로 우리는 경건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폴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확인천도
영능력개발과정 전수자모집

전 수 내 용
❶ 그 자리에서 환자의 몸을 통한 빙의 일반병 확인 하는 방법
❷ 환자의 몸에서 나오는 영가의 대화법 (6하원칙 대화법)
❸ 사주와 전생의 수행능력과 빙의 영혼 구별법
❹ 고혈압, 당뇨, 아토피, 심혈관질환. 다이어트의 치유법, 영적인 질환은 冷氣(냉기)
(스님, 신도분, 종교인,누구나 환자 상담시 2개월 치유프로그램 시행)
❺ 몸, 마음, 정신, 영혼의 작용력 이해, 영가 빛 천도법
❻ 과학적인 오오라장을 통한 빙의 수준의 이해
◆저급빙의 – 육체적인 질병을 통한 빙의 영혼의 고통 호소
◆중급빙의 – 마음적인 갈등과 영적인 갈등을 통한 방황과 혼돈
◆고급빙의 – 삶의 목적과 영혼의 목적 의식에 따른 방황
❼ 인간의 속마음을 읽는법 (인체전기장을 통한 과학적인 방법)
◆수강자 – 스님. 대체의학연구자, 종교인, 영적인 현상을 이해 하고자 하는 분. 삶의 목적의식을 찾고자 하는 분, 깨달음의 이해.윤회의 법이해 이론, 책자(전수용) 실습
– 강의는 수강자와 협의 후 결정
❽ 효소찜질 : 사찰내의 난치병,빙의 환자치유, 목적 설치 상담
■ 보시금은 영혼 확인 상담비 : 십만원 전수료는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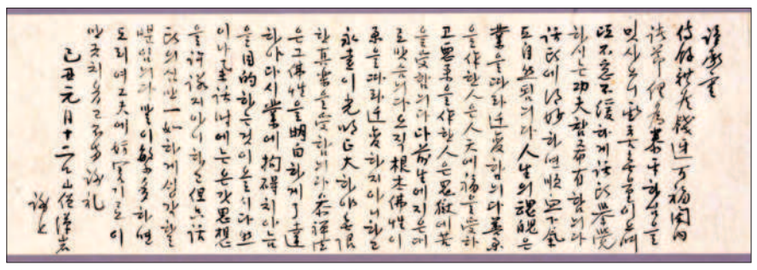
풍운 합장

인체전기파동원 (고덕선원)
문의전화 : 010-9242-5259
오시는길 :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3 642-21



한암(漢岩) 선사의 편지 〈5〉

불성만이 업에 구애받지 않아



한암 스님이 조창환 선생에게 보낸 편지(답장)

조창환(曺昌煥) 선생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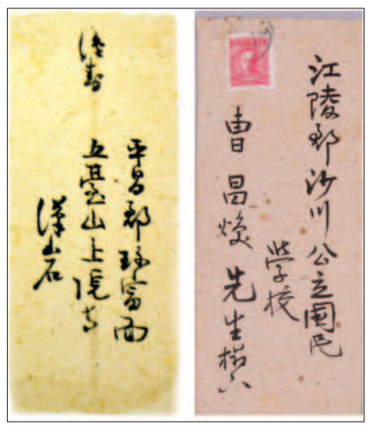
보내주신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새해를 맞이하여 존체가 만복하고, 가내(家內)가 모두 두루 평안하시다니, 안심이 되고 또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급하지도 않고 느슨하지도 않게 하는 화두 공부는 참으로 희유합니다. 화두공부에서 묘함을 얻으면 피를 순화시키고 기(氣)를 내려가게 하는 것[純血下氣]도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혼백(魂魄)은 업을 따라 변천합니다. 선업을 지은 사람은 인간 세계나 천상에 태어나서 복을 받고, 악업을 지은 사람은 귀신 지옥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모두 다 전생에 지은 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오직 근본 불성(佛性)만 업을 따라 변천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광명(光明)이 정대(正大)하여 무한한 참 낙[眞樂]을 받습니다.

참선법은 불성을 명백하게 요달해서 다시는 업에 구속받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두를 들 때에는 온갖 생각을 허락지 아니합니다. 다만 화두에 대한 의심만 일여(一如)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말이 번다하면 도리어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만 그치옵고 답서의 예를 갖추지 않습니다.

기축년(1949년) 원월(元月, 1월) 12일
산승(山僧) 한암 올림



이 편지는 조창환 선생에게 답한 것으로 1949년 정월 12일에 보낸 것이다. 조창환(曺昌煥) 선생은 당시 강원도 명주군 사천국민학교 교장으로 법명이 각명(覺明)이었다. 매우 신심 있는 거사였는데, 한암선사와 주고 받은 편지는 모두 4편이 있다. 이 편지는 그 가운데 1편이다.

내용은 화두참구에 대한 것이다. 조창환 선생이 서간을 통하여 화두를 참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문했던 모양이다. 이에 대하여 한암선사는 화두를 참구할 때는 급하지도 않고 느슨하지도 않게 하라고 하신다. 급하게 하면 기(氣)가 머리로 올라가는 상기병이 생긴다. 상기병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이유 없는 두통이다. 또 느슨하면 혼침(昏沈, 졸음)에 빠져서 화두를 드는지 졸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거문고 줄처럼 불급불완(不急不緩)해야 한다. 이렇게 화두를 참구하면 그 묘미는 매우 희유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두공부에서 묘함을 얻으면 순혈하기(純血下氣) 즉 상기병(두통)도 저절로 내려가고 건강도 좋아진다는 것이다.

또 사람은 죽으면 생전에 지은 업에 따라 지옥, 아귀, 축생 등 6도를 변천하지만 오직 불성(佛性,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만은 변천하지 않고 영원히 광명(光明)이 정대(正大)하므로 불성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신다. 또 참선법은 그 목적이 불성을 명백하게 요달해서 다시는 업(業)에 구속받지 않는데(해탈)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두를 들 때에는 온갖 생각을 일체 하지 말고 오로지 화두에 대한 의심만 일여(一如)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선에서는 타성일편(打成一片, 하나로 만든다)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한암선사는 말이 번다하면 도리어 공부에 방해가 되므로 더 이상 말을 줄인다는 것인데, 노파심이 구구절절하다.

윤창화(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명상은 마음 알아차리는 수행 자기 알게 되면 세상도 함께 행복"

김승석 변호사 (제주 관음사 신도회장)

이른 새벽, 자신만의 행복 공간 '출리산방(出離山房)'에 홀로 가부좌를 튼다. 숨 하나에만 정성을 들이면서 고요함의 깊이를 관찰한다. 다른 잡념은 버리고 오로지 숨 하나에만 오고감이 있다. 숨에만 집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느덧 10여 년 째, 수행의 깊이는 '마음의 주인' 노릇을 톡톡히 한다.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예감이 스친다.

부처님 원음과의 대화

김승석(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신도회장 · 제주불교신문 편집인) 변호사에게 아침 명상 수행은 빼놓을 수 없는 일과다. 비록 재가자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매일 새벽에 약 40분 정도 아침명상에 든다.

마음의 고향, 정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만의 명상에도 철칙이 있다. 먼저, 산만한 생각을 자르기 위해서 '아나빠나 사띠(호흡 명상)'를 한다. 이어 탐욕의 빛바램 또는 소멸을 위해서 몸에 대한 부정관 명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몸의 32부위를 차례차례 새기고 그 부위별 변화를 살피는 무상관 명상이다. 끝으로 뭇 생명들에 대한 증오나 성냄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애(metta)관 명상으로 하루를 연다. 불안,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이 시든 꽃이 아닌 아름다운 꽃이 되고자 늘 깨어있기 위한 쉼 없는 정진인 셈이다.

"명상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선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남들도 안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언제부터 자비명상으로 하루를 밝혔을까. 그는 지난 2003년 5월경 도심의 아파트를 떠나서 제주시 아라동 소재 아란(阿蘭)마을 농장으로 거처를 옮겼다. 처음으로 농사 짓고 감귤, 사과 등 여러 과실수를 키우며 새, 뱀, 지네, 거미 등 각종 벌레 및 곤충들과 함께 어우러 사는 지혜를 알아갔다.

그의 본격적인 수행 시작은 지난 2006년 여름에 10평 남짓한 토굴 '출리산방'을 마련하면서부터. 그 해 가을철에는 도반인 황경환 동국대 경주캠퍼스 평생교육원 교수를 만나는 행운까지 얻었다. 초기불교를 많이 배우고(多聞), 배운 것을 잘 호지하며, 말로써 법을 잘 설하고, 법담 나누기를 좋아하는 인연이 닿게 된 것이다.

황 교수와 김 변호사는 한 달에 두 번 출리산방에서 1회, 서귀포에서 1회씩 각각 정기법회를 연다. 거기에 모인 법우들끼리 명상클럽 '여덟 겹의 길'을 만들어서 사성제와 팔정도(八正道)에 대한 교리 공부에 들어갔다.

그 지인의 소개로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출판한 〈디가니까야(장부)〉 〈앙굿따라 니까야(증지부)〉 〈청정도론〉, 〈아비담마 길라잡이〉 〈들숨날숨에 마음챙기는 경〉 등과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 출판한 〈맛지마니까야(중부)〉 〈쌍윳따니까야(상응부)〉 등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의 원음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특히 명상클럽 '여덟 겹의 길'은 김 변호사에게 사성제와 팔정도(八正道)에 대한 교리에 눈 뜨게 했고, 그의 관심은 팔정도의 일곱 번째 정념(正念)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염(念)은 생각할 염이나, 그 진의는 생각(思)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일으켜 대상을 겨냥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대상에 보내는 것이므로 오온(五蘊)의 행(行)에 속하지요.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경(M118)〉을 보고 사띠 수행의 기초를 다지고, 〈대념처경〉을 통해 보고 신(身), 수(受), 심(心), 법(法) 사념처 수행의 기본을 공부하면서 '사념처 수행(사띠빠타나)'에 대해 제주불교신문에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환갑인 지난 2009년 사념처 수행에 대한 정보를 재가불자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책을 집필하기로 마음먹는다. 불광출판사를 통해 그해 10월 '나 홀로 명상'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김 변호사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주로 심야에 출리산방에서 경전 공부를 더 많이 했고, 사띠(sati) 수행이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의 태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게 된다.

매일 40분 명상으로 아침 열어
법우들과 '여덟 겹의 길' 창립
꾸준히 사성제 팔정도 교리 공부
사띠 수행, 위빠사나의 태반 같아

고시생 시절 '불자 법조인' 발원
사법연수원 신행단체 '제석회' 조직
'悲' 무량심으로 생계형 범죄자 변호

'제주불교' 발행인 · 관음사 신도회장
제주불교 지평 넓히기에 전력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불심

스님 못지않은 수행의 깊이, '그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화두가 드리워진다. 태어나면서부터 김 변호사는 불연(佛緣)이 매우 돈독했다. 어린시절 부처님께 올린 불공으로 살아났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가 태어난 곳은 세계자연유산인 성산포 일출봉에 자리한 제주시 성산읍 성산리. 그 중턱에 동암사가 자리에 했고 약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그가 태어나고 자란 집터가 있다.

김 변호사의 어머니가 동암사에 불연이 닿기 시작한 것은 어머니의 나이 25세 때인 지난 1947년경이다. 그의 어머니로부터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그 당시 동암사 법당은 3칸 초가를 함석지붕으로 개량한 조그만 암자 수준이었다. 여러 차례 중창 불사를 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공양주 보살 역할을 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가 태어나서 젖먹이 무렵, 약 3개월간 설사를 해서 죽기 전까지 이르렀다. 모두가 어렵게 살던 시절이고 농어촌 지역이라 항생제 같은 약과 주사를 구할 수 없어 어린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맥없이 바라보는 처지가 됐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한 심방을 찾아가서 그 처방을 물었다. 그 심방이 "이 아이는 불연(佛緣)이 매우 돈독한 아이라서 부처님께 불공을 드려야 살아난다"고 말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즉시 동암사에서 불공을 드렸는데, 불공을 마치자 설사가 그쳤다고 한다. 김 변호사가 부처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인 셈이다.

그때부터 그의 어머니는 매년 나를 동암사로 데리고 가서 생일불공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결혼해서 사법시험 공부를 할 때에도 저는 못가지만 어머니는 동암사에서 빠짐없이 생일불공을 올렸다"며 "생일불공을 통해 어머니는 나와 불교와의 인연을 맺게 했고, 먼 훗날 불교공부를 하도록 좋은 과보를 맺게 했다"고 회상했다.

'불자' 변호인으로 살기 위해

김 변호사는 군 입대 전, 소설가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워 국문학과를 다녔다. 하지만 군 제대 후 "법을 통해 사회를 바꿔야겠다"는 서원으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사법고시를 준비했다. 대학 졸업 후 경기도 광주군 내 고시촌 마을을 전전하면서 여러 해 동안 사법시험에 응시했으나 거듭되는 낙방에 편두통까지 걸려 법서를 읽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 무렵, 한 평생을 함께할 인생 도반을 만난다. 지난 1981년 12월 어머니와 지인의 소개로 부산에서 지금의 아내와 첫 맞선을 보았다.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계기는 불교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아내는 대불련 출신으로 부산 금정산 범어사에서 여러 해 불교공부를 해서 김 변호사 보다 불교에 대한 이해가 높았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 사법시험(2차)을 치르고 나서 지난 1985년 6월경 충북 제천 천태종 구인사서 4박5일간 철야정진기도에 들어갔다. 그때 '관세음보살' 염불수행에 정진하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참 불자가 되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시절에 불자 연수원생들을 중심으로 한 신행단체인 '제석회'를 조직하는 등 그 원력을 지키고자 부처님 전에 약속했다. 그 당시 법사 스님은 최근 원적에 드신 무진장 스님으로 매월 정기법회를 열면서 신행활동을 해나갔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특별한 신행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불자 법조인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특히 형사사건 변호를 맡다보면 별의별 사람들과 많이 접하게 됐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김승석 제주 관음사 신도회장(제주불교 발행인)이 올 4월 26일 봉축을 맞아 열린 법회에서 발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1년 수행 모임 회원들과 성지순례로 찾아간 인도 쿠시나가르의 '열반당' 에서 김승석 변호사가 참배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가난때문에 절도를 해서 구속되는 청소년들이 많았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초범인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김 변호사는 이런 부류의 범죄자 석방을 변호하는 것이 바로 '비무량심(悲無量心)' 의 발로라고 보았다. 어린 청소년들이 범죄의 터널에 들기 앞서 선근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수없이 변론을 맡았다.

이 밖에도 김 변호사는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사건의 경중 또는 의뢰인의 빈부를 고려해 차등으로 수임료를 계산,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비무량심으로 보아 지금까지 변론을 해왔다"며 "그래서 그런지 변호사 수임료가 과다하다고 불평이나 쓴 소리를 들어 본 적이 거의 없다"고 너털웃음을 짓는다.

제주불교 발전을 위해서

김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뿐 아니라 제주불교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헌신했다. 1989년 현재 제주불교신문의 전신인 법보신문이 발행했던 어린이신문(월간)의 발행인으로서 어린이포교에 관심과 애정을 표시해 왔다. 이런 불교 언론활동을 반영해 지난 1995년 제주불교신문을 법인체로 등록하고 대표이사에 취임을 하게 되었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불교 언론인으로서 불교시론이나 사설을 쓰고 있다.

"제주불교신문은 제주지역의 유일한 불교 언론매체입니다. 창업보다 수성이 더 어렵고 이보다 경장(更張)이 더 어렵다는 금언이 있듯이 기도 중심의 제주불교문화를 지혜와 자비 바라밀 수행 문화로 변화시키기 위해 제주불교신문 기능을 쇄신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불교 언론을 통해 제주불교 발전에 혜안을 제시했다면, 지난해 9월에는 제23교구 관음사 신도회장에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실천불교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신도회 조직을 새롭게 꾸미고 공덕을 많이 짓는 신행공동체로 바꿔 보려고 애쓰고 있다. 또한 본사와 말사 신도회 간의 수평적 교류와 여러 신행단체와의 횡적, 연대의식 확대 등을 통해 제주불교의 지평을 넓혀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김승석 변호사는 … 1949년 제주 선상읍에서 태어난 김승석 변호사는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불자 연수원생들의 모임인 '제석회' 를 만들어 활동할 정도로 돈독한 신심을 가졌다. 1988년 고향 제주에서 변호사를 개업했으며, 한라 어린이 불교신문 발행인에 취임했다. 1995년 (주)한라불교신문(현 제주불교신문) 초대 대표이사 및 편집인에 임명됐으며, 현재에도 제주불교신문 편집인으로 활동 중이다. 1998년 제3대 정무부지사를 지냈으며 제주비평 발행인, (사)공동체의식개혁운동 제주협의회 공동대표 역임했다. 현재 제3기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있으며,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신도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제주불교 발전에 매진하고 있다. 저서로는 〈제주불교 100선〉 〈제주의 현실, 꿈, 미래〉 〈나홀로 명상〉 등이 있다.

김 변호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무엇일까. 그 질문에 그는 "불교는 이 폭포수와 같은 흐름을 건너 피안(彼岸)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에 나에겐 의지처이자 안식처"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게 불교는 윤회의 바다에서 생사가 거듭되는 이 사바세계의 거친 폭포수와 같은 흐름을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힘과 같았다.

그래서 일까. 그는 다음 생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면 출가 수행하겠다고 말한다. 그래서 금생에 선업을 쌓아 예류도(성자의 흐름에 드는 방법) 이상을 성취하려고 한다. 그의 마음은 늘 열반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작은 어리석음이 남아 있어서 아직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 이라는 뜻이 담긴 소치(小癡)가 김 변호사의 법명인 듯하다.

제주불교 이병철 기자

전법일기

군승, 400년 만에 일본 땅 밟다

"환영! 한국 군승단장 일행! 400년 만에 방문한 승장들을 환영합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에 대형 현수막이 나부꼈다.

군승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일본 진토진종의 초청으로 일본에 방문했을 때다. 당시 군승으로는 사명대사 이후 400년 만에 군승 대표들이 일본을 방문한 것이었다. 군승단이 공항에 도착하자 일본 불자들은 열렬한 환영을 보냈다.

공항에 마중나온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승장이라 하였다. 우리들을 사명대사와 같은 반열에 올려준 것이다. 나는 마치 사명대사가 왕사 자격으로 일본에 들어갔을 때처럼 무슨 담판을 지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왜란 이후 죽음을 무릅쓰고 적지인 일본에 들어가 포로송환 교섭을 하고, 일본 문사와 무사들에게 한껏 조선인의 기개를 드날린 사명 대사에 비교되니 부끄러움이 앞섰다. 그러면서도 나는 마치 그 혼을 쓴 사람처럼 저절로 어깨가 펴지며 당당하게 일본사람들을 대했다. 속으로 역사적 책무를 짊어졌던 사명 대사의 기개를 닮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왜란 당시 유점사에서는 사명 대사의 기개가 왜군을 굴복시킨 적도있었다. 유점사에서 일본군 수십명이 들이 닥쳤는데 법당 앞에 오줌을 누는 왜군을 보고 사명대사는 호통을 친다.

'이놈아! 그러고도 지옥고를 면할 줄 알았느냐!'

사명 대사가 소리를 치자 일본군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절의 성보를 있는대로 내놓으라는 일본군 두목에게 사명대사는 "너희가 섬기는 부처나 우리가 섬기는 부처나 다 같은 부처이거늘 훔쳐서 가져가면 더 영험하더냐!"며 "기왓장 하나라도 들고가면 죽는대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당당히 말했다.

기세가 밀린 일본군에게 사명 대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쟁을 핑계삼아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 업보가 언젠가는 돌아온다. 다른 이들이 살인을 저지른다고 부처를 섬기는 너희들까지 그래서야 되겠느냐. 부처님이 빤히 보고 계신다."

왜군 두목은 절마당에 묶여 있던 유점사 스님들을 풀어주고 산문 앞에 '고승이 머무르니 함부로 출입하지 말라' 는 표목을 박아놓고 떠났다고 한다.

이때 이후 나는 언제나 사명 대사와 같은 승장의 자세로 군승 생활을 보내야겠다고 다짐했다. 살생을 막기위해, 또 살생을 줄이기 위해 부득이 하게 승려의 신분으로 칼을 들었던 그들을 떠올리며 나의 삶을 참회했다.

사실 우리나라가 국난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언제나 승군들이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밀려오는 왜군을



그림 · 박구원

상대로 영규 스님 휘하 승군과 서산 · 사명대사가 이끈 승군이 최전선에서 싸웠다.

진주대첩에서는 해인사 신열 스님의 승군, 행주대첩에서는 전라도 지역 승군이 참전했다. 이순신 장군 휘하의 수군에도 승군이 1500명이 있었다고 한다. 왜란 이후 군공(軍功)으로 공신이 된 스님이 무려 34명에 달했다.

승군들의 활약은 병자호란 때도 이어져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이 모두 승군이 주둔하는 병영이었으며, 특히 각성 스님이 주도해 쌓은 남한산성 내 남한치영은 의승군들의 집결지 였다. 승군들은 성안에 9개 사찰을 지어 주둔하며 불도를 닦으며 국방을 책임지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의 연장선 상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숙연해졌다.

지금도 나는 마음을 심란할 때면 나리타 공항에 펄럭이던 현수막을 떠올린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나라와 불교를 수호하는 승장이 되기를 발원한다.



자광 스님
(前 군종교구장 · 용인 반야선원 주지)

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

BORYEON 보련기획

특가행사 진행중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바 림 등



자 비 등



정품 LED전구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팔각주름등



공 단 등



팔 각 접 등



연꽃만월등



연 화 연 등



차 걸 이



인 등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

美 "印 밀수 유물 반환하겠다"…인도 냉담

최근 인도에서 훔친 유물의 밀반입을 적발해 압수한 미국의 행정 당국이 인도의 고대 불교 유물들을 과연 제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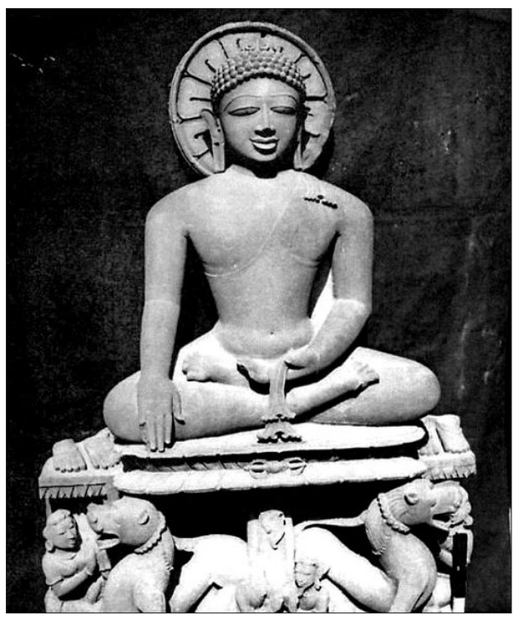
〈인도 타임즈(The Times of India)〉 지는 4월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민·세관청(ICE/DHS)이 '문화재 밀수업자' 섭하시 카프르(Subhash Kapoor)를 체포하고, 1억 달러(1032억여 원)에 상당하는 고대 유물을 압수했다"고 전하고, "미국 이민·세관청이 이들 유물의 반환 의사를 밝혔지만, 인도 정부가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반환 절차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해, 인도 고고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도난 후 해외 반출된 유물은 환수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환수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하는 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이민·세관청은 섭하시 카프르의 압수 유물 처리를 놓고 진퇴양단에 빠졌다. 특히 압수된 유물은 감정가만으로도 1억 달러에 달하는 고가라는 점에서, 이민·세관청은 하루속히 인도로 돌려보내길 바라고 있다.

〈인도 타임즈(The Times of India)〉 지에 따르면 압수된 유물 대부분 타밀 나두(Tamil Nadu) 등 인도 각지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문화재 밀반입' 혐의로 체포된 섭하시 카프로는 뉴욕에 골동품 거래소인 'Art of Past'를 열고, 이를 유통할 계획이었다.

압수된 도난 유물 중에는 타밀 나두의 아리야루르(Ariyalur) 사원에서 훔친 촐라 시대(Chola-era)의 불상이며, 마디아프라데시(Madhya Pradesh)의 불교 사원에서 훔친 것으로 감정가만 1천5백만 달러(154억여 원)에 달하는 바르후트 약시(Bharhut Yakshi)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도에서 훔친 유물의 밀반입을 적발해 압수한 미국 행정당국이 인도의 고대 불교 유물을 반환하려 하자 인도정부는 환수비용 부담으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도난당한 촐라 시대(Chola-era)의 불상.

美, 인도 고대 佛유물 밀수 적발
반환 의사 인도정부에 밝혀
印, 환수비용 유물 소장자에 떠밀어
印고고학계, "반환절차 정당해야"

또한 2200년 전에 조성된 탑의 조각상 일부인 마하코카(Mahakoka)는 인도의 고고학자 집안에서 2004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마하코카를 처음 소장한 고고학자는 1873년 마디아프라데시에서 살았던 알렉산더 커닝햄(Alexander Cunningham) 박사인데, 그는 발굴 후 집안에 불당을 세워 마하코카를 봉안했다. 도난 직후 알렉산더 커닝햄 박사의 후손들은 마하코카를 되찾기 위해 3백만 루피(5500만여 원)의 상금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인도 타임즈〉지는 "환수의 주체는 인도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인도 고고학계의 입장을 강조하고, "섭하시 카프르의 유물 대부분 사원과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것들이지만, 그 하나하나가 인도의 고대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 정부는 관련 학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섭하시 카프르로부터 압수한 고대 불교 유물에 대한 인도 정부의 조속한 환수를 바란다"는 미국의 이민·세관청의 입장을 거듭 환인한 〈인도 타임즈〉 지는 "인도 정부는 도난당한 사원과 개인이 직접 환수 비용을 지불하고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이민·세관청과 협조해 환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에서 '도난당한 과거(Pundered Past)'라는 협회를 이끌며 '도난 유물 환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키리트 만코디(Kirit Mankodi) 박사는 "섭하시 카프르의 도난 유물 대부분 불교 유물이지만, 정부는 인도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해당 문화재의 반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문화재가 이동되기 위해서는 고비용이 들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감수해서라도 인도의 유물을 지켜야 한다"고 인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이민·세관청에 따르면 '문화재 밀수업자' 섭하시 카프르로부터 압수한 1억 달러(1,032억여 원)에 상당의 고대 불교 유물은 관할 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키리트 만코디 박사의 문화재 환수 협회인 '도난당한 과거'에서 제공하는 도난 유물 사진 자료와 대조 과정을 벌리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어릴 때 읽은 불서 지금의 나 만들어"

영국 록그룹 '블러' 보컬 데이먼 알반 인터뷰서 밝혀



록그룹 블러의 보컬 데이먼 알반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할 때 나는 불교 서적으로 마음을 달랬다."

1990년대 영국 브리티시록계를 주름잡았던 록그룹 블러(Blur)의 보컬 데이먼 알반(Damon Albarn · 46)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해 눈길을 끈다.

미국 연예매체 뱅 쇼비즈(BANG Showbiz)는 4월 29일(현지시간) 데이먼 알반의 불교 인연에 대해 소개했다.

9세 때 가족들과 영국 시골인 에섹스 지방으로 이사를 간 데이먼 알반은 새로 전학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등 적응을 하지 못했다.

데이먼 알반은 "당시 나는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헤르만헤세의 작품들과 다양한 불교 서적을 탐독했다"며 "최근 발매된 앨범 'everyday robots'는 내 어린시절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것으로 지금의 나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앨범 작업을 위해 어린시절의 기억을 찾아 헤맸고, 당시의 기억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의 나를 불교서적을 탐독했던 어린시절에서 왔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英 여성, 부처님 문신 때문에 추방

스리랑카 "석가모니 문신은 문화적으로 민감"



나오미 미첼콜먼은 부처님을 문신한 이유로 반다라나 이케 국제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한 영국 관광객이 스리랑카 땅도 밟아보지 못한 채 강제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연꽃에 앉아있는 '석가모니 문신' 때문이다.

4월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나오미 미첼 콜먼(37 · 여)은 전날 인도에서 스리랑카 수도인 콜롬보 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돼 구금됐다.

오른팔에 석가모니 문신을 해 다른 사람의 종교적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전체 인구 가운데 69% 정도가 불교를 믿는 스리랑카에서 석가모니를 이용한 문신은 문화적으로 민감한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2010년 세네갈 출신 가수인 에이콘도 비슷한 이유로 스리랑카로부터 비자를 거절당했다. 불상 앞에서 수영장 파티 장면이 나오는 섹시 칙(Sexy Chick)이란 뮤직비디오가 논란이 스리랑카 승려와 시민 등 1만 200여명은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이 불상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부처를 모독했다며 콘서트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후 에이콘은 스리랑카 불교 신자들에게 사과했다.

이나은 기자

섬세한 집중력으로 빚어낸 놀라운 '모래 예술'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 스님들 만다라 작품활동 소개

오색찬란한 이 예술작품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을까. '물감', '파스텔' 등을 떠올리기 쉽지만 놀랍게도 재료는 수백만 개의 작은 '모래알'들이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인도 승려들이 섬세한 집중력으로 빚어낸 놀라운 '모래 예술 작품'의 생생한 모습을 4월 30일(현지시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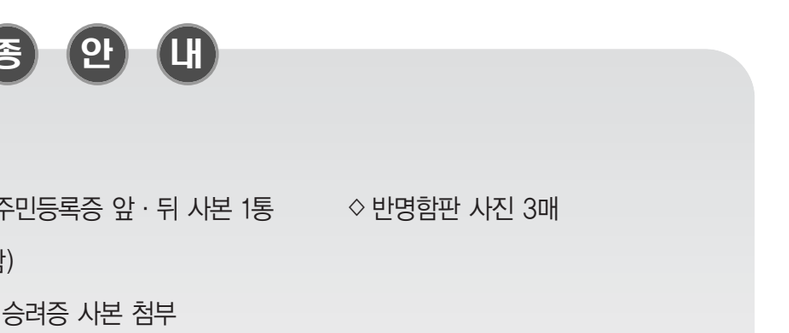
인도 남서부 카르나타카주(州) 드레풍 로젤링 사원 출신인 해당 승려들은 '신비한 티베트 예술'이라는 이름아래 세계 전역을 순례여행하며 사진처럼 정교한 모래 예술을 보여주고 있다.

신성한 성역에 부처와 보살을 배치해 우주의 진리를 도형화한 '만다라'를 뜻하는 해당 예술작품은 수백만 개의 고운 컬러모래로 약 30시간에 걸쳐 제작된 것이다. 조그만 금속 막대로 모래를 조절해 그려내는 해당 과정은 호흡 하나, 자세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숨결 한 번에 작품이 훼손될 수 있어 재채기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는 물론 불교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리처드 기어가 극찬하기도 한 해당 모래 예술은 고도의 집중력과 인내가 필요로 한 만큼 기술을 습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해당 승려단체의 대변인은 "아티스트 자격을 갖춘 승려의 엄격한 지도로 모래 예술 교육이 시작된다"며 "정확한 몸자세와 호흡을 하나하나 모두 배워야하며 안정된 마음과 상호 이해가 수반 되어야 진정한 모래 예술이 완성될 수 있다"고 전한다. 또한 그는 "열정과 헌신은 물론 예술의 의미를 아는 것이 첫 번째다. 그 다음부터는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인도 승려들이 섬세한 집중력으로 빚어낸 놀라운 '모래 예술 작품'의 생생한 모습을 4월 30일(현지시간) 소개했다.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DWKS-108
DWKS-3000
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 선 간 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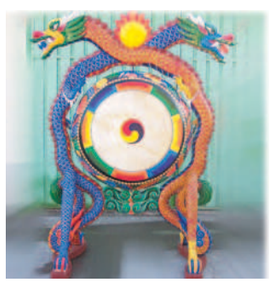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부모님 효도 선물로 강력추천!!!
건강과 사랑을 함께선물하세요.

함양군 HAM YANG GUN



보리빕과 약재 부산물, 다슬기 껍질을 유황과
함께 배합하여 먹여 키운 유황오리
100ml*90팩 = 449,000원



지리산과 덕유산일대의 자연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80ml*60팩(1박스) = 109,000원



지리산자락의 헛개줄기와 잎, 열매를 넣고
천연지하암반수로 진하게 달였습니다.
100ml*60팩 = 89,000원

5월 어버이달 특별 이벤트
"파격 판매행사"

★결제계좌: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카드결제시 홈페이지 방문
http://shop.7-star.net
(네이버,다음에서 칠성상회 검색)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는 (주)홍국농산
- 판매처:칠성상회 (02-879-2007)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만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며,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바로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청색, 홍색)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구 입 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흘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사라에 비치는 관세음보살 '눈길'

강인녕의 '은혜를 그리다' 전

"불화는 아무래도 불교신자라 해도 집에 두기가 쉽지 않아요. 벽에 건다는 느낌보다는 모신다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걸 수 있는 불화로 표현을 해봤어요. 나무에 검은 칠을 해서 이미지를 단순화한 그림으로 새로운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삼청동 스페이스선+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6일~19일 강인녕의 '은혜를 그리다' 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 강 작가는 나무판을 이용한 달라이 라마, 승무, 은혜 등 회화 불화를 재해석한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특히 고려 회화에서 볼 수 있는 관세음보살의 흰색 사라를 통해 대상을 감싸는 듯한 표현법은 신비롭고도 독특한 이미지를 관람객들에게 선사할 것이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감싸안아주는 보살이잖아요. 불교회화에서 가장 많이 그려지는 대상이기도 하고요. 예배를 하고 승무를 추고 일상생활을 보내는 도중에 사라가 내려와 그림을 덮어 감싸는 이미지는 관세음보살의 보살핌을 받고 의지하는 동시에 스스로가 관세음보살임을 의미합니다."

불교미술을 전공하고 타투이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불교미술과 타투 작업물도 함께 전시한다. "타투는 또 하나의 예술로 인정을 받는 기로에 서있는 문화입니다. 종교예술처럼 고귀하여 멀리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저급하여 멀리하는 것이 타투입니다.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해내기 위한 타투작업들도 함께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타투는 혐오스러운 것이 아닌 나의 일부이며, 고통을 감수하며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기도합니다. 이것이 다짐이 되어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수행입니다."

또한 불교미술을 이용한 엽서와 스티커 커스텀 디자인한 모자와 티셔츠 등을 판매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을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강인녕 작가는 동국대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했고 2011년 타투 아티스트로 입문했다. 스페이스 선 한-독 불교미술 순회 기획전 참여, 2013 코리아 타투 페스티발에 참여한 바 있다. (02)732-0732

정혜숙 기자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6일~19일 강인녕의 '은혜를 그리다'전이 삼청동 스페이스선+에서 열린다. 작품은 왼쪽부터 '승무', '은혜'

최병용 작가 '인도 성지순례 기념전'

5월9일까지 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조계사, 인도성지순례 기념 그림 전시회'가 5월 9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열린다. 최병용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을 비롯한 84명 순례단의 성지순례 현장과 표정을 기록한 그림을 전시한다.

조계사 성지순례단과 함께한 최 작가는 불교 8대 성지와 엘로라 아잔타 석굴 등에서 만난 순례객들의 얼굴과 그 현장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불교문화와 상식〉〈팔만대장경에 숨어있는 참 향기로운 이야기〉 등을 출판하며 만화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병용 작가는 현장 판매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은 이웃돕기에 사용할 예정이다. (02)768-8600



최병용 작가의 '인도 성지 순례전' 작품

정혜숙 기자

성지·수행·음성공양… 부처님 만난다

2014년 봉축 프로그램 다채

201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수행음식의 전파를 알아보는 KBS다큐공감의 '부처님의 밥상'에서부터 BTN의 '한국의 삼보종찰', 불교방송은 특집생방송 '오늘은 부처님오신날, EBS '천년의 신화, 보로부두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더해줄 것이다.

KBS1TV '다큐공감'은 부처님오신날 기획 2부작 '부처의 밥상'을 마련했다. '부처의 밥상'은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의 전파경로에 따라, 수행음식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최고의 밥상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아시아 불교문화와 수행음식의 변천을 통한 부처의 메시지를 담아내고자 한다. '모든 음식은 약'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인도와 스리랑카 미얀마 등의 수행음식을 살펴본다. 5월 6일 10시 50분 방송.

BTN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한국의 삼보종찰'은 불보종찰 통도사, 법보종찰 해인사, 승보종찰 송광사는 불법승 세 가지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한국의 삼보종찰을 조명한다. 방송은 5월 6일 오전 7시 30분, 5월 7일 오후 1시 · 9일 오후 8시. 이밖에도 '4형제 스님' 한집안에서 출가한 4형제 명본, 법성, 금강, 붓다빠라스님의 4형제 출가이야기를 살펴본다. 5월 6일 9시 40분 · 7일 12시 30분.

불교 8대 성지를 돌며 정진기도를 올리는 인도성지순례기 '홍법사 천축국전'은 5월 5일 오후 5시 · 6일 오후 1시 · 8일 오전 11시 30분. 중국에 남아 있는 선불교의 자취와 풍광을 체험해보는 '선(禪)의 원류를 찾아서'는 5월 6일 9시 30분 · 7일 오후 7시 30분 · 9일 오후 12시 30분.

불교방송은 특집생방송 '오늘은 부처님오신날', '박범훈의 뭇소리 찬불가' '봉축법요식 실황중계' '인류의 스승, 붓다의 탄생' 등을 방송한다. 부처님오신날 특집 생방송 '오늘은 부처님 오신날'은 4부작으로 구성 5월 6일 오후 12시 10분부터 3시 45분까지 방송된다.

전국 주요사찰을 연결해 부처님오신날 모습을 살펴보고 세월호 침몰사고로 침체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국민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올해 불자대상을 받은 탤런트 선우용녀 씨 등 불자 연예인들을 연결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는 소감을 들어본다.

KBS1 '다큐공감-부처의 밥상'
BTN-한국의 삼보종찰
불교방송-생방송 '오늘은…'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첫날부터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진도 향적사 법일 스님을 비롯 비구니회 임대 스님들과 전화연결을 통해 현장 소식과 더불어 현지의 부처님오신날 소식도 들어본다.

'인류의 스승, 붓다의 탄생'은 5월 6일 오전 9시 방송된다. 다양한 찬불가와 함께,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신 부처님의 탄생을 되짚어 보면서 관불의식의 의미와 탄생게, 등을 밝히는 연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본다.

EBS는 쓰리디렉터채널(주)가 제작한 '천년의 신화, 보로부두르'를 5월 6일 오후 7시50분 방송한다.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와 전파진흥협회의 콘텐츠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천년의 신화, 보로부두르'는 과거 인도네시아의 불교국가 사일렌드라 왕국에 의해 8세기경 조성된 세계 최대의 불교유적지를 조명했다. '산위에 절'이라는 뜻으로 단일건축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세기의 불가사의로 손꼽히는 보로부두르, 신심이 만들어 낸 불교유적의 결정체를 보여준다.



201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EBS와 BTN에서 방송되는 '천년의 신화, 보로부두르'.



KBS1TV '다큐공감' '부처의 밥상'



BTN 인도성지순례기 '홍법사 천축국전'

방송사별 '부처님오신날' 특집 프로그램

KBS1TV	5월 6일	다큐공감 부처의 밥상	오후 10시 50분
	5월 6일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불교음악페스티벌	시간미정
EBS	5월 6일	천년의 신화, 보로부두르	7시 50분
		석가탄신일 특집 영화 '만다라'	밤 12시 10분
BTN	5월7일	한국의 삼보종찰	오후 1시
	5월 6일	4형제스님	오후 8시 40분
	5월 6일	홍법사 천축국전	오후 1시
	5월 7일	선(禪)의 원류를 찾아서 오후	오후 7시 30분
	5월 7일	자비와 광명을 온누리에-대풍스님	오후 3시
	5월 6일	봉축법요식	오전 10시
	5월 7일	천년의 신화 보로부두르	오후 7시 30분
불교방송	5월 6일	무명을 밝히고	오후 5시 5분
	5월 6일	인류의 스승, 붓다의 탄생	오전 9시
	5월 6일	봉축 법요식	오전 10시
	5월 6일	오늘은 부처님 오신날 (1-4부))	오후 12시 10분
	5월 6일	박범훈의 뭇소리 찬불가 1-2부	오후 7시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5월에 보는 연극 '푸르른 날에'

남산예술센터서 6월 8일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 이후의 이야기를 여산 스님의 시선으로 다룬 연극 '푸르른 날에'가 6월 8일까지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에서 공연된다.

정경진 작, 고선웅 각색 · 연출의 '푸르른 날에'는 2011년 남산예술센터에서의 초연 당시 평단과 관객으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그해 '대한민국 연극대상', '올해의 연극 베스트3' 등 각종 연극상을 휩쓴 바 있다. 이후 2012년과 2013년에 걸친 재공연에서도 연속 전석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운 이 작품은 '5월이면 꼭 봐야 하는 연극'으로 인식될 정도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2014년에도 어김없이 5월 무대에 다시 서게 되었다.

'푸르른 날에'가 관객들의 각별한 애정을 받아온 데는 단순히 '광주의 아픔'을 토로하는 형식이 아니라 '그날' 이후 살아남은 자들의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을 따뜻하게 그려내면서 용서와 화해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푸르른 날에'는 제3회 차범석희곡상 수상작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속에서 꽃핀 남녀의 사랑과 그 후 30여 년의 인생 역정을 구도(求道)와 다도(茶道)의 정신으로 녹여냈다. 이 작품은 '우리 시대의 이야기꾼'이라는 평가를 받는 연출가 고선웅(46)의 각색을 거쳐 연극 '푸르른 날에'로 새롭게 태어났다. 서울 공연 직후인 6월 중순 극의 배경인 광주에서도 공연도 이어진다. 남산예술센터, 신시컴퍼니, 인터파크 예매사이트를 통해 예매 가능하며, 전석 2만5천원이며 청소년 및 대학생은 1만8천원이다. (02)758-2150

정혜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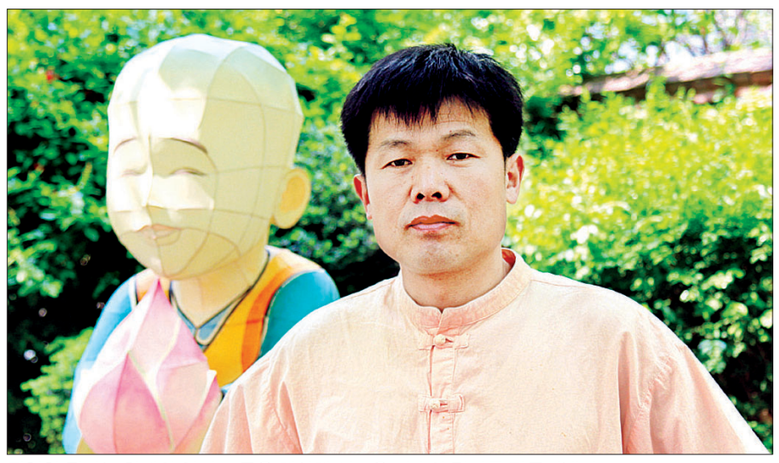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 이후의 이야기를 여산 스님의 시선으로 본 연극 '푸르른 날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 이후의 이야기다.



문화人

“빛의 예술 전통燈으로 시대 문화 담아내요”

전영일 작가(전영일공방 대표)


전영일 작가는 현대의 언어로 등을 해석해 새로운 예술의 경지를 만들어냈다.

“등(燈)은 시대와 함께하는 예술입니다.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고 또 동시대의 문화를 담아내는 예술이 등이죠. 그래서 늘 시대와 맞는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해요. 일반인들이 수박등 몇십개 만들 때 작가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거죠. 그래야 등문화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등예술이 고정화 되고 정형화 되어 있다면 등문화도 정체되고 말죠.”

전영일 작가는 단절되었던 전통의 등문화를 개발 · 발전시켜온 장본인이다. 정체된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대의 언어로 등을 해석해 새로운 예술의 경지를 만들어낸 작가이자 전영일 공방의 대표로 매년 연등회 연등축제 자문, 전통등전시회와 연등회 전통등 전승 강습회를 주관하며 등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는 전 작가를 만나봤다.

전영일 작가가 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군대를 다녀온 직후인 1998년이다. 홍대 조소과를 다니던 그는 동국대 미대 친구들의 제안을 받고 등만들기를 시작했다.

등은 만드는 이의 소망을 담았고 역동적이며 익살과 재미가 넘치는 민중들의 예술품이었다. 이런 등의 속성은 학생운동을 했던 그의 성향과도 잘 맞았다. “등 예술은 전통적 민중적 요소를 갖췄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등은 살아 있는 예술이고 시대를 반영하는 예술이죠. 또한 전통 등의 조형적 특징은 현대적 조형언어로 표현하기에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도전해볼 만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등문화에 대한 저변도 확대되어 있지 않았고 등제작 요령도 없었다. 명맥이 끊어진 등문화를 복원하고 또다른 예술적 차원으로 등을 끌어올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경제적인 것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다. 등작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상업조각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보충해야 했다. 하지만 열심히 민속자료를 찾아 다녔고 스님들의 조언을 듣고 외국 등을 참고해 등을 만들어 나갔다. 이런 그의 성과들이 한 해 두해 쌓이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등문화도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2008년부터는 광화문 점등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장엄등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그는 미륵사지9층석탑, 성덕대왕신종, 사사자3층석탑, 석가탑 등의 장엄등으로 부처님오신날을 알리고 세상을 밝혔다.

전통등 복원 · 예술로 승화
등강습으로 등문화 대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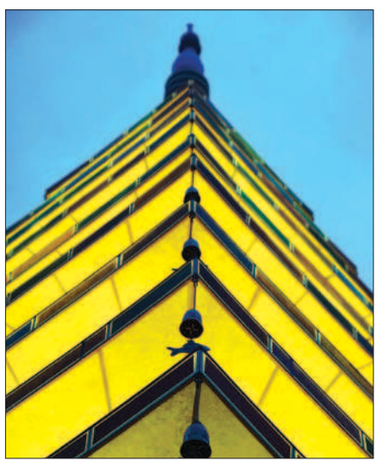
“장엄등 같은 경우는 6개월 전부터 준비해야돼요. 15명의 인원이 참여해야하고 전지 6~7백장 정도가 들어가며 볼트구멍 1500여개를 맞춰야 돼요. 파주 작업실에서 광화문까지 등을 옮기려면 13대의 트럭과 크레인 2대가 움직여야 하는 대형작업이죠.”

전 작가가 창작 다음으로 중요시 여기는 작업은 바로 등강습이다. 등문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등을 현재의 문화로 즐길 수 있는 대중이 필요한 것이다. “제가 운영하는 전영일 공방에서는 전통등 제작에 대한 자료를 꾸준히 배포하고 등강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천명이 넘는 회원들이 등공예를 배우고 있습니다. 등은 학문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분명 보존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공예를 알려나가고 새로운 작가를 발굴해 나가는 일에도 앞으로도 계속 매진해나갈 생각입니다. 각 사찰이나 성보박물관에서도 전통등을 연구하고 보존할 수 있는 연구원 확보와 등강습 프로그램을 꾸준히 보급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전 작가는 앞으로 유럽에 등문화를 알리는 일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겨울 즈음 개인전을 통해 등문화의 새로운 예술세계를 보여줄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빛이 머물다 III 빛이 머물다 II –2(조계종 총무원 소장)


광화문에 설치된 미륵사지9층석탑

천년의 승지에 한 가닥 오솔길이여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⑲ 월정사 下




월정사로 들어가는 천년의 숲길. 조선의 선비들이 사랑하여 그들의 시에 자주 등장했다.

아름 난 절과 길의 조화

조선 후기의 ‘강화학파’를 계승한 학자 이긍익(李肯翊 1736~1806)은 고증(考證)을 역사의 생명으로 여겼다. 그의 대표적인 저술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도 객관성과 공정성 등을 중시하며 지은 책이다. 〈연려실기술〉 별집 제16권 ‘산천의 형승’ 부분에 오대산을 소개하는 대목이 있다.

‘강릉부의 서쪽 1백 40리의 거리에 있다. 동쪽에는 만월봉(滿月峯), 남쪽에는 기린봉(麒麟峯), 서쪽에는 장령봉(長嶺峯), 북쪽에는 상왕봉(象王峯), 중앙에는 지로봉(智 峯) 등 다섯 봉우리가 둘러섰는데 각 봉의 대(臺)마다 각각 한 암자가 있다. 산 아래에 월정사(月精寺)가 있고 절 곁에는 사고(史庫)가 있다. 또 금강연이라는 못이 있는데 사면이 모두 반석이며, 폭포가 10척(尺)을 흘러 굽이쳐 돌아서 못이 되었다. 서대(西臺) 밑에 통을 댄 수함(水檻)이 있는데 곧게 솟아오르는 샘물은 그 빛과 맛이 보통 물과 다르다. 이것이 서쪽으로 흘러서 한강의 원류가 된다.’

오늘날의 오대산과 다를 것이 없는 설명이다. 중앙의 지로봉은 오늘날의 비로봉(1537)이다.

다만 서대 밑의 ‘우통수’가 한강의 발원이라는 설은 수그러지고 태백 삼수령 너머 검룡소가 발원이라는 설이 힘을 얻고 있다. 아무튼, 오대산은 산세가 웅장하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문수신앙의 성지로서 예나 지금이나 매우 사랑받는 산임에 틀림없다.

월정사로 들어가는 전나무 숲길을 요즘 ‘천년의 숲길’이라 부른다. 조선 중기에도 그 숲길은 아주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길이었을 것이다. 선비들은 월정사를 시로 읊으면서 이 길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름 난 절과 명품 길의 조화는 시인들에게 더 없는 흥취로 다가 왔을 것이다.

송증음삼일경통(松 憎陰森一逕通)
입문초견전비흥(入門初見殿扉紅)
천층보탑회비조(千層寶塔回飛鳥)
팔각신령향반공(八角神鈴響半空)
법질만전왕자적(法帙漫傳王子迹)
거승나식세존공(居僧那識世尊功)
종명홀작문수회(鍾鳴忽作文殊會)
옥좌향연만학풍(玉座香烟萬壑風)

솔 그늘 우거진 속 길 한 가닥 뚫렸는데
문 앞을 당도하자 홍살문이 보이누나.
일천 층 보탑에는 나는 새가 맴돌고
팔각의 방울 소리 반공에 메아리치네.
불경은 부질없이 왕자의 자취만 전해라
여기 사는 승려들 세존 공덕 어찌 알리.
종 울리자 갑자기 문수회가 시작되니
옥좌의 향 연기에 만 골짝의 바람일레.

이 시의 제목은 알 수 없다. 지은이는 박광우(朴光佑 1495~1545)로 을사사화 때 화를 입어 젊은 나이에 죽은 선비다. 이 시는 이익(李瀷)의 〈성호사설(星湖僿說)〉 제30권 ‘시문문(詩文門)’에 소개되고 있다.

이익은 시를 소개하며 “사간(司諫) 박광우는 호가 잠소당(潛昭堂)인데, 바로 을사(乙巳)의 유직(遺直)이었다. 그가 강릉(江陵) 월정사(月靜寺)에 제(題)한 시는 다음과 같다”라고 전제했다. 그리고 시의 말미에 “이로써도 넉넉히 그 기개를 엿볼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익이 ‘기개를 엿볼 수 있다’고 했듯이 박광우는 월정사를 매우 장엄하게 읊고 있다. 시는 숲길과 일주문으로 펼쳐져 팔각구층석탑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옮아가더니 시각과 청각을 두루 동원해 월정사 안쪽의 경치를 그려내고 있다. 그러면서 은연중 ‘불경이 왕자의 자취만 전한다’고 하고 ‘승려들이 세존의 공덕을 어찌 알겠느냐’며 절에 부합할 수 없는 자신의 심정을 보여준다. 왕자는 석가모니부처님이 카필라국의 왕자로 태어났음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마지막에 반전을 보인다. 법회가 시작되니 향연기가 만 골짝의 바람이라는 표현은 매우 그윽하다. 문수회라는 것은 월정사가 속한 오대산이 문수신앙의 성지임을 강조한 것이고 옥좌는 부처님을 모신 상단이다. 그리고 거기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법향(法香)이니 부처님의 가르침일 것이다. 그 향기가 만 골짝의 바람이 되어 중생계로 퍼져 나간다는 것이다.

맑고 맑은 귀의처

숲길을 통해 들어간 월정사의 풍경과 부처님의 공덕이 산과 절만큼이나 장엄하게 묘사된 시 한 수를 더 보자.

보지천년승(寶地千年勝)
잠통일경유(潛通一徑幽)
거승경세월(居僧輕歲月)
과객석엄류(過客惜淹留)
비조피령탑(飛鳥避靈塔)
신룡장고추(神龍藏古湫)
오대지불격(五臺知不隔)
타일득중유(他日得重遊)

천년의 숭지라 보배로운 이곳
한 가닥 오솔길 그윽이 뚫렸어라.
살고 있는 스님은 세월을 가벼이 여기나
지나는 손은 머무는 시간 아까워라.
나는 새는 영험한 탑을 피해 가고
신령한 용은 옛 못에 잠겨 있도다.
오대산이 멀지 않음을 알겠나니
훗날 다시 와서 노닐 수 있으리.

이 시는 조선 중기의 문신 이행(李荇 1478~1534)의 문집 〈용재집(容齋集)〉 제2권에 ‘월정사’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행은 〈성종실록〉의 편찬과 〈동국여지승람〉의 신증(新增)에 동참했으며 요즘의 국립대학 교수부장에 해당하는 성균관대사성을 거쳐 대사헌에 이르렀다.

이행 역시 ‘한 가닥 오솔길’로 월정사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월정사 풍경 속에서 시간이 흐르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으며 탑과 연못을 매개로하여 절의 엄숙함을 찬탄하고 훗날을 기약하는 것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 처음에는 월정사를 잔잔하게 묘사했으나 탑을 피해 날아가는 새와 옛 못에 잠겨 있다는 신령한 용을 동원하여 시의 흐름을 전환시키는 힘이 대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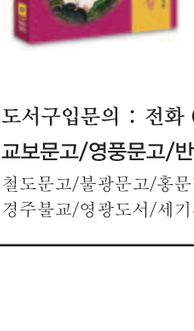
천년의 숲길을 따라가면 천년의 고찰이 있고 거기 무량한 시간을 따라 전해 온 진리의 향기가 있으니, 조선의 선비들에게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나 월정사는 맑고 맑은 귀의처임에 틀림없다.



천비록 天秘錄
(하늘·땅·사람의 비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 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땅·사람의 비밀 天秘錄
값 15,000원



지비록 地秘錄
(수도사가 쓴 한인·한웅·단군 이야기)
대한민족의 잃어버린 역사와
뿌리를 찾기 바라는 마음으로
수도사가 쓴 대한민족의 고대
7,000여 년 역사이야기
값 15,000원



인비록 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웹진 인비록 http://www.ddblog.co.kr
값 15,000원

도서구입문의 : 전화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예스24/
철도문고/불광문고/홍문당/보문불교/중앙출판/세원출판/처용서림
경주불교/영광도서/세기서림/홍지서림/탐라도서 등 절찬리 판매중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물어 알게됩니다



天易六氣經
궁물
궁금하면 물어보라

◆천역육기경은 우주삼원에서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답답한 삶의 돌파구!

운기 · 사업 · 소원 · 결혼 · 매매 · 대인 ·
실물 · 가출인 · 출산 · 소송 · 여행 · 취직 ·
시험 · 이사 · 질병 · 지능 (직업)

이들을 알고자 하시면 육기주를 두 번 굴리세요.
문제에 답이 풀립니다!
누구나 쉽게
궁물할 수 있습니다.



“책” 궁물은 영원한 동반서!!!

주문처 : 1588-5654. 010-3743-9943
정가 10만원 / 계좌 : 농협 195-02-157774 박규화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며, 주문시 즉시 배송하여 드립니다.

목각단청운각
(간편조립)
법당장엄
5층 목탑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 3자 : 1판 ▣ 2자 : 4판 ▣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 (5m, 10cm), 가격 : 90만원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 가로, 세로 20cm
가격 : 35만원

● 크 기 : 높이 120cm / 하단 가로 45cm
보급가 : 900,000원 (배송비 포함)
*내부 조명등 있습니다.

주문 문의
고전 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5599-316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02-0519-1995-01 (예금주 : 장돈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23 ~ 4/2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삶은 환타지다	월호	민족사
3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4	비울수록 가득하네	정목	쌤앤파커스
5	선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향적	조계종출판사
6	마음의 정원을 거닐다	지안	불광출판사
7	흠모(우리 시대 수행자 스물한 분의 스승 이야기)	유철주	민족사
8	깨달음 혁명	김종흥	침묵의향기
9	불교의 모든 것	곽철환	행성비
10	대방광불화엄경 강설1(세주묘엄품1)	무비	담앤북스



1200년 우리 차(東茶)의 진경, 〈동다송〉

향기로운 동다여 깨달음의 환희라네

원학 지음 | 김영사 펴냄 | 1만8천원



"한 잔의 차를 마시는 것은 몸과 마음을 맑히는 수행의 한 방법이요 깨달음의 환희와 다름이 없다."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사진〉이 초의 선사가 지은 조선의 다경 〈동다송〉을 우리말로 옮기고 해설한 〈향기로운 동다여 깨달음의 환희라네〉를 펴냈다.

〈동다송〉은 조선 후기의 초의(草衣 1786~1866)선사가 1837년 봄에 정조의 부마 홍해거의 부탁을 받고 지은 것으로, 차의 기원과 차나무의 생김새, 차의 효능과 제다법, 우리나라 차(동다)의 우월성, 차에 담긴 선의 정신까지 말하고 있는데, 형식은 7언 고시체(古詩體) 시집(詩集)으로 되어 있다.

〈동다송〉의 원래 제목은 〈동다행(東茶行)〉이었다. 초의 스님의 글을 모은 〈일지암문집〉 권2에 그 제목이 '동다송'이 아니라 '동다행'으로 쓰여 있다. 초의 선사의 〈동다송〉 원본은 전해지지 않고 여러 필사본이 전해오는데 필사의 과정에서 〈동다송〉으로 배포된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은 악부에서 변화된 한시의 한 종류로 음악에 맞춰 부를 수 있는 시가를 말하며, '송'은 시의 6가지 문체 중의 하나를 말하는 것으로 그 의미에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동다송〉은 모두 31개의 본문과 그에 따른 주석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1개의 본문은 송이나 절로 나누기도 하고 17개 송으로 나누기도 한다. 책은 17송으로 되어 있다.

동다(東茶)는 동쪽의 차, 즉 우리나라의 차라는 뜻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방위를 말할 때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가 동쪽에 속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다란 이름을 붙인 것이다. 하지만 초의선사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녹차를 굳이 '동다'라 이름 붙여 부른 데는 다른 까닭이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생산되는 토산차와 녹차가 서로 다름을 구별하기 위해서였다.



초의의 다경 〈동다송〉 해설서
'차'의 과정=수행의 과정
"한글세대와 함께 보고 싶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녹차인 동다에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녹차와 달리 차별화된 향과 맛, 즉 독특한 향미가 담겨 있음을 전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초의 선사는 우리나라의 동다를 단순히 '마시는' 차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수행자가 수행의 한 방법으로 차를 마시고 차를 통해서 인격과 정신을 수양하는 것이므로 동다를 통해 인간성의 본질인 청정한 품성을 찾는 데 주목하고 있음을 강조하려 했다.

따라서 초의 선사는 〈동다송〉에서 다선일미(茶禪一味)를 언급하며 수행과 다도가 둘이 아님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 초의선사가 '동쪽나라(조선)의 차를 칭송하는 노래', 즉〈동다송〉을 지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셈이다.

"차문화는 이제 현대인의 생활과 나누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지인들과 정담을 나눌 때나 식사를 마친 후에 차 한잔을 마시는 모습은 매우 자연스러운 풍경이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우리가 마시는 차가 대부분 커피류라는 점이다. 한때 우리 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잠시나마 녹차의 대중화 바람이 일기도 했으나, 지금은 다시 커피의 인기에 밀려나고 말았다."

저자 원학 스님은 1980년대, 초의선사가 살았던 전남 해남 대흥사의 부주지 소임을 보면서 〈동다송〉을 접했으며, 언젠가 꼭 번역하여 한글세대도 함께 볼 수 있는 책으로 출간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다. 원학 스님은 "차가 단지 기호식품이나 건강음료 정도로 여겨지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며 "한 잔의 차를 정성껏 달이고 마시는 일에 또 하나의 진리, 또 하나의 깨달음이 담겨 있음을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동다송〉에서 초의 선사는 동다의 품격을 노래하면서 여러 곳에서 차생활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찻잎을 따 덖고 우리고 마시는 전 과정을 수행자의 마음으로 임해야 함을 일깨우고 있다.

초의 선사는 녹차(동다)를 만들어 마시는 과정을 인간이 저마다 추구하는 품성의 개발과 덕성을 닦는 수행의 한 방법으로 여겼다. 흔히 찻물은 청결한 수행자의 몸에 비유되고, 차의 향기, 즉 차향은 수행자의 따스한 자비심에 비유된다. 그리고 차맛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청정심에 비유되기도 한다. 불가에서는 청정한 수행을 통해 평범한 인간의 심성이 순수하고 향기롭게 변화한다고 믿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다도를 통해 스스로의 심성을 맑고 깊게, 나아가 향기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초의 선사는 차와 선이 하나라는 다선일미의 경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초의 선사는 차를 통해 대자연의 생명을 이해하고 함께 호흡하는 삶이 진정한 다도라 말하고 있다. 내면에 깨달음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면 그 누구나 찻물과 차향, 그리고 차맛이라는 청정한 기운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초의선사의 〈동다송〉은 차를 인간의 정신을 맑게 하고 육체를 편안하게 하여 지혜로움을 드러내는 수행의 한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맑은 시어로 발현된 것이 〈동다송〉이다.

"하늘이 점지한 아름다운 차나무여!"

초의 선사의 〈동다송〉은 첫 장에서 차나무의 탄생이 우연이 아니며 우주의 창조주인 청정법신 비로자불께서 점지하시어 귤나무의 덕성에 짝지어준 것임을 노래하고 있다. 차나무를 찬탄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동다송〉에는 초의 선사가 이룩한 1200년 우리 차의 진경이 들어 있으며, 불교 수행자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본 다성 초의 선사의 학문적 깊이와 차에 대한 열정이 담겨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현상학이 '유식'에 주목하다

유식사상과 현상학

하루히데 시바 지음 | 박인성 옮김
도서출판b | 3만원



유식학, 현상학, 인지과학, 정신병리학 등을 비교론적 관점에서 아우르려는 학술총서의 두 번째 책으로, 유식사상과 현상학을 비교사상의 관점에서 대비하고 그것들의 핵심을 이루는 철학적 통찰을 추출함으로써, 양자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찾고자 했다. 현상학적 사유의 길을 끝까지 걷기 위해서 유식 사상의 철학적 의의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유식사상의 여러 논쟁들의 의의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현상학적 분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중의 내적 필연성에 기초하는 비교사상적 작업이다.

독일의 현상학파 철학자 후설은 자신의 현상학이 철저한 초월론적 철학이라고 자인하면서, 객관주의적 전제에 아무런 자각 없이 의존하고 있는 실증주의적인 과학적 이성에 대해 근원적인 비판을 시도했다. 한편, 유식사상은 우리의 언설에 의해 세워진 세계를 가설된 세계, 곧 '변계소집성'이라 해서 이를 척결하고, 그 미망이 의지해 온 곳을 의지적인 '식전변(識轉變)'의 '사(事)'라 하며 이를 탐색했다. 유식학이 놓여 있었던 기본적 맥락은, 기본적으로 중관학파의 '공(空)'을 계승하고, 그러면서 아비달마의 치밀한 경험분석을 그 실체론적 전제를 비판하면서 수용하고, 거기에 그 경험의 근저를 돌파하는 '전의(轉依)'를 통해 '공'의 확증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런 점에서 유식학과 현상학은 시대로 보나 문제로 보나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각하지 않은 채 대상인식을 소박하게 수행하는 우리의 지(知)의 구조에 투철하면서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한 쪽은 가설(假說)의 소의(所依)인 식(識)의 인연생기를 천명한다는 점에서 양자 간에는 평행관계라고 할 만한 공통성이 인정된다. 저자는 이 평행관계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의 근저에서 항상 언제나 기능하고 있는 심층차원의 구조를 해명하고자 하는 하나의 보편적 과제를 향해서 양자가 얼마나 철저히 걸음을 내딛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저자는 서문에서 두 가지 집필의 의도를 밝히고 있다. 그 첫 번째는, 후설이 직면했던 초월론적 반성의 한계점에서 생기하고 있는 사건의 사상(事象) 구조를 유식사상의 아뢰야식 연기론과 3성설의 관계 속에서 찾아내고자 하는 것에 있다. 그렇다고 저자가 후설의 초월론적 입장과 유식론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아니다. 양자 간에는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엄연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반성을 촉구하면서도 대상성의 논리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는 반성에 의해서는 파악될 수 없는, 비대상적인 차원에 이르는 사유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유식론이 문제로 삼았던 사상(事象)을 발굴하는 일은 현대의 '사유의 사태'로 보아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유식사상의 연구 분야에서, 전통적인 법상교학의 이름으로 전승되어 온 호법과 현장의 사상과, 새롭게 발견된 범문원전에 대한 실증적 문헌연구에 기초하는 견해 사이에 다양한 해석의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 그중에는 '식전변(識轉變)'이나 '3성性'의 해석 등, 각각의 입장이 갖는 사상의 철학적 배경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할 많은 논점들이 있다. 물론 필자로서는 이 논점들에 관해 문헌학적 고증을 행할 수는 없지만, 현상학적 관점에서 이 논점들이 갖는 사상적 의의에 대해서 설사 불충분하더라도 철학적으로 검토를 시행하는 일은 전혀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자는 여기에 이 책의 두 번째 동기가 있다고 말한다. **박재완 기자**

종이접기 하며 '불교' 배운다

불교종이접기

닉 로빈슨 지음 | 김지연 옮김 | 담앤북스
1만3천8백원



책은 불교를 소재로 한 국내 첫 번째 종이접기 책으로, 다양한 불교 상징물을 손쉽게 따라 접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종이접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물론,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교에 대한 조언도 수록했으며, 각 작품들마다 불교 관련 이야기들도 소개한다.

종이접기와 불교의 인연에 대해 아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오랫동안 사랑받아 오며 친숙한 공예활동으로 자리 잡은 종이접기지만, 그 뿌리를 거슬러 가면 불교와 마주치게 된다는 사실이 자못 새롭다. 현대적인 종이접기는 일본의 전통 공예인 '오리가미(折り紙)'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 종이접기가 발전한 데에는 불교의 힘이 컸다. 6세기 경 일본에 처음 종이를 들여온 것도 스님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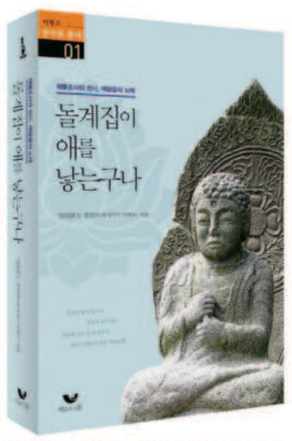

앉아계신 부처님

책에는 15가지 종이접기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법륜(法輪)'과 '불탑(佛塔)' 등은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불교 상징물들이다. 불교 설화 속 동물을 소재로 한 '어리석은 원숭이'나 '지혜로운 개구리', '고결한 코끼리' 등은 저마다의 개성이 넘치는 작품들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하다.

한 장의 종이에는 세상 만물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종이접기로 만들 수 있는 작품은 다양하다. 책에서는 다른 종이접기 교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한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종이로 접은 불교 상징물들이 선사하는 신성함과 평화는 종이접기를 단순히 취미활동을 넘어서 마음 수행의 경지에까지 올려놓는다. 책의 작품들을 접어 나가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각 작품들이 불교의 이야기 또는 교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도 교육이나 신행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다. 책에 소개된 15가지 작품들은 종이접기 기술을 연마하는 것은 물론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가꾸는 데에 훌륭한 도우미가 될 것이다. **박재완 기자**

삼매(三昧)의 채로 걸러진, 뼈를 깎는 수행의 결정체
오도송 · 전법게 · 열반송 · 선문답 통해 참마음 깨닫기



제불조사의 선시, 깨달음의 노래
돌계집이 애를 낳는구나
이계묵 지음 | 신국판 | 무선 | 흑백 | 636쪽 | 28,000원

제1부 과거칠불과 선종 33조사의 전법게, 제2부 고승 · 대덕의 오도송과 수행송, 열반송을 모아 번역하고 해설했다. 제3부는 저자의 견도송(見道頌)을 비롯한 자작(自作) 선시와 선문답들로서 40여년간 참선하면서 그때그때 느끼고 깨달은 바를 노래한 책이다. 해인사 강주를 역임, 수행자들에게 선(禪)과 유식(唯識)을 지도해온 화정 이계묵 노거사의 역작(力作).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우주의 주인공, 걸림없는 대자유인으로 살아가라!
의지함이 없는 도인(無依道人)으로 사는 법
임제록 강설
덕산 역해 | 46판 | 흑백 | 432쪽 | 15,000원

'선어록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임제록은 당나라 때의 고승 임제의현(臨濟義玄)선사의 독특한 가풍(고함지르는 할 · 喝이 대표적)을 보여주는 어록으로서, 실천적인 선(禪)의 진수를 설파한 명저다. 임제스님은 조계종의 선맥(禪脈)이기도 하며 일본 임제종의 연원이기도 하다. 덕산스님은 선(禪)의 세계를 바로 알리고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유와 행복을 구가할 수 있도록 법어와 선문답 등을 쉽게 풀이했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5번째 저서 출간!

신간!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흡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은 현재 총 65권의 저서를 출간하셨으며 포천 서울 부산 광주에서 매월 선사님의 법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바로보인 천부경
1986년 5월 15일, 당시 단군선양회를 이끄시던 안호상 박사님과 김경수 참의원님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즉석에서 현토하고 설했던 것을 1997년이 되어서야 출간하였다.
이 책에는 삼부경인 천부경, 교화경, 치화경이 함께 실려 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혜안의 통찰력으로 밝힌 우리 조상만의 사상, 인류를 선구적으로 이끈 자랑스러운 봉화적 역서, 삼부경!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대원 문재현 선사가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정맥선원 대원 문재현 선사님 법회 문의 031)534-3373 도서출판 바로보인

부처님은 사회적 부조리에 맞선 혁신가



사람의 맨발
한승원 글
불광 펴냄
1만 3800원

"싯다르타 태자는 왜 출가를 했을까가 제일 큰 의문이었습니다. 출가 이유가 사문유관상에 나타나 있지만 이는 신화적 묘사이지요. 그래서 사실적 묘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의미를 소설 속에서 한번 제대로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작가 한승원씨가 붓다의 일대기를 다룬 장편소설 〈사람의 맨발〉을 출간했다. 한승원 작가는 1966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목선〉으로 데뷔한 후 수많은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거목으로 자리매김한 작가이다. 1996년 서울 생활을 접고 고향인 전남 장흥으로 내려와 집필실 '해산토굴(海山土窟)' 에서 창작에 몰두하고 있다. 해산(海山)은 작가 한승원의 호(號)이고, 토굴(土窟)은 집을 낮추는 의미로 그 속에 들어가 창작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에게 소설은 그의 존재 자체라고 말한다.

"이 곳에서 초의, 정약용, 추사 등 주로 역사 인물 소설을 썼습니다. 모 출판사의 부탁으로 원효 스님도 썼습니다. 그리고 역사인물 소설의 마지막 주인공은 처음부터 석가모니 부처님 이었습니다. 이번 책은 5년동안 집필했는데, 불교사상에 젖어 살아온 모든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작가 한승원이 1985년에 발표해 구도소설의 대표작이 된 〈아제아제 바라아제〉는 베스트셀러가 됐을 뿐 아니라 영화로도 만들어져 크게 주목받았다. 그 뒤 작가에게는 영혼의 스승인 석가모니 붓다의 삶을 소설로 써보고 싶은 오랜 염원이 있었다.

이번 책이 바로 그 결실이다. 〈사람의 맨발〉은 한마디로 인류 역사 속에 실존했던 한 인간인 싯다르타를 생생히 그려냈다. 특히 싯다르타가 젊은 시절에 왜 출가 했는가, 그 의미를 소설로 한번 제대로 풀어보고 싶었다고 작가는 술회한다. 작가는 싯다르타를 신격화된 절대적 존재라기보다 모든 인간이 고통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실존적 고뇌를 거듭한 한 인간으로 생동감 있게 형상화했다.

작가는 여행 중에 와불(臥佛)의 맨발을 볼 때마다 붓다의 '맨발' 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곤 했다고 말한다. 길 위에서 태어나 평생토록 온 세상의 길을 맨발로 걸어 다니며 사람의 길에 대해 가르치다가 길 위에서 열반한 싯다르타의 맨발이란 무엇인가? 그에게 싯다르타의 맨발은 슬프면서도 장엄한 출가 정신의 표상이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싯다르타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그래서 작가는 싯다르타의 성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출가에 초점을 맞춰 이 책을 썼다. 출가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스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출가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작가는 말한다. 과거나 현재나 세상은 계급사회이며, 자본주의 계급사회 속에서 출가하는 마음, 즉 출가 정신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작가는 주장한다.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싯다르타의 출가 정신은 구도적 목적 보다는 거의 혁신에 가깝다. "고대 인도에서 계급은 이미 날때부터 정해진 신의 뜻으로 여겨 계급 차별을



부처님 출가과정에 초점 맞춰
출가 목적은 "계급 차별 철폐"
'맨발' 은 장엄한 출가 정신 표상

정당화했는데, 싯다르타는 이 생각에 맞선 것이지요. 그는 계급사회를 철폐하겠다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출가한 것이지요."

저자가 전체 320페이지인 이 소설서 절반이 넘는 200여 페이지를 싯다르타의 출가 전 이야기로 할애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싯다르타는 기원전 5세기경 마가다국의 변방 카필라 성의 태자로 태어난다. 당시 인도는 마가다국이나 코살라국처럼 강력한 전제 군주의 도시국가가 지배했다. 약소국인 카필라 성의 태자인 싯다르타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식의 국력 증강보다는 신분차별의 벽을 철폐하는데 집중한다. 싯다르타는 불가촉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장인인 재정대신 다리나의 벽에 부딪혀 궁궐서 연금까지 당한다.

그렇다면 출가 정신이란 무엇일까? 싯다르타의 출가 동기는 '사문유관(四門遊觀)' 이라는 일화 속에 담겨 전해진다. '사문유관' 이란 싯다르타가 카필라 성의 동서남북 네 성문으로 나가서 동문에서는 늙은이를 보고, 남문에서는 병든 이를, 서문에서는 죽은 사람을, 북문에서는 슈라마나 수행자를 보고 드디어 출가할 뜻을 품었다는 계기를 말해주는 설화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싯다르타의 출가 동기를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계급사회로 인해 핍박받는 사람과 탐욕으로 인해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싯다르타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린다. 우주 자연 속에서 불안한 인간은 스스로 절대자라고 의미를 부여한 신에게 매달린다. 악을 저질러 놓고 신에게 핑계를 댄다. 모든 것을 신의 뜻이라고 말한다. 싯다르타는 그 고독한 인간을 구제하려고 신을 거부하고 출가하게 된다. 싯다르타가 말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란 '내가 지상에서 최고의 존재로서 우뚝 서 있다' 는 오만의 의미가 아니다. 인간인 '나는 오직 내 운명의 짐을 혼자서 지고 가야 하는 절대 고독자' 라는 뜻이다.

이 책에서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는 싯다르타가 출가 전에 방안의 커튼, 책, 촛대와 같은 물건과 마부인 찬타카, 늙은 말 칸타카와 작별하는 모습이다. 저자는 최근 들어 이별을 연습하는 중이라고 고백한다.

저자는 "76년을 살다보니 그동안 지나쳐 버린 들꽃 한 송이 조차 아쉽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싯다르타가 작별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이 소설을 쓴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부처님 회상하고 찬탄하는 것 … 환희심 일으켜 깨달음 길 안내

부처님, 나의 부처님

마트리체타 지음 | 허만항 번역
운주사 펴냄 | 1만원



인도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이자 문학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마트리체타의 〈일백오십찬불송〉은 붓다의 인품을 회상하고 붓다를 찬탄해 노래한 찬불송의 원류로, 읽는 이로 하여금 깊은 환희심과 믿음, 존경심을 불러일으킨다. 이 책은 산스크리트, 한문, 우리말, 영어본을 서로 대조하며 볼 수 있게 엮었다.

붓다가 입멸한 후 사람들은 붓다의 삶과 수행, 그리고 깨달음과 중생 구제를 위한 노력 등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또한 어떤 이들은 그의 인품과 태도, 그리고 심지어 육신의 모습에 감화를 받았다. 붓다의 인품을 회상하고 그를 찬탄해 노래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환희심으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깨달음의 길을 걷게 하는 데 큰 힘을 주었다.

이 책의 저자인 시인 마트리체타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는 서기 1세기경 인도에서 태어났으며, 아리야데와(聖天)에 의해 힌두교에서 불교로 개종했다. 그의 저술은 아름다운 문장으로 인해 인도에서 가장 위대한 시 중의 하나로 평가되었다. 서기 7세기경 인도 전역을 여행한 중국인 순례자 의정은 이 찬불송이 그 아름다움이 천상의 꽃과 같고, 이 시에 담긴 높은 도의는 그 위엄이 높이 솟아오른 산봉우리에 견줄 만하다고 평했다.

인도에서 찬가를 지은 이들은 모두 그를 문학의 아버지라 여기고 그의 문체를 모방하였다. 심지어 아상가와 바수반두도 그를 위대한 불교 시인으로 칭찬하였다. 인도에서 수행승이 된 이들은 모두 오계와 십계를 암송할 수 있게 된 후 바로 마트리체타가 지은 이 찬불송을 배웠다. 이 책은 이처럼 찬불송의 원류가 되는 〈일백오십찬불송〉을 산스크리트와 한문, 영문과 한글 번역을 대조하여 번역한 것이다.

모두 153개의 노래로 된 이 찬불송은 서문격인 기도문을 포함해 모두 13장으로 나누어 붓다의 지혜와 공덕, 자비를 찬탄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 부분 인도문학의 박티 또는 헌신의 장르에 속하지만, 그와 같은 작품서 흔히 보이는 특징인 현란한 문체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참신하다고 평하고 있다. 확실히 산스크리트 원본의 찬가에 익숙한 사람들은 모두 언어와 의미 양면에서 빼어난 아름다움을 인정한다. 인도에서는 이 찬가에 대한 수많은 주석서들이 집필되었고, 당연히 학파를 불문하고 불교의 모든 학파에서 인기가 많았으며, 다른 언어들로 번역되어 불교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붓다를 향한 깊은 헌신과 그의 덕성에 대한 찬탄의 표현인 마트리체타의 찬불송은 다음 세 가지 목적과 이익을 독자들에게 제공해준다.

첫째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준다는 점이다. 붓다의 덕성은 그 자체만으로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만, 그 덕성이 마트리체타의 시와 같이 그렇게 충만히,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될 때 우리의 믿음은 강건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

둘째는 우리로 하여금 행동에 옮기도록 채찍질한다는 점이다. 마트리체타는 붓다의 온화함, 관대함, 인내심, 그리고 그의 다른 덕성을 깊이 찬탄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붓다를 본받도록 이끌고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명상을 돕는 좋은 수단을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특히 붓다 누사띠(佛隨念) 수행이나 붓다의 명호를 부르는 염불 수행에 있어 찬불송에서 발췌한 것을 읽거나, 또는 때로는 그것을 대체하여 사용하면 그 결과가 매우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총 153개 노래로 부처님 찬탄
언어는 물론 의미까지 아름다워

이 책의 체제와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영역자의 서문을 달아 이 찬불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의의를 소개함으로써 찬불송을 실제적인 기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본문에서는 마트리체타가 쓴 범어 원문을 각 송의 첫머리에 명시하고, 아래에 의정의 한역본을 달아 우리말로 번역했다. 한문에는 한글 음을 달아 읽기에 도움을 주었다. 이어 영역본을 직역에 가깝게 따로 우리말로 번역해 한문본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록으로 산티데바의 〈대승집보살학론〉 가운데서 〈일백오십찬불송〉과 내용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을 발췌하여 소개했다.

마트리체타 존자의 〈일백오십찬불송〉 전체에 큰 물줄기로 흐르는 주제는 곧 붓다의 공덕신을 찬탄하는 것인데, 이는 붓다의 공덕신을 흠모하고 찬양하는 염불 수행의 전통을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따라서 〈일백오십찬불송〉의 이 같은 정신이 어떻게 후대에 계승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산티데바 존자가 저술한 〈대승집보살학론〉에서 부처님의 공덕신을 찬탄하는 게송을 소개하는 한편, 이에 대한 현대 학자의 주석을 인용함으로써 간략한 주석 역할을 하게 했다.

김주일 기자

아잔차 스님의 감로 법문 엮어

아잔차의 담마토크

폴 브라이터 지음 | 이명원 옮김
한언 펴냄 | 9800원



"차 스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원에서의 수행이 언제나 합리적인 것만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은 항상 변화했습니다. 때때로 스님은 수행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예로 들어, 그때마다 자신을 격려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타이의 유명한 스님, 아잔 차(1919~1992). 이 책에서는 차 스님으로 표현했다. 이 책은 바로 차 스님의 주옥같은 말씀을 엮었다. 아잔 차 스님은 태국의 존경받는 불교 지도자로 수많은 서양인들에게 삶의 진리를 가르친 위대한 스승이기도 하다.

이 책을 통해 아잔 차는 장황하고 어려운 설교가 아닌,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며 담백하고도 소박하게 인생의 진리를 말하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특유의 잔잔하고 유머러스한 화법으로,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과 명상 등을 수행한다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며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평이한 수행법들도 제시한다.

김주일 기자

인류가 걸어온 '영성의 스펙트럼' 은?

깨달음의 스펙트럼2

김현철 지음 | 시단 펴냄 | 2만원



이 책은 그러한 지혜들을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때문에 이 책을 읽다보면, 나와 세상을 보는 눈이 어느새 달라져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자신의 문제 해결의 도구가 종교이든, 철학이든, 수행과 명상이든 상관없다. 열린 자세로 읽다보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한 안목을 통해 '나의 문제' 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 인류가 걸어온 길을 검토하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궁극의 영성을 향해 인류가 걸어온 '영성의 스펙트럼' 이다. 저자가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혜들은 단 하나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존재는 한 덩어리' 이라는 것이다. 즉 분리된 개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개체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바로 여기서 발원한다. 고대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문제들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들이 여러 가지로 제시되어 왔다.

김주일 기자



붓다의 물리학

6. 몸짓 · 말의 암시물질

“거동 분명히 알아차리며 앎을 실천하라”

마음은 물질을 만드는 네 가지 요인들 중의 하나다. 우리가 웃거나, 울거나, 화를 내거나 너그러울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다르게 보인다. 이것으로 우리는 마음이 물질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몸짓(까야윈냐띠)과 말의 암시(와찌윈냐띠)는 마음에 의해 생기는 두 가지 종류의 물질이다. 이것들은 물질을 만드는 다른 세 요인인 업, 온도, 영양에 의해 생성되지 않는다.

몸짓은 몸의 물질들에 의해 표현되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우리의 유익하거나 해로운 의도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의 의도는 몸이나 팔다리 또는 얼굴의 움직임, 즉 제스처로써 표현될 수 있다. 몸짓으로 표현된 의도는 다른 사람들이나 심지어 동물들도 이해할 수가 있다. 몸짓 그 자체는 물질로 아무 것도 알지를 못한다. 〈담마상가니〉 (636)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몸짓이라는 물질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응시하거나 얼핏 보거나, 팔을 움츠리거나 뻗거나 할 때 일어나는 유익한 과보를 낳는 마음이거나 해로운 과보를 낳는 마음이거나 또는 과보를 낳지 않는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끼리야찟따) 이거나간에 한 생각에 의해 생기는 긴장, 의향, 몸의 긴장한 상태 · 암시, 알게 함, 알게 되는 상태-는 몸짓을 구성하는 물질들입니다.”

마음은 몸의 ‘나누어 얻을 수 없는 8원소 기본물질’ 그룹들을 생성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이며 그 중의 하나인 바람의 성품인 움직임이 의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몸의 동작을 일으키게 하는 특정한 역할을 한다. 〈앗타살리니〉 (1, 1권, 3부, 82, 83)에 몸짓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의사전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암시라고 불린다. 무엇을 전달하는가? 몸의 행위로 어떤 특정한 원함을 전달할 수 있다. 누군가가 잘 보이는 곳에 서서 손과 발을 들고, 머리나 눈썹을 흔들거나 찡끗거리면 그의 손 등의 동작들은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암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마음으로만이 알 수가 있다. 손 등의 위치의 변화에 의해 일어나는 색상의 움직임을 눈으로 봄으로써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암시로써 마음에 반영시켜 마음의 문의 인식작용에 의해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하고 상상하게 된다.”

몸짓으로 표현된 의도가 눈의 문이 아닌 마음의 문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손을 흔드는 것은 마음의 문을 통해 지각되며 이 지각은 색깔을 지각하는 안식에 의해 조건 지어져 있다. 몸짓으로 암시되어진 것의 의미는 그것이 마음에 반영됨으로써 알게 된다. 이와 같이 그것은 마음의 문을 통해서만 인식되어질 수 있다.

〈청정도론〉(14, 61)에 유사한 방법으로 암시가 정의되어 있고 그 작용, 드러남, 그리고 가까운 원인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이것의 작용은 의도를 넌지시 알리는 것이다. 몸 움직임의 원인으로 (수행자의 지혜에) 드러난다. 그것의 가까운 원인은 마음으로부터 생긴 바람의 성품이다.”

가까운 원인에 관해서 보았듯이 바람의 성품 즉, 움직임은 몸짓 즉 제스처에 의해 의도를 암시하는 특정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몸짓 등의 암시가 자신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몸짓은 단지 마음에 의해 생겨난 물질의 한 종류일 뿐이다. 거기에는 제스처로 의사전달을 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제스처를 취할 때 마음과 물질을 인식하고 있나? 그 순간에 유익한 마음(꾸살라찟따)이나 해로운 마음(아꾸살라찟따)이 있나? 대부분의 시간에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인사를 하기 위해 손을 흔들 때, 가까이 오라고 말하기 위해 제스처를 쓸 때, 어떤 것을 긍정할 때 머리를 끄덕이거나 부정할 때 머리를 좌우로 흔들 때 어떤 마음의 유형이 그 몸의 암시를 조건 지우는지 우리는 알아차리는가? 그러한 제스처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한 부분이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것들을 행하는 것으로 여긴다.

아마 우리는 어떤 유형의 마음들이 그들을 조건 지우는지 결코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흉내 내어 남을 조롱하거나 그에 대한 경멸을 표할 때, 해로운 마음이 몸짓을 조건 짓게 된다. 그런 경우에 해로운 마음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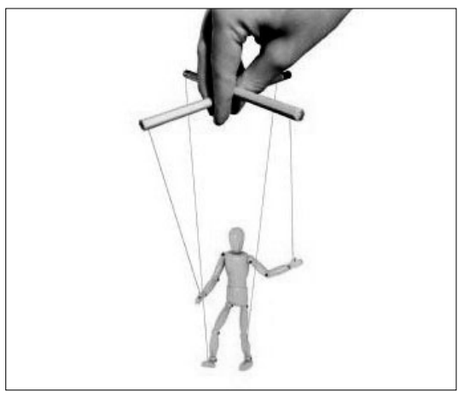
우리는 몸짓이 유익한 마음 보다 해로운 마음에 의해 더 많이 조건 지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의도를 제스처로 표현하는 동안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미묘한 집착이 있을 수 있다. 알아차림이 있으면 우리는 유익한 마음이나 해로운 마음이 제스처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사람들은 몸짓을 통해 불선업도 지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스처로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할 때다. 유익한 마음은 다음과 같은 때 몸짓을 조건으로 일어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환대하면서 팔을 뻗을 때,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려고 손을 내밀 때, 길 모르는 이들에게 길을 가리켜 줄 때, 제스처로 예를 표시할 때 즉, 존경받을만한 사람에게 경의를 표할 때 등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행동들을 이기적인 동기 또는 진지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불선한마음이 몸짓을 조건으로 일어난다. 마음과 마음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물질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제스처로 이야기할 때도 일어나는 어떠한 실재도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불선한 마음은 그 순간 일어나지 못한다.

우리는 몸짓 뿐 아니라 말로도 의사전달을 한다. 말의 암시(와찌윈냐띠)는 마음에 의해 일어나는 물질의 한 종류다. 〈담마상가니〉(2장 637)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언어에 의한 암시는 어떤 물질인가? 선하거나 악하거나 또는 중립적이거나 간에 생각을 표현하는 분명히 발음된 연설, 소리, 발표, 지껄임, 소음, 잡음내기, 언어-이것들이 소위 언어이다. 그것의 암시, 알게 함, 언어에 의해서 알게 하는 상태는 언어에 의한 암시를 구성하는 물질이다.”



> 유익한 마음보다 해로운 마음에 의해 더 많은 몸짓이 조건 지어짐을 알아야
>
> 의도를 제스처로 표현하는 동안에 드러나지 않는 미묘한 집착 있어
>
> 꼭두각시가 영혼 없이 움직여지듯 정신 · 물질도 공허하고 영혼 없음 알아야

어떤 사람의 의도가 말에 의해 암시되어졌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된다. 암시되어진 것의 의미는 그것이 반영되었을 때 알려지게 된다. 그래서 그것은 마음의 문을 통해서 인식되어진다. 말의 암시 그 자체는 아무 것도 알 수가 없다. 그것은 물질이다. 마음은 ‘8원소 기본물질’을 생성하는 요인 중 하나이며, 그들 중 하나인 땅의 성품, 즉 단단함은 말의 암시의 조건을 만드는 하나의 특정한 역할을 한다.

〈청정도론〉(14장, 62)에 의하면, 말의 암시의 작용은 의도를 알리는 것이며, 그것은 말하는 소리를 내는 원인으로 드러나며, 그것의 가까운 원인은 마음에 의해 일어난 땅의 성품이다.몸짓은 마음에 의해 생성된 바람의 성품 즉, 움직임이 가까운 원인인 반면 말의 암시는 마음에 의해 생성된 땅의 성품 즉, 단단함이 가까운 원인이다. 말의 암시가 일어날 때 발음하는 수단들이 되는 말소리를 내기 위한 입술 같은 물질들을 조건으로 해서 발생된다. 물질들은 그들의 고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사바와루빠, ‘사’는 ‘가진with’을 의미하고 ‘바와’는 ‘본성nature’를 의미함)과 그들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가지지 못한 물질(아사바와루빠)로 나누어진다. ‘8원소 기본물질들’은 각각 자신의 고유한 본성과 특징을 가진 사바와루빠들이다.

몸짓과 말의 암시는 마음에 의해 조건 지어지는 물질들이나 이 둘은 그들 자신의 고유한 본성과 특징을 가지지 못한 물질들이다. 〈앗타살리니〉에 표현되었듯이, 그들은 마음에 의해 생성되는 두 가지 종류의 암시의 조건이 되는 사대의 ‘어떤 독특한 변화’다. 그들은 물질들의 성질들이 있으므로 고유한 본성이 없는 물질(아사바와루빠)다.

〈앗타살리니〉(2, 2권, 1부, 3장, 337)에 의하면 그 두 가지 암시가 의존하는 ‘8원소 기본물질들’은 마음에 의해 생성된다.

말의 암시가 유익한 마음이나 해로운 마음에 의해 조건 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우리가 관대함, 친절함 또는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계발시키는 것과 같은 건전하지 못한 목적을 가졌을 때 우리는 해로운 마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론상으로는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거짓말이나 중상모략 같은 말을 통한 불선업을 짓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해로운 마음으로 말하고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대화들이 해로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하거나 남들에게 사랑 받거나 존경받기를 원할 때 집착에 뿌리박은 마음으로 말한다. 이런 목적에서 우리는 타인에 관해서 거짓말을 만들거나 조롱하거나 헐뜯거나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종종 말하기에 집착하여 단지 대화가 계속 유지되게 하기 위해 수다를 떨곤 한다. 사람들은 침묵이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보통 우리들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유익한지 아닌지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무실이 집에서 우리의 직장을 조직할 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 그런 순간들에도 유익한 마음나 해로운 마음아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가?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말로 통한 불선업을 짓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관대하고 친절하게 그들을 도우려고 대화하면서 격려할 때 말의 암시가 선한 마음에 의해 생성될 수도 있다. 우리가 붓다의 가르침에 관해서 말할 때 유익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거기에 해로운 마음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또는 우리와 대화하는 사람들에게 집착을 가질 때이다. 많은 다른 마음들이 매우 빨리 일어나고 사라져서 우리는 마음이 언제 유익한 마음인지 언제 해로운 마음인지 알지 못할 수가 있다. 말을 하는 동안에 마음과 물질에 대한 알아차림을 둘 수 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원할 때 단어들을 생각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생각은 실재의 하나이며 이 또한 알아차림의 대상이다. 거기에는 소리와 들음이 있고 그들은 나타날 때 알아차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말하려는 주제에 너무 빠져 우리의 말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집착해 버린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들을 ‘관습적 진리’의 세계에 살고, 궁극적 실재(빠라마타) 담마를 잊어버린다. 궁극적 관점에서 보면 말하는 자는 없고 단지 현상, 무아, 조건 지어진 마음들과 물질들만 있다.

우리가 몸짓이나 말할 때, 단단함, 누름, 소리 또는 들음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나타남과 동시에 지각될 수가 있다. 그런 순간에 알아차림이 있다면, 나타나는 실재에 대한 깨달음이 계발될 수 있을 것이다.

〈청정도론〉(18장, 31)에 궁극적 관점에서 사람은 없고 단지 조건 지어진 현상들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꼭두각시 비유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꼭두각시가 영혼없이 공허하고, 생기가 없으며, 단지 줄과 나무의 조합을 통해 걷고 서고 하는 동안 그것이 생기있고 재미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처럼 이 정신-물질도 공허하고 영혼이 없으며, 생기도 없다. 단지 두 다리의 조합을 통해 걷고 서고 하는 동안 생기있고 재미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처럼 여겨진다. 이것이 그것이 보이는 방식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마음과 물질은 실제로 있지만, 보이는 중생과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네, 그것은 인형처럼 실체없이 공허하고 꾸며진 것이기 때문에 단지 목초나 나무 같이 쌓여진 고통무더기에 불과하다네.’”

사람들이 꼭두각시 공연을 볼 때 그것은 마치 그 자신이 생명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고, 열중하고, 집착되어 버리거나 미움과 슬픔이 가득하게 되는 것으로 여겨져, 사람들은 그 스토리에 사로잡혀 울고 웃고 하게 된다. 그러나 꼭두각시는 단지 그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무와 줄일 뿐이다. 연극이 끝난 뒤 꼭두각시가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가를 보게 되면 하나도 감동적이지 않고 단지 나무와 줄의 모임일 뿐이다. 우리가 논장을 공부하게 되면 ‘자아’라고 부르는 이 꼭두각시가 적당한 조건들 때문에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담마상가니〉(636, 637)에서 두 종류의 암시의 정의를 이미 보았듯이, 이 두 종류의 물질은 유익한 과보를 낳는 마음이거나 해로운 과보를 낳는 마음이거나 또는 과보를 낳지 않는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에 의해 조건 지어진다. 몸짓과 말의 암시가 아주 종종 해로운 과보를 낳는 마음에 의해 조건 지어진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제스처를 취하거나 말을 할 때 마음과 물질을 알아차림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사띠빠타나 숫타〉(맛지마 10, 마음챙김의 확립 경, 네 가지 종류의 분명한 앎)에 나오는 ‘분명한 앎’ 삼빠잔냐의 실천에 관한 붓다의 말씀을 기억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나아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도 돌아올 때도 자신의 거동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 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팔을 펴거나 구부릴 때도 분명한 앎을 실천해야 한다; 가사를 입고 탁발그릇을 들 때도 분명한 앎을 실천해야 한다;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해야 한다; 대소변을 볼 때, 분명한 앎을 실천해야 한다; 걷고, (어떤 장소에) 서고, (어떤 자세로) 앉고, 자고, 깨고, 말하고, 침묵하고 할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해야 한다.”



위오기(공주대 경영학과 교수)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흰옥) 가액 ₩60,000원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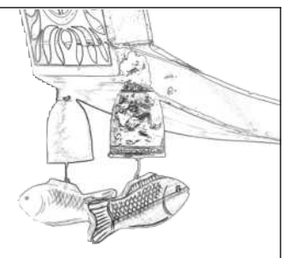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태양은 낮에 빛나고 달은 밤길에 은은하다.
무사는 갑옷 속에서 빛나고
수행자는 명상 속에서 빛난다.
그러나 저 깨달은 이는
낮에도 빛나고 밤에도 빛난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대웅전 불사 원만 성취 발원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초보자 환영
쉽게보는 원판제공
다음. 네이버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정확한 방편술 (비법)을 출판하였습니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않습니다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천상을 여는 지장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
빙의퇴마,천병,신병,
우울증,틱장애,
가정우환, 병명없이
치유못한 환자 치유
(극락암)
010-5152-1222

60대 신심깊은 독신자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울진)
011-9571-6559

인로왕보살은 스님들입니다 춤으로 인도 하십시오

승무 · 관음춤 · 지전춤 · 살풀이 · 오행춤
반야용선춤 · 길배춤 외 기타 의식춤
스님 직강
010-8510-0108 보성 합장

아름다운 인연

소승은 70세 된 시각장애자
심안으로 달마상과
황금용주도를 남은여생
나누어 드리려 합니다
무소유, 머무를 곳을
보시하실 인연을 찾습니다
010-9003-7783

빙의 기치유 한방쑥뜸

대구 심향사(약사도량 : 법화경)
전통사경,사불,현대사경,작품사경
사주 · 인생상담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다음카페 : 심향사 사경원
053)244-9995
010-3677-3845 보성 합장

자성 천도 사십구재 제사 전문도량 바라, 회심곡

02)483-1566

빈 암자나 빈 토굴 혹은 빈 외딴 시골집 관리하여 드립니다

50대 후반의 선방 수좌
(토굴에서 함께 용맹정진할
도반을 찾습니다)
010-2897-6144

명 상

크리슈나무르티
네이버블로그 : 명상, 산보
010-7438-0408

참신하고 신심 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010-6582-3137

제주도 사찰

청정도량 적멸보궁에서
몸과 마음을 가꾸실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스님 한분, 사무장, 상주인원
두사람, 보시금 전화상담
주지스님 010-3696-8500

중풍, 예방 할 수 있음

(10년 경험)
010-5096-9870

사찰을 책임지고 운영할 능력있는 스님을 찾습니다

보시금은 없습니다
이외 비용문제 상담
출가 남녀 행자도 찾습니다
(강원지역)
010-9421-0730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상담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기도의 달인 대주스님

•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 배우실 분은 한번만 오시면 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1-772-4606 제행 합장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 출구

바닷가 전경이 아름다운 절에 여(女)행자님을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016-562-6677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강력한 삶의 변화 원네스 치유명상

① 가족세우기 지도자 과정(참관가능)
* 일시 : 매달 2일간, 토, 일 진행 합니다.
* 부모,자녀,부부관계와 조상, 무의식 치유
② 원네스 깨어남 힐링명상(무료체험하기)
* 세계적인 치유명상, 강력한 삶의 변화
* 성공 풍요,건강,관계개선, 최상의 깨달음 코스
네이버카페 - 원네스 행복한 가족세우기
신청문의 :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 사찰, 포교당 운영이 힘든 곳. 30여년 노하우로 운영 관리해 드립니다
- 변호사 모심 (획기적 사업 함께하실 공동사업자)
○ 달해스님 (불교 및 13년 법률전문가 전문)
불교통신대, 동 대학원 4년졸업 등 경전해석
대한불교본조계종. 사단법인 가수. 영화배우. 대한불자가수회
염불, 독경 국내 승려트롯트 가수 제1호
저는 단독으로 노무현 대통령 서거후 선진규 장례위원장의 청에 의한
마을회관과 영구차 및 정토원 대법당에서 천도제를 봉행함(SBS 인터뷰생방송)
임시수행처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5길 21
각종행사 연락요망 : 02)547-2587 / 010-5742-2587
스님 010-4883-9026 (꼭 이리 연락)
국민은행 계좌 : 057-21-1749-081 (예금주 양환우)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화요일 저녁반, 목 · 금요일 오전반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명상과 힐링상담자 모집

명상, 불교심리치료, 서양심리치료, 명상치료법을
무료로 지도하오니 많은 동참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도자 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2동 1259-20 고산골 해룡사 지도법사 화성 스님
☎ 053)471-7769. 010-2866-4860

영 가 찾는법 강 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탈 종 공 고

• 법 명 : 일명(박정선)
• 주 소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681-2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풍수계 최초 밝혀낸 명당의 실체와 신통발복력!

태극혈맥풍수

반드시 발복흥성 유지되는 혈맥음양터!
• 명당은 반드시 땅속혈맥 갖춰야 진터
• 맥과 혈 짚어내는 비술득통
• 도승들이 펼친 산수혈맥주술법 도통

흥망성쇠 좌우하는 양택 음택!!

• 길터, 흉터 출장감정
• 명당점지, 묘이장 화장 상담
▸절암자 사업장(공장,매장) 점포 사무실
주택 묘지 납골터 수목장 등

※우리터문화는 자연과학이자
생명공학이다.
※태극혈맥터에서 인물나고
부자되고 가문이 흥성한다.

덕숭산승 지천공
010-4600-7399
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동막길 83-7 절로암

사주.기문.자미두수

■ 2012 박대통령 적중, 2013, 14년 국운분석 거의 적중, 2012 국회의원선거 10명 모두 적중, 취업시험, 공무원 시험, 사업여부, 학생 공부 잘 할지 여부 등 적중, 적중률이 높은 이유는 사주+기문+자미두수+ "土" 의 세밀분석, 적중률이 높음. 공개강좌시 모든 학문의 장점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고의 성명학 만드는 법 등 많은 것을 보여 드립니다.

사주.기문 초.중급반 -5개월	월	사주명리반 (월20만원)	18:30-21:30	天의 학문은 사주학이요, 地의 학문은 기문둔갑이라, 인당에서 2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선정. 두 과목 청강시 5개월 165만원 (일시불, 2개월 분할 가능, 책값 포함) ▶사주프로그램(130만원) 무료 드림 ▶사주.기문 5개월 수업내용 담은 USB를 무료 드림 ▶사주.기문 재강의 비용은 없음
	화	기문둔갑반 (월20만원)	18:30-21:30	
실전반 -5개월	수	사주, 기문 최고급 이론 1시간30분, 나머지 시간 사주+기문으로 문제풀이 (월25만원)	18:30-21:30	▶한 과목 청강 시 매달 25만원이며 실전.창업 두과목 동시 청강시 5개월 165만원(일시불,2개월분할가능,책값포함) 사주 초.중급이 이미 공부가 된 사람은 바로 실전반에서 공부하면 됨. ▶타학원 출신들이 많다.
창업반 -5개월	목	사주+기문+자미두수로 실전문제풀이반 (월 25만원)	18:30-21:30	
풍수반 -5개월	금	현공풍수, 양택 (월10만원)	18:30-20:30	현공풍수와 양택풍수
타로카드 -5개월	일	마르세유 타로 (월20만원)	11시-13시	오픈하려면 타로는 꼭 공부를 해야한다. 수시 접수함.

● 홈페이지 "인당명리" 로 검색하면 된다. 격일제 근무자도 가능

2주 무료 공개강좌	5월 9일(금), 10(토), 11일(일) 14~17시 (1차) 5월 17일(토), 18(일) 14~17시 (2차)	5일중 1회만 오면 됩니다.

사주, 기문, 실전 USB로 쉽게 공부(홈페이지 참조)
지방에 있는 분, 시간이 없는 분들은 위해서 USB를 제작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USB는 수업 시간을 그대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정말 편하다. 현재 많은 분들이 USB로 공부하고 있다.
◆사주 초.중급 + 기문 초.중급 150만원(사주프로그램 130만원 무료 드림)
■인당학원 : 2호선 상왕십리역 2번출구 양지사거리 신한은행 옆 건물 2층
인당역학연구소 02) 929-6310
(사주감정 발을 분 전화주세요)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접수일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가 격 : 1회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항상 마음에 모든 부처님과 법과
여러 스님들 좋아하면 곧 여래의 온갖 법회 가운데 있어
위없는 깊은 법인(法印)을 이룬다."

- 화엄경 -

사 찰 안 내

- 아름다운 토굴 -
(생수공장, 황토공장)
- 위치 : 구례군 지리산 온천 부근
- 총부지 : 1150평, 도로 8m 접
- 건물 : 42평, 남향(별장 및 전원주택)
- 지하 200m 암반수 : 일일 취수량 500톤
- 양도금액 : 평당 20만원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사 찰 -
- 위치 :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사찰
- 대지 : 2,700평
- 건물 : 4동 (법당 50평,요사채40평,산신각,주지실)
- 텃밭 : 300평
- 가액 : 6억 8천만원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사무소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863-6622

사찰(급)안내

- 원주시 사찰 양도
- 목조법당 50㎡, 요사채 100㎡
- 산신각 10㎡, 토지1,400㎡
- 시내근접한 아늑한사찰.주변은 산
- 주차장과 연못, 오래된사찰
- 양도금액 : 3억원 조정불가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청학동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계곡접 해발 700미터)
- 대지 1,815평, 부지조성완료, 정동향
- 법당 목조30평, 산신각 목조7평, 요사채25평, 창고1동, 해우소 1동
-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사용.
- 노인복지, 요양원, 연수원, 선원 등 최적임
- 가액 : 13억

010-3403-33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도천동 도리1길 부근
- 종교부지 800평, 산 812평, 전 350평,
- 법당 21.8평, 요사채 21.5평, 삼성각 2평
- 가액 : 6억

055)645-9171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황토방, 주차 40대가능
- 가액: 4억 5천만원
- 8억원 이상이나 건강상 이유로 급 안내 (현지 답사 조절가능)

010-9889-3188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 부지 : 1000평
- 법당 : 50평
- 요사 : 40평, 차량진입
- 양도가 : 11억 8천
- 위치 :서울 한강 이남
- 대지 : 150평
- 법당 : 40평,목조기와
- 요사 : 60평, 2채
- 양도가 : 33억 8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운영,구하는사찰 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김용각)
02)723-4082 / 010-4586-452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401호) (탑골공원길 21)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양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인연을 찾아드립니다.(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사찰부지, 매매임대전문중개사

010-7347-1010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대표:이규철)
010-3426-9393 이박사공인중개사(대표: 이현종)
주소: 강원도 원주시 모래내길 50(성일아파트 상가 108호)
■ 전국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북한산 밑)
- 평수 : 77평
- 법당, 삼성각, 방5개, 화장실 2개
- 텃밭, 창고 2개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대폭인하)

010-7466-7701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 남쪽 산자락
- 1층 본요사채 45평, 황토벽돌로 조성, 2층 법당 25평
- 주차장 완비 총 171평 외 토지 80평과 별요사채 1,2층 30평, 저온창고 2.5평
- 가액 : 4억 5천 직접거래

010-3743-9943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옥천읍에서 5분거리, 대전에서 10분거리
- 대지 505평, 1층 요사채40평, 2층 와가법당 20평(단청필)
- 옥외건물 20평(창고), 화장실, 샤워실, 창고 6평
- 수려한 금잔디 및 조경, 6층석탑
- 주변 팬션 및 별장있음
- 대전 영동간 4차선 국도 300M 접
- 가액 : 3억9천5백

011-645-1361

사찰 토지 (급)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삼산면 장치리 765
- 지목 : 전(관리지역) 1,014평(한필지)
- 전망 : 뒤에는 삼면이 산으로 감싸고 앞은 탁트인(남향) 바다를 보고있음 뒷산 8부능선 기도처 완비
- 가액:2억3천만원절충가능융자:육천오백만원
- 도로, 전기, 토목, 조경공사 완료, 건축허 가능

010-2002-1000

암 자 안 내

- 위치: 경기도 가평읍 북면 화악산 줄기 청정 수월 도량
- 명산지대이며 산세 수려하고 좌청룡 우백호 도량 자리
- 청정 자연물 큰 내가 24시간 흐름
- 평수 총2,530평 하천부지 2천평 사용 가능
- 가액: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 불사하실분 환영하고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바랍니다

010-5009-1772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청학동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계곡접 해발 700미터)
- 대지 1,815평, 부지조성완료, 정동향
- 법당 목조30평, 산신각 목조7평, 요사채25평, 창고1동, 해우소 1동
-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사용.
- 노인복지, 요양원, 연수원, 선원 등 최적임
- 가액 : 13억

010-3403-3355

문경 토굴터 안내

- 위치: 경북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산 154-4
- 문경 IC에서 10분, 문경온천에서 5분거리
- 면적 225평
- 소나무숲 전원주택 부지로 현재 10여동이 입주한 상태
- 가액 : 4천5백만원(평당 20만원)

010-8555-4480

포교원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
- 대지 110평, 건물80평, 인법당 10평,
- 포교원 요양 수행 힐링처
- 별장식 별궁으로 용도 가능한곳
- 가액 : 2억 3천만원

011-9917-7039

사 찰 안 내

- 춘천 3,600평 3억 6천 주변시세 반값 요양원 사찰건축 가능
- 경북 영주 2,500평 18억 복지원 요양원 현재사찰운영중 모든조건 완비
- 서울상계30평 2층 포교원 8천만원 35년운영중
- 수락산역 200M

010-4880-7890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 건물만 안내 건평 24평, 창고 8평, 터 160평
- 가액 : 1천 6백만원
- 사정상 급안내

※ 인수시 살림도구 모두 드림

010-8460-637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가야초등학교 정문앞
- 4층건물에 2층, 20평 철학관도 호조건
- 삼존불, 후불탱화, 방2, 주방완비
-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3천 3백만원 월세없음 시설비 5백만원
- 가액 : 2억 6천만원

011-9308-0857

포교원안내

- 위치 : 1층 경남 김해시
- 법당 : 오존불, 48평
- 시설 : 쑥뜸찜질방 1개
- 주차 : 3대 가능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가액 : 전세 8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0-9376-7242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신림동 3층 건물중 2층
- 석가모니, 관음, 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 봉안지장보살 원불 297분
- 법당외 방1 주방1, 화장실1, 약 30평
- 도심속의 포교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77만원 시설비 2,700만원

011-309-3535
(답사후 절충가능)

토 굴 안 내

- 위치 : 경산 와촌
- 대지 : 약 500평
- 2층 벽돌집 정남향
- 가액 : 2억8천만원

010-9778-7774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인근 20분거리
- 대지 299평 총평수 637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29평 요사채 20평, 방4, 욕실1, 공양간 10평, 방1개, 해우소 3평반 3칸
- 지하수 130m 물수량 100톤 일급수 CC카메라 9대시설
- 사찰경내지 계곡물흐름,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IC 5분거리
- 가액: 3억 5천만원(꼭 하실 분만 전화요망)

※ 장난전화사절 ※
010-9338-0118

포교원안내

- 위치:광주 운암동 위치 최고 주차편리
- 3층 건물중 2층 32평
- 법당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탱화
- 불단원목 연등 영가등 인등전기 LED 전체리모델링
- 인터버냉방기 2대 방3개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능)
-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62)513-0901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구포동
- 평수: 대지 47평, 3층 슬라브
- 3층법당 1, 2층 요사채
- 삼존불, 신중, 산신, 칠성탱화, 소불
- 가액: 1억 7천 5백만원 (절충가능)
- 사정상 시세 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찰(전세)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장
- 대지 210평
- 건평 80평
- 법당완비, 시설완벽
- 가액 : 전세 1천만원, 월세 120만원
- 시설비 4천만원

010-3193-368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8505-2032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1동, 산신각
- 사용가능평수 약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3억2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동남구 동면 천안 목천톨게이트에서 10분거리 진천에서 10분거리
- 대지80평, 텃밭 330평 정원도 완벽함
- 2층 법당30평, 아래 요사채 별장으로도 적합
- 가액 : 2억 6천만원

010-3723-6640

사찰 터 안내

- 좌청룡 우백호가 살아있는 소쿠리터
- 갓바위뒷편 영천신령면 1066번지의 5필지
- 논 약3천평 내외 성토작업 완료. 가옥 60평
- 마당앞에 계곡물이 흐르고 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 가액 : 4억 5천만원
- 위치: 경북 청도군 각남면 화리 산48
- 임야 8,250평 • 가액 : 7천만원

010-6253-3107
(철호스님 합장)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 대지 100평, 건평52평
- 삼존불, 소불50불
- 법당, 산신각, 큰방2, 화장실
- 가액 : 1억 2천

010-3857-2305

포교원안내

- 위치 : 김해 장유 신도시 위치최고
- 3층 건물 2층 약40평
- 삼존불, 신중, 소불 연등설치
- 법당, 공양실, 방2개 실내 화장실 사용하기 아주 편리함. 철학 및 포교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22만원 시설일체 2천300만원

010-4017-0993

사찰안내(신축)

- 위치 : 경남 합천
- 면적 : 413평 (계곡물 사철 흐름)
- 법당 : 25평(동남간, 목조, 기와)
- 사채 : 25평(방2, 화장실2, 컨1동)
- 가액 : 융자3천안고, 2억 2500만원

010-8517-85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 총평수 800평 건물, 법당,
- 요사채 합 50평, 산신각 5평, 용왕당 2평
- 가액 : 3억 2천만원

010-8034-8309

시골집안내

- 위치 : 충북 음성군 음성읍
- 건물만 안내 건평 24평, 창고 8평, 터 160평
- 가액 : 1천 6백만원
- 사정상 급안내

※ 인수시 살림도구 모두 드림

010-8460-637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동남구 동면 천안 목천톨게이트에서 10분거리 진천에서 10분거리
- 대지80평, 텃밭 330평 정원도 완벽함
- 2층 법당30평, 아래 요사채 별장으로도 적합
- 가액 : 2억 6천만원

010-3723-6640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신림동 3층 건물중 2층
- 석가모니, 관음, 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 봉안지장보살 원불 297분
- 법당외 방1 주방1, 화장실1, 약 30평
- 도심속의 포교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77만원 시설비 2,700만원

011-309-3535
(답사후 절충가능)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 IC 5분거리
- 지장전, 산신각, 노천지장보살
- 석탑, 요사채3동, 방10개,(고찰) 토지 6필지 약 1,450평 (종교 414평, 대지 355평, 전 359평, 답536평
- 노인복지시설, 연수원, 선원, 기타개발 최적지
- 가액 : 10억

010-9465-1915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북한산 밑)
- 평수 : 77평
- 법당, 삼성각, 방5개, 화장실 2개
- 텃밭, 창고 2개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4천만원(가격조절가능)

010-7466-7701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에 위치
- 지하철에서 도보로 5분거리
- 시설일체 완비(몸만오시면 됨)
- 평수 : 43평
- 보증금 4,0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2,200만원

010-8505-0101

사찰(급)안내

- 위치: 경기도 포천시(50년된사찰)
- 대지 300평, 미륵불상4.5M
- 지장,신중,산신,칠성 탱화
- 삼존불, 텃밭, 집기일체
- 가액 : 전세 3,500만원. 양도도 가능

010-6311-4920
010-7128-5035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3층 건물에 3층 (160평)
- 포교원 10년 한 자리
- 삼존불,후불탱화,법당, 종무소, 방4
- 화장실(실내 1, 실외 2), 법당과 모든 방에는 난방필름 되어 있음
- 시설완비, 불사소임관계 부득이 양도
- 옥상사용 주차장완비 일체민원없고 조용함
- 보증금 : 천만원, 월80만원 / 시설비 협의
- 바로 법회가능

055)221-5182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지하철 남산역2분거리
- 4층 건물 중 2층, 약50평 정남향 주차장 최고급시설, 냉난방, 바닥전체 필름난방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3,000만원

010-9317-9199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큰 도로변 아파트 상가 2층 약 60평
-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큰 공양간, 큰방 1, 작은방 2, 욕실
- 시설환경, 위치 특 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5173-3355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중산리 부근
- 평수 : 130평
- 황토 이중벽으로 완공 된 법당 및 요사채(방3칸), 후원 9평, 몸만 오시면 됨
- 수양 정진 도량,
- 가액: 2억 6천만원(시설비 포함,절충가능)

011-895-225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 예술 고등학교 부근
- 5층 건물에 5층 50평
- 아미타 삼존불 후불탱화
- 오피스텔 최신식형 법당
- 가액 : 보증금 1,000만 월 100만 시설비 3,500만원

010-2485-8799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 총대지 : 156평
- 법당, 요사채 3
- 가액 : 2억(절충가능)

011-540-6549
010-7169-1399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양산시 북정동 대동 1차 상가
- 3층 포교당, 40평 법당, 방3개
- 공양간 넓음
- 가액 : 보증금 5백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없음

010-5716-1032
010-3562-9525

사 찰 안 내

- 위치: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중산리 부근
- 평수: 130평
- 황토 이중벽으로 완공 된 법당 및 요사채(방3칸), 후원 9평
- 몸만 오시면 됨
- 수양 정진 도량
- 가액: 2억 6천만원 (시설비 포함,절충가능)

011-895-2258

포교원(급)임대

- 위치 : 경기 부천시 부천역에서 7분거리 최고의 요지
- 5층건물 중 5층 100평(옥상도 사용가능)
- 주지실, 상담실, 종무소, 공양간, 큰방3개
- 법당 단청되어 있음
- 소임관계로 급하게 임대함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초파일 법회도 가능함)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50만원(조절가능)
- 시설비 : 600만원(회의시설 깨끗함)
- 법당 50평

010-6216-4133
032)655-4133~4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전철역세권, 노선버스 최다
- 재벌을 길러낸 터, 포교 최적지
- 100M 전방재개발확정, 아파트 2천세대
- 법당 30평, 부처님 5분, 천불전불사중 현재 약300분
  1층 : 차고, 창고, 일주문
  2층 : 법당, 방3개, 공양간, 화장실2개
  3층 : 방3개, 산신당, 빈공간 20평, 화장실 1개
- 대지 140평, 건평 107평
- 가액 : 12억(융자4억포함) 시세가 이하
- 학업관계로 부득이 안내(절충가능)

010-8634-7851 (부동산 사절, 꼭 하실분만)

도심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로타리)육거리 근처
- 넓은 면적, 5층 94평(7층, 지하주차장 지분 별도15평 있음)
- 방3, 공양간(약10평), 실내화장실, 실외남녀 별도 화장실
- 경전철 역 가까워 도보 이용(대중교통편리함) 대단지 아파트 인근으로 불교신자 많음 근처 교회는 많으나 절이 없음
- 임대(시설금 없음)및 양도(현 시세에 비교 매우저렴)
- 도심 사찰하기에 내부 구조가 매우 편리함

010-6570-1000
055)247-7000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정류장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5,5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청주중심도시
- 대지 60평, 건물 2동, 요사채35평, 법당1동
- 삼존185대불계금, 대형후불탱화, 1자 원불108불
- 방 4개, 욕실 2개, 2층동 18나한 네팔에서 모시고옴
- 방송스튜디오 녹음실, 차고
- 가액 : 3억 5천만원, 보시고결정, 절충
- 불교포교원 90평, 전세5,000만원 최고집기시설

010-9546-2255
010-5236-7310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양산시 북정동 대동 1차 상가
- 3층 포교당, 40평 법당, 방3개
- 공양간 넓음
- 가액 : 보증금 5백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없음

010-5716-1032
010-3562-9525

사 찰 안 내

- 위치: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중산리 부근
- 평수: 130평
- 황토 이중벽으로 완공 된 법당 및 요사채(방3칸), 후원 9평
- 몸만 오시면 됨
- 수양 정진 도량
- 가액: 2억 6천만원 (시설비 포함,절충가능)

011-895-2258

포교원(급)임대

- 위치 : 경기 부천시 부천역에서 7분거리 최고의 요지
- 5층건물 중 5층 100평(옥상도 사용가능)
- 주지실, 상담실, 종무소, 공양간, 큰방3개
- 법당 단청되어 있음
- 소임관계로 급하게 임대함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초파일 법회도 가능함)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50만원(조절가능)
- 시설비 : 600만원(회의시설 깨끗함)
- 법당 50평

010-6216-4133
032)655-4133~4

전원주택 및 토굴

- 위치: 인제 원통에서 15분거리
- 사용가능 총 1,400평, 대지 300평, 건평 25평,
- 잘 가꾸어진 밭 900평, 2중 흙벽돌 심야보일러
- 잘가꾸어진 마당, 멀리큰강이 흐름
- 가액 : 2억 9천만원

010-3337-9736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전철역세권, 노선버스 최다
- 재벌을 길러낸 터, 포교 최적지
- 100M 전방재개발확정, 아파트 2천세대
- 법당 30평, 부처님 5분, 천불전불사중 현재 약300분
  1층 : 차고, 창고, 일주문
  2층 : 법당, 방3개, 공양간, 화장실2개
  3층 : 방3개, 산신당, 빈공간 20평, 화장실 1개
- 대지 140평, 건평 107평
- 가액 : 12억(융자4억포함) 시세가 이하
- 학업관계로 부득이 안내(절충가능)

010-8634-7851 (부동산 사절, 꼭 하실분만)

화해(내 안의 아이 치유하기)

틱낫한 스님 (프랑스 플럼빌리지 설립자)

〈5 · 끝〉 고통 이해하기

"나는 고통을 겪으며 공부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창조해 나누는 법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개 좌선을 한다. 좌선을 하면 약간의 고요함과 이완이 온다. 그로 인해 세상의 불행과 다툼을 잠시 묻고 어느 정도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우리는 고통을 덜 받으려고 자리에 앉아 명상을 한다. 안전감을 느끼기 위해 땅속 굴로 달아나는 토끼처럼 행동한다. 방해받지 않기 위해 우리의 작은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는 토끼처럼 앉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다 잊고 싶다.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아서 휴식을 취하거나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상의 참목적은 그런 데 있지 않다. 마치 굴속의 토끼처럼 앉아서 명상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고통을 피하겠다는 생각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명상을 통해 해야 할 일은, 지성과 집중을 동원해 세상을 꿰뚫는 지혜를 얻은 후에 내면의 고통을 변화시켜 부처가 되는 일이다. 그리하여 깨달은 사람,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

불교에서는 세 개의 세계가 있다고 본다. 욕망과 갈애의 세계[욕계], 형태의 세계[색계], 무형의 세계[무색계]가 그것이다. 우리에게는 욕망과 갈애를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덕분에 욕망의 세계에서 떠나는 수행을 해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이것이 수행의 첫 번째 단계다. 하지만 욕망의 세계를 떠났다 해도 마음속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 이야기를 멈추기 위해서 고요함을 수행한다. 불교에서 마음속 이야기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니 바로 비타르카(vitarka)와 비카라(vicara)다. 비타르카는 최초의 생각이고 비카라는 성찰하는 생각, 계속되는 생각이다.

우리는 생각을 멈출 수 없다. 우리 머릿속에서는 항상 오디오가 돌아가고 있다. 그것은 멈출 줄 모르는 마음속 이야기에서 나오는 소음이다. 그 마음속 이야기를 멈추기 위해 우리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운다. 생각을 멈추려면 그저 들숨과 날숨에 머물기만 하면 된다. 들숨과 날숨을 즐기며 우리는 마음속 이야기를 멈출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고요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리에 앉아 들숨과 날숨을 즐기고, 고요함을 즐기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마음속 오디오를 끄고 작은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하다. 그것만 수행한다면 우리는 3년만에 수행공동체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곳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갔을 대 우리는 고통이 만연한 세상과 다시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석 달에서 일 년쯤 보낸 후엔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고 싶어진다. 이 바람은 계속된다. 그래서 우리는 고요함에서 우러난 행복, 뭔가를 뒤로 하고 버리는 것에서 우러난 기쁨을 추구하면서 계속 수행을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더 깊은 근원으로 들어가라고 우리를 일깨워주는 깨어 있음의 종소리다. 수행을 하는데도 행복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불행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비난을 퍼붓는다. 우리가 완벽하게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 밖에 있는 것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들 때문이라고 마한다. 이것은 모두 수행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공통의 문제다.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안다면 불행의 원인은 행복을 간직하는 방법을 모르는 자신들에게 있음을 수행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깨닫게 되겠지만, 그들은 마음의 저 깊은 곳까지 들어가 아픔과 불안과 고통의 근원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모른다.

그 고통은 어린 시절에 겪은 고통일 것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학대를 경험했는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에 학대를 경험한 그들의 고통이 이제 우리의 고통으로 이어진 것이다. 우리의 고통에 대해 그저 막연한 느낌밖에 없더라도 우리는 그 고통과 만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고통을 알아차리는 데는 통찰력이 도움이 된다. 그 과정에서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이렇게 다짐하라. "나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고통을 겪으며 나는 공부할 수 있고, 그런 공부가 나에게 이로운 일임을 알기 때문이다." 마치 쓴오이를 먹는 일과도 같다. 우리는 두렵지 않다. 쓴오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통이 엄습했을 때 달아나지 말고 거기 머물러 고통을 환영하기 바란다. 그것이 당신의 화든, 좌절이든, 무언가를 향한 채워지지 않은 그리움이든 전부 맞이하라. 그 고통의 덩어리가 아직 이름이 없다 해도, 당신이 아직 거기에 이름을 붙여 줄 수 없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고통이다. 그러므로 인사를 건네고 부드럽게 안아 줄 준비를 하라. 그 고통과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하라. 고통을 받아들이고 고통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 우리는 그 고통과 함께 살 수 있다고 여긴다. 그 고통이 우리에게 이로우며, 쓴오이처럼 우리를 치유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허용한다. 우리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배움을 위해 어느 정도는 고통을 받겠다는 각오를 한다. 만약 고통을 받아들이고 부드럽게 감싸 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의 정체를 알 수 없다. 그리되면 고통이 우리를 가르치고, 기쁨과 행복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끝내 알지 못하게 된다. 고통이 없이, 고통에 대한 이해가 없이 진정한 행복은 가능하지 않다.

사랑하기 위해 수행하라

보리심(불교의 깨달음을 얻어 사람들을 널리 고통에서 구하려는 마음)은 깨달음의 마음이고 초심자의 마음이다. 수행을 하여 나와 남의 고통을 변화시키고 주변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을 때, 그 마음은 매우 아름답다. 그런 마음을 '보살의 마음'이라 한다. 보살은 모든 존재를 돕기 위해 해탈을 얻는 사람이다. 때로 우리는 보살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이라 부르기도 한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사랑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고통에서 달아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원한다.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변화시켜 자유인이 되려 한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변화시키도록 도울 수 있다.

우리들은 초심이 항상 살아 있도록 애를 써야 한다. 그것이 강력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마음에서 기운을 얻는다. 그런 에너지원과 함께할 때 계



고통 엄습할 때 고통을 환영하라
고통의 이해 없이 진정한 행복 불가능
초심 계속 닦아 보살로 살 것 염원해야

율도 잘 지키고, 수행하는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의 마음을 키우고 초심을 유지하며 보리심을 닦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행이다. 이삼 년 후 그런 마음이 죽어 버리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나는 오랫동안 초심을 잃지 않는 행복을 누렸다. 그렇다 해서 수행 길에서 많은 장애물을 만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나는 수많은 장애물을 만났다. 하지만 나는 포기한 적이 없다. 내 안에 있는 보리심과 초심이 늘 무척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초심이 당신안에 존재하는 한, 여전히 튼튼하게 건재하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신 앞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해도 모두 극복할 수 있다.

내면의 초심이 약하다고 느낀 순간 이미 커다란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안다. 내면의 보리심과 초심이 약할 때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리심이 약해지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초심을 계속 닦아 일생 동안 보살로 살아가기 바란다. 그럴 때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행복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물건 치우기 명상법

9세기 중국의 대선사였으며 플럼빌리지 법맥의 시조인 임제 스님은 "물건을 치워라."라는 말을 즐겨 했다. 여기서 물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나 상황 즉, 마음 속 이야기다. 다시 말해 수행은 생각이라는 물건을 치우고 지금 이 순간의 몸과 느낌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에너지와 함께 머물며 생각은 내려놓아라. 에너지를 따라 몸과 느낌으로 되돌아옴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응어리를 찾아 그것을 부드럽게 감싸 안을 수 있다. 그리하여 내면의 긴장이 풀어져 에너지가 방출되도록 하면 치유되는 것이다. 이는 자전거를 타는 것과 비슷하다. 자전거를 배울 때, 처음에는 누군가가 뒤에서 자전거를 잡고 밀어 준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이런 도움 없이도 당신 스스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다. "이제 알았어. 할 수 있어."

'물건 치우기 명상'은 이렇게 한다.

① 숨을 들이쉬며 나는 들숨을 발견한다./ 숨을 내쉬며 나는 날숨을 발견한다.

② 숨을 들이쉬며 나는 격한 감정적 문제(물건)를 마음에 떠올린다./ 숨을 내쉬며 나는 그 문제에 마음을 연다.

③ 숨을 들이쉬며 나는 그 문제(물건)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는다./숨을 내쉬며 나는 내 몸 안에 있는 그 에너지를 감싸 안는다.

④ 숨을 들이쉬며 나는 내 몸과 감정을 알아차린다./ 숨을 내쉬며 나는 내 몸과 감정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다.

⑤ 숨을 들이쉬며 나는 들숨을 내 몸과 감정에게 보낸다./ 숨을 내쉬며 나는 내 몸과 감정의 긴장을 내보낸다.

⑥ 숨을 들이쉬며 나는 들숨을 알아차린다./ 숨을 내쉬며 나는 날숨을 알아차린다.

때로 내 몸과 감정에 있는 에너지가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너무나 압도적인 존재로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어려운 감정이나 상황을 잠시 동안만, 한 20분 정도만 만나기 바란다. 그런 다음 눈을 뜨고 몇 분간 밖에 있는 대상에 주의를 두어 쉰다. 창밖의 자연을 바라보아도 좋다. 그런 다음 준비가 되면 다시 돌아가 이전의 그 감정과 만난다. 이렇게 몇 번이고 왔다 갔다 수행을 되풀이할 수 있다. 이렇게 안팎을 오가며 주의를 두면 외부에는 안전하게 쉴 수 있는 베이스캠프가 마련되고, 내부에는 여유 공간이 생긴다.

양 팔 · 무릎, 머리로 대지와 만나기

'대지와 만나기' 수행은 '오체투지 수행'이라고도 한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뿌리인 대지로 되돌아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쉼 없이 전해 내려온 정신의 조상, 핏줄의 조상, 땅의 조상들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수행이다. 우리가 분리돼 있다는 생각을 놓아버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흙이며 생명의 일부임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대지와 만난다.

대지에 몸을 내려놓고 숨을 들이쉴 때는 대지가 품은 모든 힘과 안정성뿐 아니라 우리 핏줄의 조상, 정신의 조상, 땅의 조상들이 품은 힘과 안정성도 들이마신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우리의 고통, 불안, 미움, 두려움, 부족하다는 마음, 슬픔을 다 내보낸다.

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핏줄의 조상님들께 절을 올립니다.

제 안의 모든 핏줄을 통해 순환되고, 제 몸의 모든 세포에 들어있는 피와 살과 생명력을 주신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봅니다. 제 안에 이 모든 세대들의 삶과 피와 체험과 지혜와 행복과 슬픔을 지니고 다닙니다. 저는 마음과 살과 뼈를 열어 조상님들이 전해 주신 통찰과 사랑의 체험을 감사히 받습니다.

②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정신의 조상님들께 절을 올립니다.

사랑과 이해의 길을 보여 주시고, 숨 쉬고 웃고 용서하는 법, 지금 이 순간 깊이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들을 저의 내면에서 봅니다. 깨달으신 분들과 그분들의 가르침과 역대 수행공동체가 주신 이해와 자애, 보호의 에너지를 저의 마음과 몸을 열어 모두 받아들입니다. 저의 내면과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을 변화시키고 그 에너지를 미래의 수행자들에게도 전할 것을 저는 기도합니다.

③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그리고 이 땅을 지켜 오신 모든 조상님들께 절을 올립니다.

저는 이 땅으로부터, 그리고 제 삶이 가치 있고 가능하도록 애를 써준 이 땅의 모든 생명들로부터 자양분을 받고 보호를 바당 지금 온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회의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존재하는 폭력, 증오, 망상을 변화시키는 데 제몫을 다할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미래 세대가 좀 더 안전하고 기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보호와 지지를 청합니다.

④ 감사와 자비의 마음으로 절을 올리며 저의 에너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받은 모든 에너지를 저의 어머니 아버지와 제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저 때문에 그리고 저를 위해서 걱정하고 고통받은 모든 이들에게 전해 드립니다. 저는 그분들이 건강하고 기쁘기를 바랍니다.

⑤ 저에게 고통을 주었던 모든 이들과 이해와 자비소에서 화해하기 위해 저는 절을 올립니다.

저는 마음을 열고 사랑과 이해의 에너지를 저에게 고통을 주었던 모든 이들, 제 삶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파괴한 모든 이들에게 보냅니다. 이제 저는 그분들 자신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분들의 마음이 아픔, 화, 증오로 무겁게 짓눌려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그분들이 변화해 삶의 기쁨을 맛보기를,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자신과 남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계속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글은 틱낫한 스님이 쓴 〈화해〉(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갤러리 색즉시공



사라진 것들 앞에서

저 너머에 있다고 생각하자
그래 저 너머에 있다고 생각하자
사라진 것들과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은 모두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지나간 날로부터의 유혹은 어쩔 수 없는 것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되는 그 미련들

저 너머에 있었다고 생각하자
원래 저 너머에 있었다고 생각하자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되는 그 미련들이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곁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어쩔 수 없는 것
위로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는 것은

사진 · 글=박재완 기자

티끌 안에도 무한한 우주가 있나니…

Buddha in Comic & Ani

⑨ 지미 헤이워드의 '호튼'



지미 헤이워드 감독의 '호튼(2008)' 포스터

"그렇게 작은 것에는 사람이 살 수 없어."
"아니야. 그들이 작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 우리가 너무 큰 것일 수 도 있어."

이게 웬 철학적 질문인가. 코끼리와 캥거루가 티끌 속에 세상을 두고 격론을 벌인다. 코끼리는 티끌 속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말하고, 캥거루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낄 수도 없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고 일축한다.

마치 철학 수업을 상기시키는 이 질문은 2008년 개봉한 미국 애니메이션 '호튼' (Horton Hears A Who, 지미 헤이워드 감독)의 한 장면이다. 개봉 당시 미국에서는 4000여 극장에서 개봉해 4500만 불의 수익을 올렸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실패했다. 사실, 이 애니메이션의 존재를 아는 사람 자체가 적다.

그럼에도 이 애니메이션을 주목해봐야 하는 이유는 작품의 세계관이 불교 사상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명제로 시작하는 '호튼' 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여린 마음을 가진 코끼리 호튼은 머리를 덮을 정도로 큰 귀 때문에 아주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런 호튼은 어느 날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그것은 정글을 떠다니는 먼지보다 티끌 안에 사는 '누군가 마을(Whoville)' 시장의 목소리였던 것. 서로를 볼 수 없지만, 대화로 상대방의 존재를 확인한 호튼과 시장은 대화를 시작한다. 한 낮이 컴컴해지고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을 목격하고 한 시장은 '누군가 마을' 이 위기에 처했음을 깨닫고, 호튼에게 마을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한다.

마음 착한 호튼은 '누군가 마을' 의 존재를 믿지 않는 정글 동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설움을 겪으면서도 "사람은 사람일 뿐"이라며 티끌을 '눌산' 으로 옮기기 위해 여정을 떠난다.

물론 훼방꾼들도 등장한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호튼을 탄압하는 캥거루와 해결사로 등장하는 독수리가 이를 방해한다. 반면 시장 역시 닥친 위험을 믿지 않는 천하태평 주민들에게 "하늘 너머에 우리를 도와주는 코끼리가 있다"고 말하다가 왕따를 당한다.

훼방꾼들의 선동에 호튼이 티끌을 빼앗기게 될 순간, 자신들이 위험에 빠져 있음을 안 티끌 세상의 주민들의 목소리가 바깥 세상의 동물들에게 들리게 된다. 모든 진실 안 사람들은 모두 함께 티끌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준다.

본래 애니메이션 '호튼' 은 닥터 수스(테오도르 수스 가이젤)의 동화 〈호튼, 누군가의 소리를 듣다(1954)〉가 원작이다. 철저하게 동화의 스토리 라인과 담겨 있는 메시지를 잘 살리면서도 슬랩스틱 코미디의 요소들을 가미해 오락성까지 더했다. 여기에 넘칠 듯한 컬러와 3D CG기술로 재탄생한 유연한 캐릭터들의 풍부한 동작들도 눈길을 끈다.

'티끌 안 세상' 을 구하기 위한
코끼리의 고군분투 여정 그려
'하나가 곧 일체' 화엄사상 맞닿아

무엇보다 작품이 가지는 백미(白眉)는 '티끌 속의 세상' 과 '티끌 밖의 세상' 의 소통이다. 큰 귀를 가진 코끼리 호튼은 바람 결에 날아온 티끌 속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 티끌 속 세상에는 이미 문명사회가 이뤄져 있었다.

단순한 설정만을 놓고 봐도 이는 불교의 화엄사상의 세계관이다. 당장〈화엄경(華嚴經)〉의 뜻을 압축해 풀어낸 의상대사의 법성게(法性偈)는 '호튼' 이 보여주는 세상을 잘 설명해준다.



'호튼' 의 한 장면. 호튼이 코로 감싸고 있는 민들레 씨앗 안에는 '누군가 마을' 이 있다. 티끌 속에서 세상과 밖의 세상의 소통이 이 작품의 백미이다.

'一中一切多中一 一則一切多則一 / 一微塵中含十方 一切塵中亦如是 (하나 안에 일체가 있고 일체 안에 하나 있어,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니라/ 한 티끌 그 가운데 온 우주를 머금었고, 낱낱의 티끌마다 온 우주가 다 들었네)'

이 구절은 "일체가 가지는 실상에는 본질적으로 시간 및 공간의 한정적인 개념이 성립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작진은 〈화엄경〉을 읽고 공부했기 보다는 '프렉탈', '카오스' 이론과 같은 현대물리학의 개념에서 이 같은 세계관을 차용했을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작품의 오프닝이다. 3분이라는 긴 시간을 할애하는 오프닝은 이슬을 맞은 열매가 민들레 씨앗을 뿌리고 티끌을 날려 보내는 장면이 이어진다. 이는 '나비의 날개 짓이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 는 현대물리학의 '나비효과' 개념과 유사하다.

실제 현대물리학에서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었던 크기 · 시간 · 속도 · 에너지와 같은 구체적인 물리량들이 혼자 떼어서는 정의조차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부분적인 성질이 전체적인 성질을 지배한다는 프렉탈 이론도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 의 화엄사상과 맞닿는다.

우리는 수많은 '경계 짓기' 를 통해 서로를 타자화하면서 살아간다. 작품처럼 티끌 안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와 맞닿은 존재들은 인정하고 이해하고 소중해야 하는 것이다. '호튼' 의 마지막은 모두가 함께 산에 오르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서로의 존재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모습은 따뜻할 수 밖에 없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 처명)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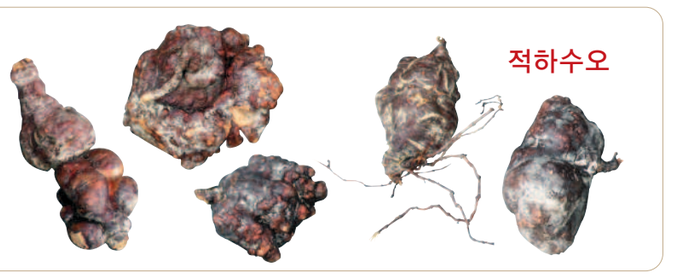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국 내 산 (청도 불광사 사찰 內 재배)
'적하수오 된 장' '적하수오 고추장' 판매

■ 적하수오, 적하수오 된장 필하신분 연락바랍니다.
• 하수오 된장 : 1 kg 5만원 • 하수오 고추장 : 1 kg 5만원
• 하수오 건조분말 판매 개시(kg당)

하수오 된장, 하수오 고추장은 청도 서룡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하수오로 만듭니다.



1.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모종을 예약 분양합니다.
2.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서룡 농장 :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묘목 재배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김남필

인터넷 검색 : 하수오 남서



대행 스님

되는것도 법, 안되는것도 법이라는것을 알아야

여러분은 이렇게 아래에 앉았는데 제가 법상 위에 올라앉은 것은, 내가 높고 여러분이 낮아서 이렇게 앉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의 모습을 쳐다보는 반면에 나도 여러분을 다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지 내가 높아서 이 법상에 올라앉은 게 아닙니다. 인간과 더불어 같이, 부처와 중생은 모두가 평등한 겁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서 평등한데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어휴, 법상에 높이 앉았네!'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다 듣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내려앉아도 될 건데 이렇게 죄송하게 올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내려앉음과 올라앉음이 둘이 아니게 평등하며 일체가 다 터졌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계(戒)、정(定)、혜(慧)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계라는 것은 우리 생활 속의 전체를 말합니다. 오계(五戒)니 십계(十戒)니 이백오십계니 이백팔십계니 하는 문제들도 전부 이 계율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질서를 지키고 또는 시간도 지키고, 그걸 문란치 않게 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한두 가지 계율이 아닙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살아나가면서 지켜야 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서, 누(累)가 될 일은 하지 말아야 하고 누가 되지 않을 일은 해야 하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나와 남이 전부 동시에 이익한 문제가 있다면 거짓말을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 될 수가 있으니 그것도 또한 계율에 속합니다. 빼고 낄 줄을 모른다면은 그거는 목석과도 같은 거니까. 그래서 계는 정에 들어 있다, 정심(定心)에 들어 있다 이겁니다. 계는 정심에 들어 있고 혜도 정심에 들어 있어서 바로 계、혜、정입니다.

그 정심(定心)으로 인해서, 한자리로 인해서 일체 만법이 들고 나는 이 도리를 여러분은 잘 아셔야, 그 정심에서 밝아져야만이 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탈이라는 것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해탈이라는 이름마저도 벗어나야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마음의 암흑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달과 같다고 했습니다. 달과 같이 밝음, 어둠을 비춰주는 달과 같이 밝음이라고 했습니다. 해가 거기에 속해 들어가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일체 만중생을 따뜻하게 키워주고 비춰주고 있어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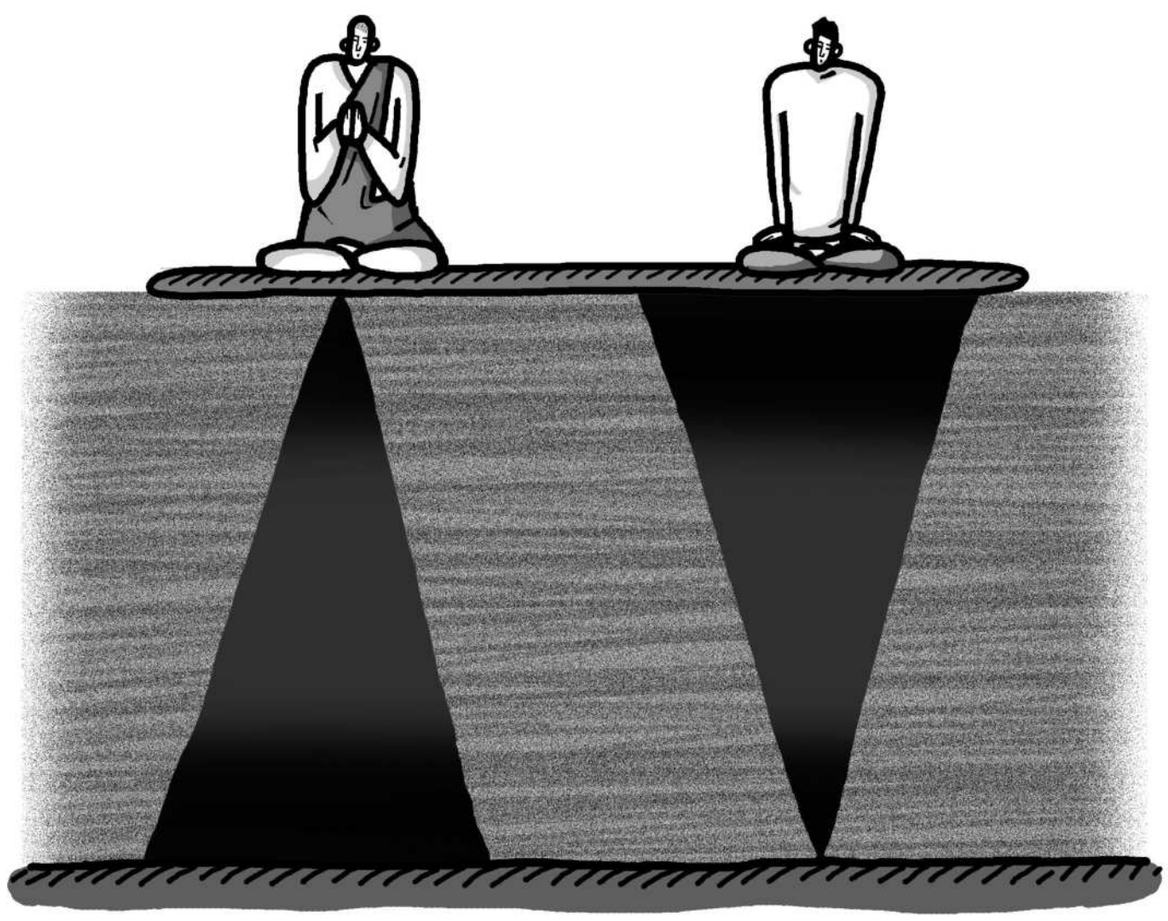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속해 있느냐? 우리 생활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씨로 따뜻한 지혜로써, 말도 부드럽게 하고 행동도 부드럽게 하고 생각 생각이 부드러운 지혜로써 서로 융합해 나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해와 같은 겁니다. 내 마음이 따뜻하지 못하면 남의 마음도 따뜻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따뜻하지 못한데 어찌 남의 마음이 따뜻할 때를 바라겠습니까? 내 마음이 악하게 되면 그건 무간지옥이라 그랬습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선하고 착하고 밝고 깨끗하게, 정심으로써 지혜롭게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일체 중생을 대하고, 가정을 대하고 모든 상대를 대할 때, 따뜻한 마음으로 둘이 아닌 도리로 대한다면 마음은 체가 없는 거라 스스로 상대도 밝아져서 나와 더불어 밝게 불을 켤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러니 저러니, "나는 주인공을 찾는데도 이렇게 안 됩니다." "주인공을 찾았더니 잘 되다가 또 안 됩니다." 이러거든요. 여러분이 한 발짝 떼어놓는 거만 알았지 한 발짝 또 놓고 드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한 발짝을 들었으면 한 발짝은 놓고 한 발짝 들었으면 한 발짝 놓고,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되는 것도 알아야, 드는 것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놓는 것도 알아야, 들고 놓고 들고 놓고 하는 작용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창조력을 기를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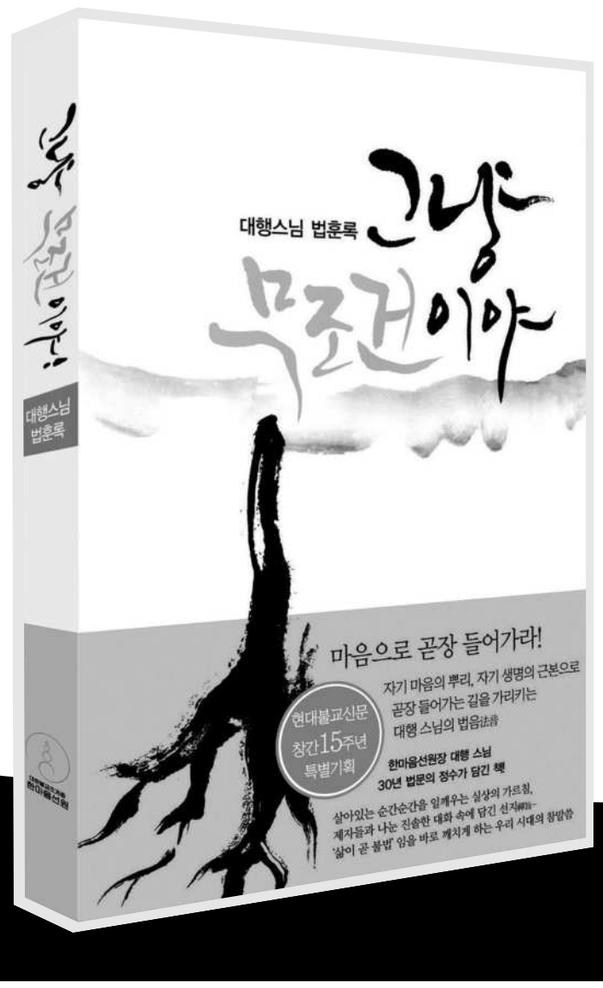
그런데 주인공을 찾으니까 어느 만큼 되더니 안 되더라고 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도 알아야지 전진하기만 하면 빠져 죽죠? 때에 따라서는 전진하기만 하면 구덩이에 빠질 텐데 그때는 물러서야 빠져죽지 않죠? 그러니 드는 것도 법, 들지 않는 것도 법.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니라 한 것입니다. 왜 안 되는 것도 법이라고 했느냐? 구덩이에 빠지겠으니까 빠질 일은 물러서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 물러서서 다시 굴려서 놓으면은 빠지지 않을 데로 갈 수가 있으니까 안 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라 했습니다. 이거를 지혜롭게 잘 굴릴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사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몸만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천차만별로 아픔을 가지고 가는데 바로 그 아픔이라는 재료가 지금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공부길에 들어선 걸 뜻합니다. 그냥 맨손으로 들어설 수가 없으니까 그 재료를 가지고 들어선 겁니다. 그 재료가 아니면은 이 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만하면 살지.' 하는 마음이면 이 길을 들어서려 하지 않습니다.

요 말 한마디를 하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모든 것은 공(空)했다고 했습니다. 수없이 얘길 하지만 프로펠러 돌아가는 데, 그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거기에 먼지 앉을 자리가 어딨습니까? 네? 먼지 앉을 새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병이 났다 하고, 여러 가지 아픔이 생겼다 합니다. 내가 이런 걸 당했다, 내가 가졌다, 내가 병났다, 모두가 '내가' 입니다, 내가! 내가 공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모든 건 그놈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놈한테 맡겨놓으세요

☞ 29면에서 계속

고.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간다고 했죠. 여러분이 그걸 짐작하시죠? 고정됨이 없이 보고 듣고 행하고 말하고 만나고 먹고, 고정됨이 없이 말입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한시 반시도 그냥 고정되게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변하고 부서지고 모든 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 먼지 앉을 자리가 어딨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가져오는 그 재료를 보면 모두 내가, 내가, 내가,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가 아니라 전체 포함해서 돌아가는 길에 그런 것이 마음에 따라서 부딪치게 되고, 그 업식으로 인해서, 인연에 따라서 업식이 돼서 나한테 자꾸 연관이 되는 거니까 또 부딪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말입니다. 내 몸속에 들어서 자꾸 그 용도에 따라서 나오는 것을 말입니다. 업식이라고 하고 업보라고 하고 유전이라고 하고 영계성이라고 하고 이런 거를 다, 아픔이 아니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모습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한테 공부할 수 있는 재료로 생긴 거다, 업보가 붙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병고가 붙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공부할 수 있는 재료를 나한테 이렇게 감사하게도 준 것이다, 이끌어주는 재료가 주어진 거다 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가지고 나는 관찰하고 거기다가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놓고, 내 마음의 주인한테다 맡겨놓고 관찰하면서 실험하면서, 지켜보고 체험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그냥 틀고 앉아서 '이게 뭐꼬?' 라든가, 의정을 강제로 내가지고 한다든가 이런다면은 그것은 참선이 못 됩니다. 하나하나 지켜보고 체험하고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일체 만법의 근원이며 그 근본을 해탈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말로만 그냥 '나는 주인공을 찾았는데도 이렇습니다.' 하지 말고, 찾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겁니다. 본래 있는 거니까. 본래 없는 것을 찾는 것이라야 이게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즉 암흑 속에서 밝음이 불끈 솟아서 불이 일어나면 모두가 밝게 살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말로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이 병원에를 가봐야 옳을까 여길 가봐야 옳을까 저길 가봐야 옳을까 이러지 마시고, 내 중심에서 '이거는 병원을 좀 갔다와야 되겠다.' 한다면 그대로 가는 것도 법이고, '병원엘 안 가도 이 한마음 속에 이 모든 생명들이 한마음으로 작용을 해주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대로 거기다 놓고 실험을 하고 지켜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인 것을.

그러고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지, 내 속에 들은 의식의 그 마음들과. 여러분이 따지고 보면 하나가 아니죠? 이 속에 들은 수십억의 그 모습들이 다 여러분의 모습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한데 합쳐서 작용을 해주는 바람에 여러분이 걸어다니고 말도 하고 나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나를 보러 오더라도 나에게 말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내 이 마음에다, 모두 한마음에다 넣고 저 마음도 더불어 같이 한마음인데 어찌 스님의 마음인들 이 속에 아니 계시랴! 일체 만법이, 또는 만인의 마음이 또는 일체제불의 마음이 다, 내가 아파서 응해달라고 하는데 어찌 응하지 않으랴! 그렇게 믿고 마음으로 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다면 모두가 응신(應身)이 돼서 약사(藥師)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병을, 몸에 들은 여러 의식과 더불어 같이 한마음이 돼서 고쳐 주시고, 어떠한 애로가 있다면 관세음이 돼 주시고 명이 짧다면 칠성(七星)이 돼 주시고, 응신으로 찰나에 드셨다 나시고 드셨다 나시고, 그러고 좋은 데로 못 간다 한다면, 그래서 좋은 데로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정성을 지극하게 한다면 바로 지장이 돼서 여러분의 그 의식과 더불어 한데 합쳐서 그 지옥문을 다 허물어뜨리고 나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료한 마음의 슬기로운 그 묘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바깥으로 그렇게 끄달리고 그런다면은 어떻게 사람 노릇을 하며 어떻게 모든 것에서, 그 암흑 속에서 벗어나서 이 태양을 다 보고 행하시렵니까?

옛날이라고 할까요, 내일이라고 할까요, 오늘이라고 할까요. 어느 동자가 말입니다. 부처님과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 부처님께서 동자더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자야!" "예." "내 발과 네 발이 차이가 어떠하냐?" 하고 물었습니다. 동자 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차이가 나지 않는까닭은 무엇인고?" 하고 또 부처님께서 물었습니다. 동자 대답하기를 "내가 부처님한테 가면은 부처님이 하나가 되시고 부처님이 내게로 오면은 내가 하나가 되니, 어찌 차이가 난다 하겠습니까?" 했더랍니다.

그러니 "그러면, 그 하나로 돌아가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는고?" 하고 또 물었답니다. 이리 가도 하나고 저리 가도 하나라니 말입니다. "그 하나로 돌아가는 건 어디로 돌아가는고?" 하고 부처님께서 또 물었답니다. 이 소년은 "박넝쿨이 담 너머로 넘어가서 박이 열린 까닭입니다." 했더랍니다. 그러니 부처님 말씀이 또 "박은 그래 여여한가?" 했더랍니다. "박은 제 나무에서 익어서 맛이 좋습니다."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 만공에 꽃이 두루 피고 향기가 두루 나고 만 가지 맛이 나는구나. 그대로 그냥 그냥 익었도다." 했더랍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 말을 그대로 연결해서 침착하게 그 과정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경전으로 알려고 하지도 말고 내 마음 가운데서 '아, 양발이 같을 수가 있고, 너한테로 가면 네가 하나가 되고 얘한테로 오면 이게 하나로 되고 둘이 아닌 고로 그 하나는 담 너머로 박넝쿨이 넘어가서 박이 열린다.' 그 박도 익었어야죠, 또. 하하하. 그래야 제 맛이 나겠죠? 허허….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마음 밖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수없는 억겁을 통해 진화돼서 나오면서 그래도 선근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인연이 없다면 모이질 않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손수건을 하나 들어도 인연입니다. 이 손수건을 내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손수건이라는 이름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써주니깐 바로 이 손수건이라는 빛이 있는 겁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이 모든 생활 속에서 만나는 인연들도 같이 만나고 같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철 나와서 만남인데 이 만남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느냐, 구덩이로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니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인의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착하게 마음을 쓰고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악하게 생각을 갖지 마시고 항상 부드럽게 내 마음, 이 한마음 속에 더불어 같이, 내면이나 외부나 모든 것이 직결돼 있고 가설이 돼 있는 이 한마음 속에 모든 것을 놓으시고, 거기다 맡기시고 어떠한 억울함도 거기다 맡겨놓고,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맡겨놓고 '네놈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물러서지 말고, 겉으로는 부드럽게 말하시고 거기다 맡겨놓으면, 자기라는 게 없어집니다. 부드럽게 말하시고 행동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렇게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면 아마 조건 없는 사랑이 내 앞에 올 것입니다. 이 도리, 미묘한 도리를 여러분은 직접 실험해보십시오. 실험을 해보지 않는다면 모릅니다.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 **부드럽게 말하시고 행동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렇게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면**
> **아마 조건 없는 사랑이 내 앞에 올 것입니다.**
> **이 도리, 미묘한 도리를 여러분은 직접 실험해보십시오.**

질문자1(남): 저, 울산의 아들입니다. 저는 조금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이름 지어놨습니다. 이름뿐이고요. 이렇게 와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살아온 과정이 큰스님 법문하고 저의 인연하고 백분의 일미리도 오차가 안 난다는 걸 자신하고 믿고 갑니다. 그래 왔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저 나름대로 체험을 많이 합니다. 아픈 것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아팠는데, 고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더군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거울을 딱 들여다보니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금도 오차가 없어요, 거기에.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발견했느냐 하면, 우리 집에 식구가 아픕니다. 아픈데,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는 중도에 나을 줄 알았는데 안 나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아픈 것도 너 알아서 해.' 하고 내가 미련스럽다보니까 '너 알아서 해!' 하다보니까는 한 보름 전에 딱 부딪치데요, 그게요. 왔습니다, 그게요. 아, 그런데 내가 지금 그쯤은 알아가지고 행동한다거나 말 같은 이런 거 한다거나 하는 것도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습성 있잖습니까? 습성, 버릇! 그게 잘 안 돼가지고, 큰스님께서 좀 교정을 시켜주십사 하고 또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삼천 마일짜리 모터를 돌리는 모양인데요. 이제 삼만 볼트 전기를 안양 스님한테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허락하셨죠?

큰스님: 그 모든 건 정심(定心)에서 나오는 거니까 정심에다가 모든 걸 놓으면 망상이든 뭐든,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모든 건 그놈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놈한테다 맡겨놓으면은 그대로지, 어디 또 망상이 따로 있습니까? 습성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습도 그놈이 저지른 거니까 그놈한테다 놓으십시오.

질문자1(남): 그런데 굉장히 묘한 게 많습니다. 제가 술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아침에 속이 쓰리다 그러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먹고 괜찮다 하니까는 아침에도 괜찮고요. 뭐, 밥 한 그릇 다 먹고 회사 출근하고요. 이 신기합니다. 그게 또.

큰스님: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을 습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해결할 수 있고, 다스리는 것은 너무 많이 먹으면 좀 실례가 될지 모르니 조금, 한 그릇 두 그릇 덜 먹는다 하는 마음으로 가면은 다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고 ??하라'가 아니고, 자기에 맞게 용도에 맞게, 자기한테 아주 알맞게 모든 것을 행하시면 그게 바로 정행입니다.

질문자1(남): 그러니까 저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까지 그런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습성이 좀 남았는데, 저 나름대로 빨리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여튼 참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큰스님: 습성도 놓으십시오.

질문자1(남): 예. 예.

큰스님: 그럼 됩니다.

질문자1(남): 큰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큰스님: 장하십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2년 5월 17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3×6사군자 (7.4ϕ×14.5cm)


3×6식물성사군자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ϕ×29cm)


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ϕ×29cm)


한봉밀납양초 – 4호 / 3호 / 2호 / 1호 / 밀대전사자 / 돈타레전사자 / 원기둥전사자



수공예예술양초 – 밀납 / 약쑥야광연봉연꽃양초 / 약쑥1호예술연꽃양초 / 야광 연꽃초

100% 핸드메이드 자수방석

사이즈 및 소재 맞춤으로 작업가능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상품으로 제작해드립니다.
수공예 전화상담 : H/P 010-3766-0242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불자 세상보기

이제 '희망의 배'를 띄우자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보름 전 제주도와 인천을 오가던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 거리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는 노란 리본과 흑백 현수막들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 그것은 곧 실종자들의 무사귀환과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기에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짐을 느낀다.

아직도 눈에 선한 것은 배가 가라앉기 직전까지도 얼마 뒤에 닥칠 죽음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천진난만한 얼굴로 부모들이나 친구들에게 '난 괜찮아'라는 문자를 보내던 앳된 학생들의 마지막 모습이다.

휴대폰 화면 속에서 저렇게 살아 숨쉬던 아이들이 여전히 차가운 바다 속에 그대로 갇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느새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일까, 누군가는 현재의 상황을 가리켜 '대한민국은 지금 국상(國喪) 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만큼 우리 사회 전체가 침울함 속에 빠져 있다는 말일 것이다.

세월호의 어이없는 침몰사건을 두고 뜻있는 사람들은 그 배야말로 켜켜이 쌓인 우리사회의 각종 병폐들을 적나라하게 상징하고 있는 '절망의 배'와 다를 바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승선해 있는 대한민국호가 서해바다에 가라앉은 세월호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불길한 예감마저 든다. 그러나 이대로 계속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살아남은 자들에게 남겨진 몫을 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평상심의 회복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점을 새삼스럽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잘 알고 있다시피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는 소비욕구를 완전히 상실한 채 비틀거리고 있다.

더군다나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 스승의 날 등 공휴일이 많아 기업이나 각종 시민단체에서 야유회와 체육행사를 계획하고 있기 마련인데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모두 취소되어야 할 판이다. 레저와 미용 및 외식업의 카드 사용액도 급감하고 있다고 한다. 덩달아 여행업계도 울상이 된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뿐만 아니라 공연이나 이벤트 업계의 5월 행사가 90% 이상 중단되었다고 하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세월호의 희생자들에 대한 전국적인 애도의 분위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감히 어느 누구도 전국적인 반소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설 수 없게 된 것이다. 음식점도 만원이고 옷가게도 붐벼야 택시기사들의 호객행위도 정겹게 들린다. 그것이 서민경제의 살맛나는 풍경이다. 하지만 지금은 음식점의 단체회식 예약이 무더기로 취소되는가 하면, 술도 기껏해야 한 두잔만 마시고 귀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대리기사들도 당장 생계가 위협을 받을 정도라는 원성이 자자하다.

개인적으로 이런 일방적 사회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지금도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사고 관련자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는 일은 당연히 삼가 해야 되겠지만 사회전체의 경제활동이 지금처럼 위축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사고의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한편, 일반국민들의 일상적인 삶도 다시 활기를 찾는 사회통합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제 넘는 말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는 세월호의 침몰로 요약되는 과거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하루빨리 떨쳐버리고 원칙과 배려 및 신뢰가 넘쳐나는 미래의 대한민국호, 즉 '희망의 배'를 다시 출항시켜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우리는 절망만 본 것이 아니라 분명히 희망의 새싹도 발견할 수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한 명의 아이라도 더 살리려고 애쓰다 자신의 목숨을 바친 승무원과 교사들도 있지 않았던가. 그들의 살신성인은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소중한 불씨가 되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자가 바로 세월호 침몰의 직간접적인 원인 제공자였다는 자각이 폭넓게 공유될 수만 있다면 꽃다운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세월호와 부처님오신날

5월 6일은 부처님오신날이었다. 전국 사찰에서는 봉축 법요식이 봉행됐다. 하지만 올해 봉축 법요식은 희생자들의 추모하는 법석으로 진행됐다. 아픔을 함께 나눈 불자들의 단상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다함께 행복해지는 길 고민하자"

우선 세월호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세월호 참사를 보며 부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카필라성의 동서남북 네 문으로 나가셨다가 각각 늙은이와 병자, 죽은 사람과 수행자를 보고 출가할 뜻을 품으셨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는 동시에 우리에게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게 만든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이 땅의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를 새롭게 바라보고 사회의 잘못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과중심주의 황금만능주의를 자각하고 깨끗하고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같이 노력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 되어 다함께 행복해지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를 위해 진정 행동할 수 있는 불자가 되었으면 한다.

김석범(동국대 대학원 응용불교학과)

우리 삶 돌아보는 계기 삼자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책임지지 못하고 정부가 국민들의 목숨을 책임지지 못하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아팠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기본적인 생명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세상이라는 것이 미안할 뿐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는 총체적 인재였다. 무책임한 선장과 직원들, 무능한 정부와 관료들부터 먼저 자성하고 쇄신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부처님 연기사상에 맞춰 볼 때 우리는 공업 중생이다. 누구 탓을 하기 보다는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깨달아야 한다.

송지희(30 · 주부)

"추모 연등회, 사람들 하나로 이었다."

지난 4월 28일, 세월호 희생 학생들에 대한 추모로 연등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앞으로 있을 구조에 대한 기원의 마음으로 노란 리본을 달았고, 그 마음을 연등에 담았다.

동대문에서 종로까지의 행렬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지난해보다 줄어 있었지만 참극의 슬픔을 함께한 연등 물결덕분에 어느 때보다 한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잃어버린 수많은 생명들에게 26일의 물결이 전 국민의 마음과 함께 전달되기 바랍니다. 너무도 허무한 희생을 낳은 과거의 모든 결정과 선택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소원하며 사건의 수습과 뒤에 벌어진 모든 일들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길 기도한다.

김자인(직장인)

세월호는 우리 사회 단면

세월호 참사를 TV로 접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옆에 자고 있는 내 아이를 보면서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생각했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의 단면이다. 희생자들의 애도와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던져진 화두를 상기할 때다. 자신의 안위보다 다른 사람들의 안위도 함께 돌볼 여유가 있는 사회. 무리하게 이윤만 쫓는 세상보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사회. 공무원이 정말 '공무'를 할 수 있는 사회. 골목 곳곳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상상력을 마음껏 뽐내면서 놀면서 세상의 희망이 넘치는 사회. 우리 앞에 펼쳐질 사회는 이와 같아야 한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사회의 악순환을 우리 앞에서 끊어내야 한다.

오용성(개인 사업자)

社說

'부처님 오신 뜻' 실천이 가장 큰 포교

지난 5월 6일은 부처님오신날이었다. 석가세존이 자비광명의 빛을 이 땅에 비추기 위해 나투신 불기 2558년이다. 카필라성의 싯다르타 태자는 오른손으로 하늘을, 왼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하늘과 땅 위에 나 홀로 존귀하여라(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고 외쳤다.

이 말은 하늘과 땅이 열린 이래 가장 귀하고 빛나는 존재는 오로지 사람이라는 인간 자존의 확인이라는 의미다. 즉 일체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지녔다는 뜻이다.

부처님 때문에 우리는 번뇌를 벗어나 참다운 인간이 되는 길을 배웠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욕심과 성냄, 어리석음의 삼독(三毒)을 버리라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집착없는 마음으로 갖가지 선을 행하면 곧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무명의 바다를 헤매거나 번뇌에 휩싸일 때 이 명확한 가르침은 삶의 등대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남기신 법대로만 살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불자로서의 삶의 지표가 명확해 지는 순간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제자를 자처한 우리 사부대중은 석가세존의 가르침을 이 땅 위에 구현하기 위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노력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분기탱천할 상황이더라도 '성냄'을 경계하라는 부처님 말씀에 따라 조금 더 자제했는지, 대덕(大德)으로 상생의 깨우침을 나눠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법대로 사는일이 가장 큰 포교요 원력이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겨보길 바란다. 그것이 이 땅에 부처님께서 오신 큰 뜻이 아닐까?

'템플스테이' 통해 국민 아픔 치유하자

세월호 참사는 피해자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 심리적 외상을 입혔다. 사고 이후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수요도 늘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오죽했으면 세월호 사고로 인해 우울하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위해 대한신경정신학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정신건강지침서를 내놨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적 충격을 안겨준 사건을 망각하기보다는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대처능력에 더 큰 자신감을 갖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 기반을 뒀다.

김영훈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스트레스에 대한 극복 방법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정신건강지침을 통해 보다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현재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다. 가정의 달, 5월이지만 놀이공원, 유원지 등은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휴식이 필요하지만 갈 곳이 없다는 성토들도 적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불교가 국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치유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가장 좋은 아이템을 불교는 가지고 있다. 바로 '템플스테이'다.

실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지난해 발표한 '템플스테이의 사회공익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실적 성취도에 있어 스트레스 해소 및 자아성찰 등 정신건강 가치가 5.45(7점 만점)로 가장 높았으며, 템플스테이 발전의 중요 가치 역시 정신건강이 6.32점(7점 만점)으로 국민들은 템플스테이의 정신적 가치에 기대?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기대하고 주목하는 만큼 불교계와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들은 산문을 활짝 열고 대중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자비의 마음으로 감싸 안아 치유해야 한다. 중생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야말로 불교의 시대적 과제이고 포교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떡전고을로 114-1. 1층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김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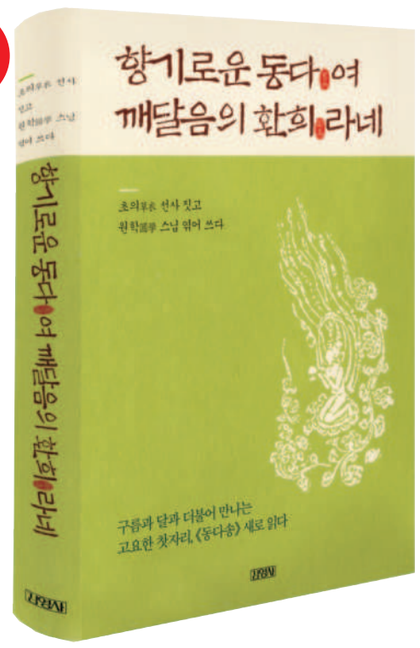
TEL : 031)955-3200 www.gimmyoung.com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차성茶聖, 초의 선사가 우리 시대에 건네는 진정한 화두!

향기로운 동다東茶여 깨달음의 환희歡喜라네

구름과 달과 더불어 만나는 고요한 찻자리, 《동다송東茶頌》 새로 읽다

화제의 도서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
차의 경전經典 《동다송》에서
1200년 우리 차의 정신과 인생의 철학을 구하다!

180년 전 초의 선사가 차를 통해 이루고자 한 세상은 어떤 것인가. 차의 생장과 개화부터 차 달이는 법, 차 마시는 법, 차에 담긴 선禪의 정신까지. 초의 선사가 쌓아올린 우리 차의 깊고 심오한 사유 《동다송》. 그 적요한 경지를 보여주는 열일곱 편의 아름다운 다시茶詩가 원학 스님의 손끝에서 새롭게 움튼다! 차 한 잔 속에 펼쳐진 인간의 길, 그리고 맑고 오묘한 깨달음의 세계!

초의草衣 선사 짓고 원학圓學 스님 엮어 쓰다 양장 | 284쪽 | 18,000원


원학 스님

❊ 뭇 생명과 함께하는 향기로운 찻자리로 초대합니다!

1. 봉은사 출판기념회 및 특별강연회
일시 5월 11일(일) 오후 2시 장소 봉은사 보우당

2. 조계사 북콘서트
일시 5월 18일(일) 오후 2시 장소 조계사 불교전통문화공연장

3. 코엑스 국제차문화대전 특별강연회
일시 6월 4일(수) 오후 2시 장소 코엑스 HALL A

※각 행사 뒤 저자 원학 스님의 독자 사인회와 함께 기념다포를 드립니다.



원학圓學 스님 주변으로부터 항상 '정인군자正人君子'란 말을 듣는 원학 스님은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의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해인승가대학 12기로, 서울 조계사, 봉국사, 진주 연화사, 대구 용연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조예가 깊으며, 남종화의 거장 허백련 선생의 수제자인 오우선 선생에게서 전통산수화를, 오제봉 선생에게서 서예를 40년 넘게 사사했다. 《동다송》과는 20년 전 처음 만나 초의 선사의 다도 정신을 계승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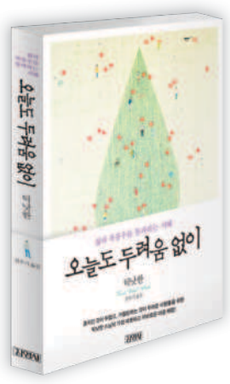
"명상의 혁명가 틱낫한이 전하는 삶의 폭풍우를 통과하는 지혜"

오늘도 두려움 없이



★★★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지혜의 빛을 비추며 뜨거운 감동을 준 화제작
★★★ 여든여덟 나이에 이른 노스승의 위대한 철학적 사유가 담긴 최신작

● 책을 덮자, 마음에 평화가 밀려든다. 이제 시작해봐야겠다. 교보문고 독자 ilhpvm ● 책을 읽는 동안 자주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나 자신을 들여다보니 거짓말처럼 나를 짓누르던 막연한 두려움이 슬그머니 사라졌다. 예스24 독자 노부타 ● 생을 마치기 전에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가려는 어버이처럼, 틱낫한 스님은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보다 높은 차원의 모든 수행을 집대성해놓았다. 법보신문





"당신의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깊이 보라."

죽음의 문제부터 일상의 두려움까지, 삶의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틱낫한의 따뜻하고 자비로운 인생의 가르침. 죽음이 두려운가? 혼자 남겨지는 것이 겁나는가?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가? 불안에 대한 깊은 통찰과 구름을 뚫고 나온 햇살 같은 해답으로 삶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도록 이끄는 불꽃같은 가르침.

틱낫한 | 진우기 옮김 | 224쪽 | 12,000원